

2020학년도 2학기

CTL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CTL 프로그램 후기 공모전
·
나만의 학습전략 공모전
·
좋은 강의 에세이 공모전



CONTENTS

CTL 프로그램 후기 공모전

최우수상

- 교수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수강하고 삼성전자 입사하기 005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과 안정민

우수상

- 튜티에서 튜터로 성장하다. 013
약학과 안재덕
- 사라진 나의 시간을 찾아서 019
응용수리과학부 데이터계산과학전공 박민영
- KUS-TUDY? K'US'TUDY! 021
약학과 사해리

장려상

- 에블팟빵(A+받는 선배가 들려주는 팟캐스트) 027
융합경영학부 이시현
- 4점대를 넘어 032
사회학과 장영훈
-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영어공부 037
약학과 류민재
- 다같이 앞으로 041
융합경영학부 디지털경영전공 김보영
- 새로운 시각의 학습법을 갖다. 047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과 박호철

나만의 학습전략 공모전

최우수상

- **필기가 어려운 너에게 유용한 필기 꿀팁!** 053
경제통계학부 경제정책학과 김규리

우수상

- **내가 All A+를 맞을 수 있었던 공부방법** 059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 공공사회학전공 강지혜
- **효율 is the Best!** 065
경제통계학부 경제정책학과 김나영
- **반복하는 노력** 071
생명정보공학과 허민

장려상

- **외국인을 위한 학습 능력 신장 전략 -한국학 전공 중심으로-** 077
글로벌학부 한국학전공 FAN LECHENG
- **A+ 어렵지 않아요!** 082
응용수리과학부 데이터계산과학전공 김지원
- **의식의 흐름 레포트는 이제 그만, 복선 회수 레포트 작성법** 087
문화창의학부 미디어문예창작전공 오수민
- **아이패드 없이 아이패드처럼 공부하기** 092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임현웅
- **공부, 알고하자!** 097
경영학부 한대훈



좋은 강의 에세이 공모전

최우수상

- **창업을 위한 필수 지식 -디지털 창업과 자금관리-** 105
융합경영학부 디지털경영전공 김민홍

우수상

- **명불허전 교수님의 명실상부 강의** 111
글로벌학부 이재현
- **운동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다. 건강하기 위해 운동하자.** 114
생명정보공학과 신수민
- **당신이 캡스톤 디자인 강의를 수강해야 할 이유** 118
경영학부 이성윤

장려상

- **제대로 된 공부가 하고 싶다면 기업법을 들어보자.** 123
경영학부 김민하
-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언제나 함께였다.** 127
문화창의학부 미디어문예창작전공 김수현
- **강의, 그 이상의 것** 131
글로벌학부 독일학전공 박효정
- **인간의 생태를 이해하는 거시경제학** 136
경제통계학부 경제정책학전공 서주영
- **독서를 통해 생각의 깊이를 넓히다.** 141
글로벌학부 윤신영

2020년도 2학기

CTL 프로그램 후기 공모전

최우수상

- 교수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수강하고 삼성전자 입사하기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과 안정민





2020년도 2학기
CTL 프로그램 후기 공모전



교수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수강하고 삼성전자 입사하기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과
안정민

‘졸업 전 삼성전자에 함께 입사하자!’라는 목표를 품에 안고 2학년까지 교내 학부연구생 활동을 진행함과 동시에 학업에 열중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학습과 실험에만 집중하며 대학 생활의 무료함을 느끼게 되었고,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우리만의 특징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족함을 느낀 후, 2019년부터 나에게 긍정적인 시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교내 프로그램들을 참여하여 남들과는 차별화된 경험을 쌓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어떤 부서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지에 대한 확인 과정 없이 ‘인재 양성 통합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나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가능한 한 열심히 수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여했던 프로그램들을 정리해본 결과 가장 즐겁게 참여했던 프로그램,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던 프로그램,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프로그램,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 삼성전자 면접관에게 특별한 경험으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 모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느끼고 교수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후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최종 합격이라는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부분을 채워줬었던 교수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각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유익한 부분,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등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겠습니다.



3급신입채용

결과안내

삼성전자 2020년 하반기 3급 신입사원 채용 공고

안정민님()은
면접에 합격하셨습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후 일정은 개인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험번호 :]

© 2020 삼성전자. All rights reserved.

KUS-TUDY (K-MOO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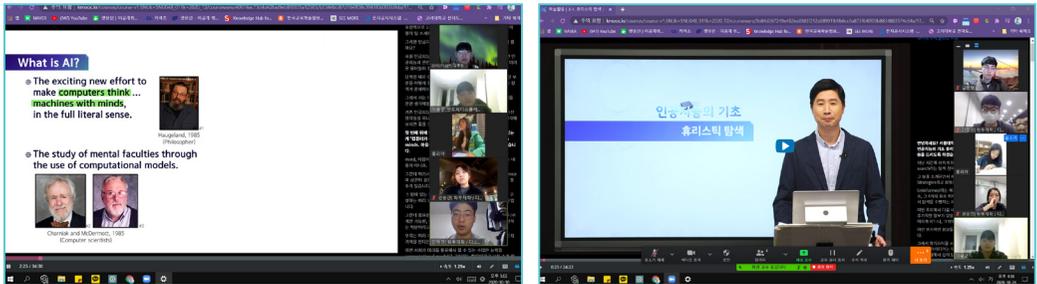
2020년 1학기에는 '무-하!'라는 이름으로, 2020년 2학기에는 'KUS-TUDY'라는 이름으로 K-MOOC를 활용한 학습 프로그램을 두 번 참여했습니다. K-MOOC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한국형 MOOC. MOOC는 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약자로서 수강인원에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하며(Open), 웹 기반으로(Online) 미리 정의된 학습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Course)'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타 대학 수업을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1학기에는 취업 준비를 시작하며 지금까지 배워온 전공지식의 기본을 다시 한번 다지자는 목표를 갖고 4명의 동기와 함께 서울시립대학교 신창환 교수님의 '반도체 몰라도 들을 수 있는 반도체 소자 이야기'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1학기에는 학교생활을 함께하며 친하게 지내던 동기들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프로그램을 이수했고, K-MOOC 수업을 바탕으로 함께 듣는 전공수업의 1등~4등을 4명의 구성원이 모두 차지하여 우수한 학점을 받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좌, 프로그램 참여 진행 모습 / 우, 프로그램 진행 과정]

2학기에는 서울대학교 김건희 교수님의 '인공지능의 기초'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졸업 후 나아가게 될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산업에서는 시를 통한 생산 및 계측 자동화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과 특성상 인공지능에 대해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전공과 프로그래밍을 깊게 배울 수 있는 전공의 부재가 늘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후배들과 함께 K-MOOC를 통해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시의 기초내용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 참여 후에도 구성원들과 함께 Python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을 함께 진행하며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역량을 함양하는 감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K-MOOC 진행 모습]

K-MOOC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쌓은 프로그래밍 역량과 협업, 그리고 자기 주도적 활동의 모습을 자기소개서에 녹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습컨설팅

학교 수업과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마지막 학기를 보냈습니다. 전공 학습에만 집중해오던 시간과는 다른, 처음 도전하는 취업이라는 짐을 함께 운반해보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했습니다. 3주 동안 학습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학습과 취업 준비라는 짐을 효율적으로 운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1주 차에는 제가 활용하고 있는 학습 방법과 시간 관리 방법을 점검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사님께서 제가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며 추가로 제가 활용하고 있는 방법들에 대한 보완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사님께서 활용하고 계시는 주간 업무 계획표 양식을 공유해 주시고 할 일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이행하는 방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방법을 실제 적용하여 계획 이행을 비교적 확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주 차에는 강사님께서 보완해 주신 부분 덕분에 계획 수립 과정과 이행에 있어서 확실히 시간적 효율이 상승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강사님께서 제가 학습 부분과 시간 관리 영역에서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글쓰기 클리닉을 통해 자기소개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고, 학습컨설팅을 통해 취업 준비와 학업을 모두 챙겼으며, 면접관에게 열정 넘치는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입사까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회에 진출한 후에도 제가 받은 감사한 경험들을 학교 후배님들에게 값을 줄 아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2학기

CTL 프로그램 후기 공모전

우수상

- 튜티에서 튜터로 성장하다.
약학과 안재덕
- 사라진 나의 시간을 찾아서
응용수리과학부 데이터계산과학전공 박민영
- KUS-TUDY? K'US'TUDY!
약학과 사혜리





2020년도 2학기
CTL 프로그램 후기 공모전



튜티에서 튜터로 성장하다.

약학과
안재덕

KUS-전공과목 튜티에서 튜터로 성장하다

3학년 2학기, 처음 '약물학' 강의를 들었던 당시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방대한 양의 수업내용과 수백, 수천 가지의 약물 성분명과 작용기전, 효능, 효과 및 적응증까지 모조리 암기해야 했다. 대부분의 동기 친구들은 이과생이었고 암기과목에 취약하다 보니 친구 중에서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나 또한 뻗속까지 이과생이었고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지레 겁을 먹었다. 처음 배우는 과목이었기에 매우 낯설었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외워야 할 내용은 너무 많아서 무턱대고 머릿속에 넣은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였다.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 이해를 바탕으로 외우는 것을 좋아했기에 이해를 먼저 하려고 했으나 약물학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수업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도 어려웠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을 하던 중, 당시에 선배님께서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KUS-전공과목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며 튜티들을 모집한다고 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튜티로 지원하여 매주 1회씩 튜터링을 받았다. 선배님께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걱정이 많았던 약물학 공부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 덕분에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다. 선배님의 가르침과 함께 나만의 학습법을 터득하여 체계적인 공부법으로 약물학에서 A+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나에게 있어서 KUS-전공과목 튜터링 프로그램은 나를 구원해준 동아줄과 같은 존재였다. 당시에 교수학습지원센터의 KUS-전공과목 튜터링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도 다른 친구들처럼 약물학 공부에 많은 걱정을 하거나 힘들어서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이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중간고사에는 2등을 했고 기말고사 시험도 잘 마무리하여 결국

A+라는 좋은 성적을 얻어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결심했다. ‘나도 후배들에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약물학 공부에 도움을 주어야지’라고 말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새로운 후배들이 들어왔다.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 따라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약물학도 마찬가지였다. ‘가뜩이나 난해한 과목인 약물학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다니, 얼마나 고민이 많을까?’라는 생각과 2년 전 내가 했던 다짐이 떠오르면서 이번 학기에 후배들에게 약물학 공부에 도움을 주고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KUS-전공과목 튜터링을 신청하였다. 2년 전, 튜터로 참여했던 내가 튜터로서 다시 한번 참여하게 된 것이다.

KUS-튜터링 프로그램 소개 및 지원 과정

KUS-튜터링 프로그램의 취지는 교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튜터가 해당 과목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튜티와 함께 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학습을 도와주며 함께 성장해나가는 것이다. 튜터링의 유형은 크게 (A)기초과목, (B)전공과목, (C)성적부진, (D)장애학생, (E)외국인 유학생 5가지로 나뉜다. 튜터의 지원 자격은 튜터링 과목 성적이 A 이상이어야 하며, 튜터와 튜티는 모두 학부 재학생이어야 한다. 튜터링 유형을 정하고 자격요건을 만족한다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튜터로서 선발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튜터링 선발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튜터링 선발 기준은 튜티 인원, 튜터링 진행 횟수, 목적 및 필요성, 주제와 계획의 연계성, 계획의 구체성을 얼마나 잘 작성하느냐이다. 나는 튜티 총 6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총 9회차(최소 8회차 최대 9회차까지 가능)까지 계획하였다. 튜티 인원과 구체적인 튜터링계획을 세웠다면 무엇보다 신청서를 성심성의껏 작성하여 이 튜터링의 목적 및 필요성, 주제와 계획의 연계성, 계획의 구체성을 드러내야 한다. 신청서는 따로 양식이 있기 때문에 해당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 들어갈 내용은, 팀 이름과 학습 교재 선정, 팀 구성 배경 및 튜터링 목표, 주차별 학습계획, 팀 운영 규정 등이다. 실제로 주변에서 튜터링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가 최종 선발되지 못하여 튜터로서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를 종종 보았기에 나는 신청서를 쓰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학습 교재는 주교재, 부교재, 튜터 자체 제작 자료, 추가 참고 자료로 4가지 정도를 선정하였다. 주교재는 약물학 원서책, 부교재는 약물학 한글판 교재 및 교수님의 PPT로 준비했다. 자체 제작 자료는 교수님의 수업내용과 PPT, 교과서를 참고하여 중요한 내용을 내가 직접 정리한 자료이다. 수업 시간 중간마다 진행할 개념 확인 문제, 퀴즈도 직접 만들어 자체제작 자료에 넣었다. 또한 약물들을 찾아볼 때 참고하면 좋을 사이트들도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각 주차별로 튜터링 계획을 아주 자세하게 작성하였고 매주 튜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과제 주제도 선정하였다. 튜터링 진행방식을 결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다.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셨고 우리 팀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신청서를 잘 작성하였다면 portal을 통해 제출하고 선발이 되기까지 기다리면 된다. 주변에서 선발되지 못한 경우를 종종 보았기에 긴장을 했으나, 다행히도 큰 문제 없이 선발이 되었고 튜터링을 계획한 대로 진행할 수 있었다.

KUS-튜터링 프로그램의 좋은 점

① KUS-튜터링 프로그램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준비가 잘 되어있다.

특히 이번에 진행하면서 놀랐던 것은 온라인 화상 플랫폼 이용 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점이다. 사실 처음에 많이 걱정했다. 나는 튜터링 특성상 튜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튜티 개개인을 케어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많았다. 더군다나 지금껏 온라인 화상 플랫폼에 참석자로서 이용해본 적은 있었지만, 주체적으로 개설하여 누군가를 초대하고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발표자로 진행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온라인 화상 플랫폼을 이용해야 할지부터 고민이 되었고 따로 이용 방법을 배워야 하나 걱정했다. 또한 내가 온라인 화상 플랫폼 이용 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참여하게 될 튜티들 중에는 익숙하지 않은 친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고 이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다. 아주 감사하게도 이런 나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KUS-튜터링을 진행하는 튜터 및 튜티 모두에게 무료 온라인 화상 플랫폼인 'Google meet'을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해주는 영상을 제공해주셨다. 이러한 교수학습센터의 체계적인 지원과 섬세한 노력 덕분에 KUS-튜터링을 9회차 동안 진행하면서 온라인 화상플랫폼 이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마지막까지 대면 튜터링과 동일한 수준의 생생함과 섬세함으로 튜터링을 진행할 수 있었다.

② KUS-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후배들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내 성격은 활발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또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싫어해서 소극적인 면도 있다. 그래서인지 후배들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웠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혹여나 후배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단체 행사가 취소되었고 수업 또한 거의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다. 심지어 나는 5학년 2학기부터 서울에서 실습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올해 입학한 신입생 후배들과 대화는 커녕 얼굴조차 마주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단절된 느낌이 들었고 많이 아쉬웠다. 하지만 KUS-튜터링 프로그램은 후배들과 부담스럽지 않게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소통의 창이 되었다. 비록 온라인 상이긴 했지만 학교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시험공부는 잘 돼가는지 학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들을 매주 얼굴을 보며 나눌 수 있었다. 좋지 않은 일들은 함께 걱정해주며 짐을 덜어주기도 했고 기분이 좋은 일들은 같이 나누고 축하해주며 함께 기분이 좋아졌다. 이처럼 KUS-튜터링 프로그램은 단순히 전공과목을 알려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특히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선후배 간에 형성된 관계의 벽을 허물어주기에 아주 적합한 프로그램이었다.

③ KUS-튜터링 프로그램은 장학금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튜터로서 계획한 대로 튜터링을 성실하게 수행하기만 해도 45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KUS-튜터링 프로그램이 단순히 장학금을 주기에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아니다. KUS-튜터링 프로그램 장학금의 특징은 튜터링을 성실하고 열심히 진행함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데 이는 열심히 튜터링을 준비한 튜터에게 그 노력의 값어치를 인정해주는 느낌을 주어 뿌듯함이 배로 느껴진다. 나 또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후배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재미있게 알려줄 수 있을까? 튜티의 입장에 서서 고민을 계속하다 보니 지각을 한 번도 하는 일이 없었고 계획을 정확하게 지켜나갈 수 있었다. 지루하지 않도록 재미있는 암기법도 알려주고 공부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도 들려주며 튜티들의 흥미를 자아냈다. 때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행하다가 계획된 시간을 훌쩍 넘었던 적도 있었다. 애초에 이 프로그램은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압박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 또한,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 튜터분만 아니라 튜티들 모두 책임감 있는 태도로 참여했다. 한 번도 지각 및 결석하는 친구가 없었고 과제도 잘 수행해왔다. 열심히 참여해주는 튜티들을 보면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매주 튜터링이 끝나면 다음 주 튜터링때까지 매일 자료를 만들고 퀴즈나 재미있는 암기법 등을 생각해내며 밤늦게 잠들곤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다. 그렇게 9주차까지 튜터링을 마무리한 결과 가장 높은 등급인 S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 일들을 했고, 그 과정속에서 즐거움을 원동력 삼아 끊임없는 노력을 했다. 그리고 예상치도 못하게 너무 좋은 결과가 가시적으로 눈앞에 나타나니 혼자서 튜터링 준비를 하며 고민도 많이 하고 애를 썼던 노력에 대한 값어치를 알아주신 것 같아서 마음이 뭉클했다. 이처럼, KUS-튜터링 프로그램은 본인이 열심히 한 만큼 그것을 인정해주는 스스로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명예로운 프로그램이다.

S등급의 비결-튜티와 함께 성장하다.

① 나는 튜터링 자료를 직접 제작하며 튜티와 함께 학습해나갔다.

직접 만든 튜터링 자료는 수업 시간에 제공해주시는 교수님의 PPT와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여 수업내용 필기 및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부분, 수업 중간에 내시는 퀴즈 등을 정리하여 나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하여 자료로 만들기에는 비효율적이며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 또한 공부의 효율도 떨어뜨린다. 따라서 나의 자체 제작자료는 단원별로 적게는 15장, 많게는 30장에 달하는 PPT를 중요한 핵심내용들을 위주로 정리하여 튜티들이 놓치지 않도록 했다. 자체제작자료에는 일부러 빈칸을 뚫어놓기도 하며 튜터링에 집중하도록 유도했다. 출골로 되어있던 주요 약물들에 대한 설명을 모두 표로 정리하였고 꼭 알아야 하는 그림이나 그래프는 그대로 첨부하였다. 이를 통해 튜티들이 중요한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에는 빨강색으로 강조하여 절대 빠뜨리지 않도록 하였다. 단원 간의 연계성도 중요하기에 이를 통해 흐름을 잘 잡아나갈 수 있도록 했다. 각 소단원마다 주제가 있어서 단원을 독립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좋지 않다. 단원별로 연결지어 공부하지 않으면 앞에서 배운 내용을 쉽게 까먹기 때문이다. 각 단원마다 연계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자체제작자료를 만들면서 앞 내용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 무엇보다 자료 중간중간에 퀴즈를 만들어 넣었던 것이 튜티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퀴즈는 이전에 배운 내용까지를 문제 출제 범위로 하여 만들었고 끊임없이 앞에서 배운 내용도 생각이 나도록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약물학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감을 잡지 못하던 튜티들에게 내가 만들어 놓은 퀴즈를 풀어보게 함으로써 시험 유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이처럼 튜티들이 어떻게 약물학 공부를 해나가야 하는지를 말로써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것이 아닌, 직접 느끼고 경험하며 스스로 깨닫게 해주었다.

이는 비단 튜티들만 성장하는 시간이 아니었다. 튜터링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튜터인 나 또한 공부를 처음부터 꼼꼼히 해야 했다. 핵심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요약된 자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튜티들을 위해 학습자료를 준비했던 시간은 튜터인 나의 학습성취도 또한 향상시켜 주었다. 매주 튜터링 자료를 만들고 나면 나의 머릿속에도 약물학 튜터링 내용이 깊이 남았고 실제로 약국과 병원 실습을 할 때 큰 도움이 되었다.

② 나는 튜터링을 통해 토론이 활성화된 양방향 간의 소통으로 튜티와 함께 성장해나갔다.

단순히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닌 상호 소통을 위해 기본적으로 튜터링이 진행되는 동안 카메라와 마이크는 필수로 켜놓고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많이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서 튜터링 시작하기 전에 짧게 일주일간의 근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본인의 이야기를 꺼내며 편안해진 분위기가 형성되면 본격적인 약물학 튜터링을 시작했다. 튜터링 도중에도 한 명씩 차례대로 학습 내용 관련 질문을 많이 던졌다. 처음에는 내가 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정도였지만 점차 물어보지 않아도 궁금한 점은 먼저 물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등 자연스럽게 대화와 토론이 이어지는 튜터링으로 자리 잡았다. 개개인의 참여도가 향상됨에 따라 튜티들의 학습성취도는 눈에 띄게 높아졌다. 공부에 대한 성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 튜터링 시간을 재밌어했고 집중도도 계속해서 향상하는 것이 느껴져 뿌듯했다.

토론이 활성화됨에 따라 때로는 튜터인 나도 헷갈리는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했고 그중에는 설명하지 못할 만큼 어렵거나 배우지 않은 개념도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함께 검색해보거나 논문을 찾아봄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다. 그래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함께 교수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나의 튜터링 수업은 튜터 혼자서 이끌어가는 수업이 아니라 서로가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 이를 통해 튜터와 튜티가 모두 함께 성장해나가는 시간이었다.

③ 나는 이 튜터링 수업의 목표를 단순히 튜티의 시험 성적을 향상시켜주는 것이라고 정하지 않았다.

실제 임상에서 어떤 약들이 쓰이는지 함께 숙지하고 이를 통해 약국과 병원 등 실제 현장에서 실습이나 혹은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이번 학기에 내가 약국과 병원 실습을 직접 겪어본 결과 학교에서 배우는 약물들의 성분명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실제 임상에서 통용되는 것은 약품명이었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물론 성분명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약품마다 성분이 적혀있기 때문에 성분을 보고서 어떤 약인지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매번 약통에 적힌 성분을 찾아보고 있을 수는 없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약을 빠르고 정확하게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 특히 병원에서는 외래환자들이 매일같이 줄을 서서 대기할 만큼 바쁘고 혼잡했다. 약국 또한 바쁜 시간에는 환자들이 물리기에 정체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의 성분명뿐만 아니라 약품명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따라서 나는 약의 성분을 검색하면 어떤 약품명들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 약학정보원이나 KIMS온라인 사이트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매주 배운 단원에 해당하는 성분을 가진 약품명에 대해 조사해오는 것을 자율적인 과제로 내주었다. 자율적으로 진행한 이유는 부담을 주기 싫어서였다. 튜터링이 부담되는 순간 흥미가 떨어지고 재미가 없으면 더 이상 기다려지지 않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대신, 나도 같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튜티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었다. 그 결과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튜티들이 매주 과제를 정리해오는 것을 보고 아주 뿌듯했다.

나 또한 약품명과 성분명을 연결 짓는 것에 익숙해졌고 이것은 약국과 병원실습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첫 약국 실습 때만 해도 약품명에 익숙하지 않았고 수천 가지의 약의 이름과 위치를 외우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튜티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면서 수천 개의 약물들을 공부하였고 약품명도 수없이 많이 외움으로써 약의 위치나 효능들을 숙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튜터링을 통해 서로가 계속해서 부족한 점은 채워나가고 끊임없이 발전해가는 모습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했다. 이처럼 튜터와 튜티가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었기에 S등급의 의미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다.

KUS-프로그램 참여 소감 및 추천이유

이번 학기에 튜터로서 활동하며 많은 것을 느꼈다. 이전까지 튜터는 '가르치는 자'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배우는 것이 더 많았다. 튜터링을 준비하면서 나는 시험 준비를 할 때보다 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다. 나 혼자 이해하고 아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이 몇 배는 더 어려웠기 때문이다. 역설적이지만, 가르치면서 배운 셈이다. 아는 것을 말로써 잘 설명하고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공부의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부에 왕도는 없어도 목적지는 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이번 튜터링을 통해 찾은 셈이다.

이 프로그램에 2년 전엔 튜티로서, 이번 학기에는 튜터로서 참여한 경험자로서 진심으로 KUS-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프로그램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프로그램이다. 과거에 튜티로 참여한 이 프로그램이 현재 튜터로 내가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다시 나에게 튜터링을 받은 튜티들은 미래에 튜터로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의 반복을 모든 학생이 직접 느끼며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고리가 되어주었으면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 영향력은 우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모두에게 퍼져나가 학교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2020년도 2학기
CTL 프로그램 후기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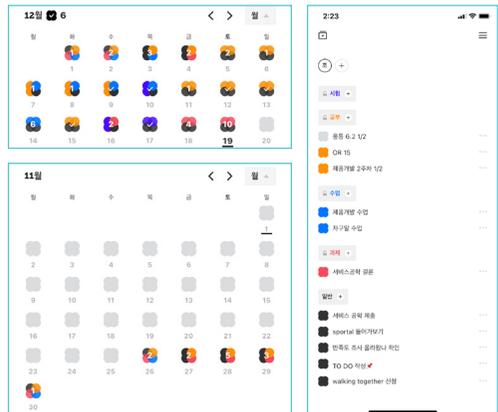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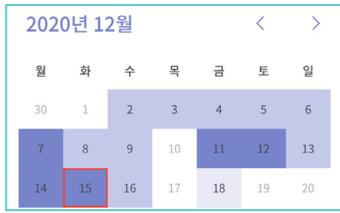
사라진 나의 시간을 찾아서

응용수리과학부 데이터계산과학전공
박민영

2020년 2학기 1차 학습법 특강 중 시간 관리법 특강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여러 방법을 알려주는 특강이었다. 나와 대부분의 친구는 코로나 19로 모든 생활이 STOP이 된 이후 입에 늘 달고 사는 말이 있다. 바로 “아 시간 왜 이리 잘 가냐”이다.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하루 일과는 수업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 수업을 키고 녹화를 하고 다시 잠을 자거나 핸드폰을 하며 지내는 것이었다. 들어야 하는 수업, 해야 하는 과제는 미룰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미루고 유튜브, 넷플릭스를 반복해서 보며 새벽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일상이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시간이 오면 그때 혈레벌떡 책상 앞에 앉아서 해야 할 것을 여기저기 펼치고 이거 조금 저거 조금 하다 중간에 화장실 가고 핸드폰 보며 시간을 보내다 하나도 완수한 것이 없는데 하루가 끝났었다. 이런 생활이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과 우울감 그리고 무기력함을 느꼈다.

그런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해야 할 것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계획을 완수하는 것이었다. 바로 시간 관리이다. 시간 관리법 특강은 내가 해야 할 것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나누고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함으로 해야 할 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틀 역시 제공해주었고 유용한 앱도 추천해주셨다. 또한, 해야 할 일을 할 때 집중력을 발휘할 방법





역시 알려주셨다. 자신의 공부 시간을 기록하고 그 시간 동안은 핸드폰을 하지 않게 핸드폰이 잠기는 여러 앱도 추천해 주셨다.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을 때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여 여기저기 펼쳐두고 순서 없이 이거 조금 저거 조금 해왔던 나에게 TODO list를 작성하는 것은 생활 속 습관을 바꾸게 해주었다. 하루의 시작은 수업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TODO list를 작성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아침에 일어나 침착하게 오늘 하루 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보고 정리하며 계획을 세웠다. 해야 할 것들을 아침에 정리하니 다 완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늦잠 자는 것을 자연스럽게 줄이게 되었다. 또한 중요도를 생각하여 내가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일들은 유연성 있게 조절하여 쓸데없는데 사용하는 시간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야 할 것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은 여전히 힘들었다.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등 핸드폰의 여러 기능이 끊임없이 나에게 놀자고 유혹했다. 그래서 특강에서 알려준 공부 시간 측정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다.

측정하는 동안 핸드폰을 사용하면 측정이 자동으로 취소되었다.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보게 되니 측정 시간을 늘리고 싶은 욕심이 생겨 핸드폰을 자연스럽게 안 만지게 되었다.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예전에는 제출 날까지 미루며 해왔던 것들을 미리미리 완수할 수 있게 되었고 과제나 수업이 적은 날은 오히려 시간이 남아 편하게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었다. 내가 변하였다고 느꼈던 대표적인 사례는 과제에서 나타났다. 매주 1편의 글쓰기 과제가 늘 주어졌는데 그동안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제출 전날 급하게 써서 제출하곤 했었다. 그러다 보니 교수님의 피드백은 늘 부족하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TODOlist와 공부 시간 측정을 시작하고 나서 계획에 맞춰서 나눠서 하다 보니 과제를 준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았고 자료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그 후 교수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서 아주 많은 칭찬을 해주셨다. 칭찬의 내용은 초반 과제에 비해 엄청난 발전을 했다는 것이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스스로 부듯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내 주변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못 했는데 왜 벌써 밤이냐”,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라는 말을 달고 사는 친구들이 많다. 이런 친구들에게 시간 관리법 특강을 매우 추천해주고 싶다. 막역하게 시간 관리 중요하다는 내용이 아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선택할 수 있는지 또한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은지 강사님께서 자신의 예시를 보여주시면 설명해주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다. 또한, 유용한 앱 역시 추천해주시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이 귀찮은 학생들도 문제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다. 이제야 이렇게 계획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이 후회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라도 도망간 나의 시간을 잡아 올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다. 아직 모든 사라진 모든 시간을 찾아온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삶을 반복한다면 24시간을 30시간처럼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



2020년도 2학기
CTL 프로그램 후기 공모전



KUS-TUDY? K'US'TUDY!

약학과 사혜리

KUS-STUDY, K'US'TUDY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KUS-TUDY(쿠스터디) 프로그램의 후기를 작성합니다.

혼자가 아닌, 하나의 목표로 모인 **여러 학생('US')**이 서로 협력하여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주체적, 적극적인 학습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K'US'TUDY**라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KUS-TUDY 소개 및 활동방법

목적 : KUS-TUDY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원프로그램으로, 학생 간의 자발적인 학습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문제해결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 저희 팀은 2월에 있을 국가고시에 팀원 전원 합격을 목표로 KUS-TUDY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학습 일정을 철저히 계획하여 그룹 스터디를 추진력 있게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모집 영역 : 학습 분야에 따라 '전공 및 교양 교과목 학습', 'K-MOOC 연계 학습', '외국어 주제 학습'의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스터디 팀을 모집했습니다.

→ 저희 팀의 경우 '전공 및 교양 교과목 학습' 영역에 지원하였습니다.

활동 기간 : 2020.09.28 - 12.06의 기간 동안(총 8주 차 이상) 진행하게 됩니다.

→ 저희 스터디는 2월 말에 있을 국가고시 준비를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활동 기간 종료 이후에도 KUS-STUDY의 제안 방식을 그대로 지키며 매주 스터디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활동 방법 : KUS-TUDY는 코로나 안전수칙에 따라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한 비대면 활동을 권장하고 있으며, 비대면 활동이 불가피한 상황에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대면활동을 시행하도록 권고합니다.

→ 저희 스터디는 매주 과제 확인과 퀴즈를 진행하고 있어 주로 강의실에서 대면 스터디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 지원센터로부터 마스크, 손소독겔, 알콜 스프레이를 제공받았으며, 학교의 코로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시험 기간이나, 대면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는 ZOOM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비대면 스터디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12시(2시간)로 스터디 날짜를 고정하여 활동 의무사항을 지켰습니다. 5분 단위로 지각비를 걷어 각 조원들로 하여금 스터디 활동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고정된 요일 및 시간의 스터디 활동으로, 스터디원들은 각자 매주 스터디 목표량에 맞는 개인의 일정을 계획할 수 있었으며, 공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국가고시의 15개 과목을 활동종료기간까지 최소 1cycle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학습해야 하는 양이 많거나 시험 비중이 큰 특정 과목들은 매주 꾸준히 공부했고, 상대적으로 양이 적은 과목들은 1-2주 동안의 학습으로 계획했습니다.

- 매주 공부 : 생약학/한약제제학, 약물치료학, 합성학/의학화학
- 1~2주 공부 : 생화학, 물리약학, 미생물학, 약물학, 예방약학, 약사법, 약제학/제제학, 분석학, 제조관리/품질관리학, 사회약학, 약국실무/조제/복약지도, 병태생리학

→ 매주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 조원들의 학습상황을 점검했으며, 공부한 내용 중 생김 질문사항과 공유하면 좋을 정보를 조원들과 주고받아 지난주 학습을 보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퀴즈는 조원들이 순서를 정해 각자 돌아가며 문제를 만들어오는 방식으로 하여, 공평하게 진행했습니다. 퀴즈에서 정답률이 40% 이하일 경우, 벌금을 걷기로 하여, 개개인이 성실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자극했습니다.

→ 스터디 학습계획표 예시:

		09월 17일	09월 24일	10월 08일
생명약학 (60/100)	생화학	총합 생화학 1) 기본명 ~ 2명역 구연산회로까지 학습 2) 핵산질 대량과정 알기(반간 test)	1) 총합 생화학 알까지 정복 2) 핵산질 회로 4개 Uronate, Anaerobic glycolysis, PPP, TCA 알기	핵산질 1page 전체 test
	미생물학			주교재 외간명 읽고, 정리본 요약, 찾아배치다 위주로 알기(해오기)
	약물학			
	예방약학			
	병태생리학			
산인약학 (54/90)	물리약학			
	합성/의학화학	총합 유기합성 1장 ~ 6장 구조, 이름 알기(best)	총합 유기합성 1) 7 ~ 12 장 (구조 - 이름 알기) 2) 1 ~ 6장 (구조 - 이름 - 반응 알기)	총합 유기합성 1) 13장 ~ 24장 (구조 - 이름 알기) 2) 7, 12장 반응 추가 알기
	분석학			
	약제/제제학			
	생약/한약제제학	평준골씨 - 근로 전체 생약명, 약명, 20(test) / 성분, 약리 응용 및 유사 공부	평준골씨 근공류, 중차류 생약명, 약명, 과 알기 / 성분, 약리 응용론 선택	평준골씨 고삼류, 전초류, 입류, 미류, 복류 생약명, 약명, 과 알기
임상, 실무 약학 (84/140)	약물치료학	EWHA 심월관 1장 ~ 4장 / 어릴개 test 하면 총괄지 생각 하기	EWHA 심월관 5장 ~ 8장 형질약지 반간 test 5-8장 준비	EWHA 심월관 9장 ~ 33장
	약국실무			
	제조관리/품질관리			
약사법 (12/20)	사회약학			
	약사법	수업 열심미	수업 열심미	수업 열심미

→ 활동 인증사진 예시:



→ 스터디 퀴즈 예시:

[생약학]

1. 신미성분 acid amide를 함유한 것은? (답 3개)

- ① 고추
- ② 산수유
- ③ 산초
- ④ 당약
- ⑤ 후추

2. Polyketide-shikimate 경로를 통해 합성된 flavonolignan성분을 가지며 간세포보호작용을 하는 국화과의 생약은?

- ① 마리아영경귀
- ② 오미자
- ③ 인진초
- ④ 애엽
- ⑤ 연교

3. 마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일월초의 전초이다.

[의약화학합성학]

1. 다음 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ACE inhibitor로 고혈압 및 심부전 치료에 적용하는 Ramipril이다.
- ② Prodrug로 -COOH가 -OH로 대사되어 활성을 갖는다.
- ③ 3개의 chiral center를 가지며, 주 생성물은 (R, R, R)형이다.
- ④ ethylester 대신에 sulfhydryl나 phosphinic acid로 대체해도 Zn²⁺와 결합할 수 있다.
- ⑤ Captopril은 이 약물의 흔한 부작용인 식욕저하, 피부발진을 감소시킨 약물이다.

2. 다음 약물의 SAR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참여혜택 : 활동 종료 후 활동 결과를 평가하여 A-E등급으로 구분하여 장학금을 3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차등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KUS-TUDY 프로그램의 장학금은 스터디원들로 하여금 활동에 적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장학금은 스터디 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매 및 자료 출력 및 스터디 후 식사 비용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무사항 : 다만, 프로그램에 몇 가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1. 스터디 활동은 주 1회 2시간, 최소 8회 총 16시간 이상으로 진행을 의무로 합니다.
2. 활동 후에는 주마다 주간보고서를 활동사진을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하고, 학기 말에는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블랙보드에서 KUS-TUDY OT영상을 수강해야 하며,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모든 조원이 지키게 되면, 장학금지원대상 후보로 선정됩니다. 스터디활동 평가는 주간보고서와 최종결과보고서의 충실성 및 조원들의 온오프라인 활동의 성실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 스터디 조장이 그룹 채팅방을 통해 위 의무사항을 안내했으며, 수행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한편, 블랙보드의 'OT 영상' 및 '구글 MEET 활동 효과적인 팀플 방법' 영상 수강완료가 인정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추후 이점은 출석현황 등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학우들에게 추천합니다!

- 특정 기간 동안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려운 학생
- 의지력, 추진력 부족으로 혼자 공부하는 것이 어려워 강제성 있는 학습법이 필요한 학생
- 여러 사람과 함께 공부할 때 능률이 좋고, 협력하는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
- 다른 학생들에게 나만의 학습법을 공유하고 싶고, 다른 학생들의 좋은 학습법과 학습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 학생
- 일반 스터디와 다르게 공부하면서 장학금 혜택도 함께 지원받고 싶은 학생
- 스터디를 통해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학습법과 학업 증진의 결과를 얻고 싶은 학생
- 졸업 후에도 기억남을 만한 동기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은 학생

추천 이유 및 소감

- 혼자 공부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한 부담 감소 및 학습 의지 강화
→ 평소 혼자 공부하는 것이 힘든 저에게 KUS-TUDY를 통해 조원들과 함께 공부함으로써 공부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총 15개의 국가고시 과목들에 대한 공부를 혼자서 계획하고 장기간동안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꾸준히 지켜나가려 했다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 조원들의 도움으로 부족한 과목의 학습법 개선
→ 전공과목 중에 특히 제가 제일 부족했던 과목은 임상약학(약물치료학)이었습니다. 스터디 전에는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어떤 점이 학습포인트인지 파악하지 못했으나, 이번 스터디를 통해 조원들의 도움으로 학습 방법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역학, 병인, 약물 기전에 주로 집중하며, 학습에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분배했으나, 스터디 이후에는 약물치료학

과목의 경우에는 앞선 요소들보다는 환자의 case를 적절한 약물을 선택할 수 있는 약무의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목의 경우에는 학습량도 많고 시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매일 공부했으며, 매주 스터디를 통해 학습 인지 정도를 확인하며 보충했습니다.

- 스터디 규칙의 강제성을 통한 책임감 강화 및 학습 달성률 상승

→ 활동 기간 동안 매주 1회 2시간 이상의 활동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주간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KUS-TUDY 스터디 방식은 이전의 다른 스터디들과 차별적으로 더욱 효율적인 학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스터디는 주간보고서에 스터디 시간에 진행했던 퀴즈 자료를 첨부했는데, 퀴즈는 매주 조원들이 순서를 정해 만들도록 했습니다. 퀴즈를 진행하여 정답률 40%미만시 벌금을 걷는 방식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었으며, 문제를 만들게 되었을 경우, 조원들을 위한 보다 양질의 문제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스스로의 공부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학업성적도 향상시키고 장학금 혜택도 지원받는 일석이조!

→ KUS-TUDY의 장학금 지원 역시 학습에 대한 열정을 더 불타오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조원 모두 프로그램 종료 후 있을 평가에서 최선의 성적을 거두기 위해 활동에 프로그램 의무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조원들과의 학습 자료 및 방법 공유

→ 국가고시 준비와 중간고사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 생각했는데, 조원들과의 공부를 통해 중간고사 과목들에 대한 학습법이나 학습 자료와 같은 정보를 얻어, 우려와 다르게 효율적으로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각 과목에 있어 성적이 좋은 조원들이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공유하여, 제가 부족한 과목들의 성적이 좋지 않았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학습법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 협력 및 소통 능력 향상

→ 이번 스터디를 통해 단순히 학습 성적을 높일 수 있던 것뿐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은 수용하고, 배우며, 저의 강점인 부분은 조원들에게 공유하고, 도와주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여러 사람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기들과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 앞으로의 목표에 대한 도전 의식 및 자신감 상승

→ KUS-TUDY 종료 이후에도 꾸준히 스터디를 이어나가, 이후 2월에 있을 국가고시에서 '조원 전원 합격'이라는 최고의 성적을 받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2학기

CTL 프로그램 후기 공모전

장려상

- **에블팟빵(A+받는 선배가 들려주는 팟캐스트)**
융합경영학부 이시현
- **4점대를 넘어**
사회학과 장영훈
-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영어공부**
약학과 류민재
- **다같이 앞으로**
융합경영학부 디지털경영전공 김보영
- **새로운 시각의 학습법을 갖다.**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과 박호철





2020년도 2학기
CTL 프로그램 후기 공모전



에블팟빵 (A+받는 선배가 들려주는 팟캐스트)

융합경영학부
이시현

CTL 프로그램 소개 및 특징

2020-2학기 에블팟빵(A+받는 선배가 들려주는 팟캐스트)은 학업우수생과 대외활동 우수생의 우수사례를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재학생이 학습역량 증진 기회 제고는 물론, 학업 우수학생의 전공 및 교양 과목 학습 방법 및 나만의 학습전략, 학과 적응 노하우, 대외활동 합격 노하우, 대외활동 후기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제1과 주제2로 나뉘는데 주제1이 “A+받는 선배가 들려주는 팟캐스트”이고 주제2가 “대외활동 만렙 선배가 알려주는 팟캐스트”이다. 주제1을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지독하게 필기하기”, “꿈을 찾는 대학생”, “관심과 성적”, “공부량은 오지, 효율은 5G”, “아이패드를 활용한 공부 방법”, “스라벨(스터디&라이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비교하여 주제2는 학습방법보다는 대외활동 합격 노하우나 대외활동 후기 등을 알려준다. 이 주제에 포함되어 있는 강의로는 “대외활동 압축팁”, “RE:ZERO부터 시작하는 대외활동”, “대외활동 탐구생활”, “Branding Yourself” 등이 있다.

총 10개의 특강 중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강의를 시청하면 된다. 한 개의 강의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았다.

CTL 프로그램의 유익한 점

대외활동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아래 제시한 내용은 이 특강을 들으면서 대외활동에 대해 배운 내용이다.

대외활동의 종류

1. 봉사활동

- 재능기부, 교육봉사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
- 자신이 가려는 기업이 우대할 경우에 필수적
- 그 외에는 최근 중요도 떨어짐
- 일회성 봉사는 무의미 (반복되면 모든 게 유의미)
- 교내 봉사랑 교외 봉사는 엄청난 차이 (교내봉사 < 교외봉사)

2. 기자단

- 실제 기자, 방송 쪽 진로에 큰 도움
- 다른 활동을 위한 발판으로 많이 사용
- 최근 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음
- 대학생이 아닌 전국민 블로거 대상이 많음

3. 공모전

- 본선만 가도 도움이 많이 된다
- 쉽고 편한 공모전이 많다
- 의미가 있는 것을 찾아서 해라
- 공모전 사이트, 동아리 등 많다
- 상금이 큰 경우가 많다

4. 서포터즈

- 서포터즈, 홍보대사, 마케터 등 다양한 형태
- 가장 핫하고 많아지는 추세
- 다양한 디자인 활용 능력이 중요
- 기회가 엄청 많음
-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

대외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개인 채널을 개설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대외활동 서류에는 대부분 운영 중인 채널을 넣어야 한다. 그러니 팔로워 수도 늘려 놓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특히 홍보 및 마케팅 분야에서 많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온갖 활동에서 사진을 많이 찍는 것이 좋다. 남는 것은 사진뿐이라는 말이 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사진의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언급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려면 사진이 많아야 한다. 세 번째로 디자인 툴 연습하는 것 또한 많은 도움이 된다. 어도비 툴이 부담스럽다면 MS office의 PPT나 심지어 망고보드를 활용해도 된다. 넷째, 주변 선배나 친구들, 교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다. 주변에서 경력이 많은 선배를 팀원으로 함께 한다면 더욱 좋겠지만 단순한 피드백을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경험이 곧 능력이다. 더 나아가 학교 내부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과 상담이 존재한다. 이를 활용하여 많이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무엇보다도 겁먹지 말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망해서, 친하지 않아서, 떨어질 것 같아서, 나대는 것 같아 보여서와 같이 끝도 없는 변명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절대 시작할 수 없을 것이다.

추천 이유

대학생들에게 “대외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라고 물어본다면 53.1%는 “있다”고 대답한다. 이때, 2명 중 1명은 참여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다시 1회 참여 학생과 2회 이상 참여한 학생으로 나뉘볼 수 있다. 1회 참여한 학생이 대학생 전체 중 25.3%에 해당한 것이다. 김도훈 발표자분께서 말씀하시길 이번 발표에 제시한 공모전들은 자신이 참가한 공모전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한다. 입상하지 못하고 예선부터 탈락한 공모전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한다. 이처럼 대외활동의 경우 참여를 많이 해볼수록 입상할 기회도 많아지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는 것이다.

대외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경험을 통해 훗날 취업에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실무경험은 학교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인맥을 넓힐 수 있다. 학교 밖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보면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들과 함께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생기면서 인맥을 넓힐 수 있게 된다. 셋째,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말이 많아진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는 내 참여 동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자기소개서 항목 중 내가 쓸 수 없었던 질문을 대외활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자신의 진로를 더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의 대외활동을 경험해보면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을 알 수 있게 된다. 학교 공부로는 이를 절대 알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진로를 명확히 알고 있는 학생은 정말 흔치 않다. 너무나도 많은 직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진로를 명확히 알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특정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방송 쪽에서 일하고 싶다면 PD, 감독, 캐스팅 디렉터, 배우, 기자 등 정말 다양한 직업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할 수 없으며 방송계에서도 맞는 분야가 있고 전혀 맞지 않는 분야도 존재할 것이다. 방송과 관련된 대외활동을 하다 보면 이를 알 수 있게 된다.

본인에게 끼친 영향력

자기소개서 항목 중 “여러분의 대학생활 중 가장 뛰어난 성과를 이뤄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① 그 일을 시작한 계기, ② 노력한 과정과 결과, ③ 뛰어난 성과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나 “열정과 책임감으로 본인의 한계를 극복하여 최고의 성과를 낸 경험에 대해 ① 과정과 결과, ② 느낀 점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라는 항목이 등장한다.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 이런 항목에 작성할 경험은 정말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외활동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어 정말 막막한 질문들이었다. 이런 질문을 몇 년 후면 작성하게 될 나에게 대외활동이 이를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대외활동을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자기소개서에 나의 성격이나 성장 과정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대외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먼저, 스펙이 된다. 직접적으로 쓰라고 하는 공간은 당연하고, 일반문항을 작성할 때에도 다양한 경험은 필수이다. 둘째, 인맥이 생긴다. 나와 비슷한 꿈을 준비하고, 나만큼 이상 노력 중인 사람들을 돈 받으면서 만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라고 생각한다. 셋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사 제품은 물론, 미출시 신상품까지 선 체험해볼 수 있다. 단순히 활동비를 주는 곳도 많다.

이렇게 대외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정말 많은데 어떤 대외활동을 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했다. 임광섭 발표자본에 따르면 각종 혜택 또한 대외활동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한다. 이는 속물이어서 아니라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해주셨다. 더 나아가 입사 시 우대사랑이 되는지를 고려해봐야 한다. 가고 싶은 기업이 있을 것이다. 이때, 수상자 서류지원 혜택은 당연하고, 꼭 수상을 못 한다 해도, 그냥 활동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기업 면접 시 유리해질 수 있다. 한 학생은 면접관이 활동을 통해 전부 아는 분이였으며 결국 최종합격했다고 하였다.

또한 쉽고 편한 것부터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네이밍 공모전같이 단순한 것들도 많다. 귀찮음을 감수할수록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다고 한다. 물론 네이밍 공모전만 참가하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아무 경험이 없는 나에게 네이밍 공모전은 시작으로 적합한 대외활동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후 어렵고 처음 보는 대외활동을 도전하는 것이 좋다. 국내 최대 공모전에 참가하는 것보다 작은 공모전이지만 수상하는 것이 좋다. 지역 한정 공모전이나 전 국민 대상인데 ‘대학생’을 따로 상 주는 공전 등 내가 생각해도 안 떠오르는 생소한 주제로 하는 공모전들이 많다. 중요한 것은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공모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수상을 했다는 것이다.

저학년인 나에게 교육을 해주는 대외활동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니인턴은 인턴은 아니지만, 교육이 동반된 공모전이다. 마케팅스쿨은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는 방식이며 쉽다.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외활동은 많다.

소감

특강을 마친 후 나의 향후 계획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대외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개인 채널을 개설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대외활동 서류에는 대부분 운영 중인 채널을 넣어야 한다. 그러니 팔로워 수도 늘려 놓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특히 홍보 및 마케팅 분야에서 많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온갖 활동에서 사진을 많이 찍는 것이 좋다. 남는 것은 사진뿐이라는 말이 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사진의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언급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려면 사진이 많아야 한다. 세 번째로 디자인 툴 연습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 어도비 툴이 부담스럽다면 MS office의 PPT나 심지어 망고보드를 활용해도 된다. 넷째, 주변 선배나 친구들, 교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다. 주변에서 경력이 많은 선배를 팀원으로 함께 한다면 더욱 좋겠지만 단순한 피드백을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경험이 곧 능력이다. 더 나아가 학교 내부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과 상담이 존재한다. 이를 활용하여 많이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무엇보다도 겁먹지 말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망해서, 친하지 않아서, 떨어질 것 같아서, 나대는 것 같아 보여서와 같이 끝도 없는 변명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절대 시작할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나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고 핑계를 댈 것일 수 있다. 지금이라도 대외활동을 하나씩 해보면서 많은 경험을 쌓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봉사활동을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김도훈 발표자분께서 해주신 “실패하세요.”라는 말이 정말 많이 와닿았다. 생각해보면 나는 실패를 하면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실패는 안 좋은 것이 아니다. 실패해야 발전이 있는 것이고 실패를 해봐야 성공이 소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 많이 실패하고 그만큼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0년도 2학기
CTL 프로그램 후기 공모전



4점대를 넘어

사회학과
장영훈

학점 4점

학점 4점? 2014년 학교를 입학하기 전, 나의 어렵풋한 꿈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2014년 1학과 2학기 1년을 지내면서, 학점 4점대라는 점수는 나에게 다가갈 수 없는 높은 벽이라 느꼈고, 그 후 더 이상 나는 학점 4점대의 꿈은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와중, 2018년에 군 복학을 하여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많은 학습프로그램 및 특강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습능력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다. 실제로 프로그램들은 나의 성적향상과 학습능력을 얻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렇기에 나는 꾸준히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여러 프로그램을 관심을 가졌고 프로그램들은 통해 성적은 물론이고, 스스로에게 변화된 무엇인가를 얻자고 자신과 약속하였다. 그래서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프로그램과 함께 자신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 대학 성적표에 학점 4점대라는 성적을 받기 위한 나만의 장기프로젝트를 계획하였다. 장기프로젝트의 첫 시작인 2018년 1학기가 끝난 후 나의 성적표에는 4점대 이상의 학점이 찍혀져 있었고 난생처음 받는 4점대라 어리둥절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었다. 이후, 나는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적인 노력과 개인적 발전, 더 나아가 미래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던 것 같다. 이렇게 좋았던 경험은 나에게 있어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만들었고 더 많은 학습 노하우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2018년 2학기에도 어김없이 글쓰기 특강, 학습법 특강, 말하기 특강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다.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좋은 강의와 좋은 정보를 주었고 나의 성적을 더욱 향상시켰다. 이는 나의 여러 가지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저 학습법이나 공부하는 노하우뿐만 아니라 직무능력, 대외활동, 인생에 대한 배움과 같은 정보를 프로그램을 통해 배웠고 책상

위의 공부에서 벗어나 활동적인 측면, 말로 표현 못 하는 인생의 다른 측면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다. 이를 통해서 2018년도 2학기 성적도 역시 4점대로 받을 수 있었고 대외적인 활동도 활발하게 하여 대학 생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경험과 이유로 나와 같이 성적 향상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취업에 관련한 지식을 얻고 싶어 하는 학우들에게 학습법 특강을 비롯한 많은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프로그램들을 적극 추천을 하고 싶다.

꾸준한 노력, 그리고 조력

2020년에 학교에 복학하여 휴학으로 인해 공백기로 공부에 대한 어색함과 원격교육이라는 시스템, 전공, 대학 공부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학점 4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루기 위해 많은 도움이 필요했다. 자연스럽게 2018년의 경험을 떠올리며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찾았고 학습법 특강이라는 프로그램을 듣게 되었다. 이번 2020년 학습법 특강은 나의 장기프로젝트인 학점 4점을 달성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는 조력자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든다.

이번 학기는 내가 원하는 최종 학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큰 기점이었지만 첫 온라인 수업이라는 변수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과 온라인 팀플활동, 온라인 학습방법 등 남들보다 부족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도움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했었다. 물론, 이러한 도움을 다양한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프로그램들이 주었지만 이번 학기 중 가장 도움이 되고 많은 꿀팁을 얻은 프로그램은 학습법 특강이라고 말하고 싶다.

먼저 학습법 특강 1차인 “시간관리법”은 온라인강의로 인해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알려주는 Time Maker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특강이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컨택트사회에서 언택트로의 변화로 인해 사람들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마치 매일 주말과 같은 일상이 이어지고 늦은 수면으로 몸은 늘 피곤한 하루가 이어지고 있어 혼자 고립되어 정체되어 있는 느낌과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 일상의 큰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 이러한 위기관리능력을 UP시키고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시간 관리법인 것이다. 시간관리법은 ‘Small Step’부터 시작이 된다. 먼저 크게 세워야 할 목표, 만들어야 할 습관, 버려야 할 습관으로 3가지의 콘셉트를 통해 시간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이번 특강을 통해 만다라트라는 목표 설정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데드라인 설정, 우선순위 만들기, 방해받지 않을 코어타임, 동기부여장치 4가지 습관을 만들기 위해 캘린더, 매트릭스 활용법, 스터디 활용법을 배웠다. 또한 가장 중요한 바쁘다는 말,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 자꾸 미루기,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는 일을 버려야 하는 습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현재 학점을 위해 대학공부를 하는 데 데드라인 설정이나 캘린더 활용법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대학 공부뿐만 아니라 취업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강사님이 추천해주신 구글 타이머에 관한 습관을 통해 현재 아주

유용하게 공부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돈보다도 중요한 것이 시간”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고 시간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을 알게 된 뜻깊은 강의였던 것 같다.

학습법 특강 2차인 “메모·노트 필기법”은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메모법, 노트법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특강이다. 메모/노트는 떠다니는 아이디어를 붙잡고 구체화하여 또 다른 창조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메모/노트법이다. 특강을 통해 디지털의 노트법과 아날로그의 노트법 2가지 방법을 배웠다. 먼저 디지털 노트법에서 구글 keep이라는 프로그램을 배웠는데 엄청나게 편리하고 지금도 유용하게 쓰고 있다. Keep은 주로 메모의 기능을 기록할 수 있고 매일 해야 할 일을 적어 활용할 수 있다. 현재 Keep을 통해 전반적인 스케줄이나 기억해야 할 것을 기록하여 유용하게 쓰고 있는 중이다. 또한 이번 학기 전공 수업을 들을 때 이번 특강을 통해 알게 된 코넬 노트법을 활용하며 공부를 했다. 이는 수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수업 후 복습할 때 필기 된 것을 요약하여 암기하거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마지막으로 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간절히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현재 취업 공부를 하는 정말 나에게 와 닿는 이야기였다.

학습법 특강 3차인 “온라인 팀플 방법”은 크롬 활용법과 구글 Meet, 구글 캘린더에 관한 온라인 공부법을 특강하였다. 이번 특강은 학습법 특강 2차에서 알려준 Keep과 캘린더의 활용법뿐만 아니라 다른 구글 확장 프로그램을 알려주었다.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Zoom이라는 온라인 회의 프로그램만 사용하였지만 아직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몰라서 그저 수동적인 태도로 이용했다. 하지만 이번 특강을 통해 간편하게 크롬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글 Meet을 알게 되었고 구글 Meet이라는 프로그램의 기능과 장점에 대해 알게 되었다. 디지털 협업 툴에 대한 정보와 온라인 학습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는 구글 프로그램을 특강을 통해 배웠던 것 같다.

학습법 특강 4차인 “구글 지스윗(G-Suite) 활용 교육”은 구글 드라이브, 구글 DOCS와 구글 킵에 대한 특강이었다. 먼저 구글 프로그램의 공유기능, 구글 Docs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기능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학기 팀플 자료조사와 PPT 작성 등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여 따로 파일을 주고받을 귀찮음 없이 팀플을 하여 많이 편리하였다. 또한 구글 Docs는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들과 호환이 가능하여 손쉽게 발표 준비를 할 수 있었고, 이번 특강덕분에 정말 편리하게 팀플을 하고 전공중간발표까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특강을 듣고 실제로 구글 드라이브로 협업하니 예전과는 발전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작성을 하고 있어도 상대방도 실시간으로 작성을 하여 글로 실시간 공유할 수 있어서 일의 효율성 높아졌고 시간절약이 말도 안 되게 절약이 되어 상당히 놀라웠다. 이번 특강이 실질적으로 학업에 도움이 되어 더욱 뜻깊은 강의였다고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학습법 특강 5차인 “인문·사회계열 리포트 쓰기”는 나의 목표인 학점 4점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실질적인 특강이었다고 생각한다. 먼저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특강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 특강을 통해 A+ 리포트의 전문적인 형식을 얻어간 점이 가장 좋았다. 장/절/항의 구분 방식을 알게 되어 깔끔한 리포트를 만들 수 있었고 참고문헌에 대한 작성방법,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평소 늘 퇴고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퇴고에 대한 방법과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체크하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셔서 리포트를 쓰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알려주신 글쓰기 클리닉을 통해 글쓰기 2의 리포트에 대한 첨삭을 받았고 매번 담당 강사님께서 친절히 글쓰기 클리닉을 해주시고 나의 글에 대한 칭찬을 해주실 때마다 나를 부듯한 기분을 받았다. 매주 클리닉을 받으니까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글쓰기에 대한 실력도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이 든다.

이번 학습법 특강을 통해 학습능력과 온택트 시대에 걸맞은 온라인 공부법을 배우게 되었고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조력자가 되었다. 그저 꾸준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이나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은 분명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 꾸준한 노력을 하는 사람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다면 분명 좋은 성적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효율적인 공부법을 모르고 그저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나에게 학습법 특강은 훌륭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특강을 벅 삼아 나의 목표를 향해 꾸준하고 스마트하게 노력할 것이다.

이와 같이 조력자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해 주는 학습법 특강과 여러 가지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프로그램들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교 학우들이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우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여 공부 노하우, 학습법, 대외활동의 팁, PPT 활용법, 온라인 강의에 관한 프로그램 활용법 등을 배우며 대학생으로서 학습능력을 키워 성적 향상을 이루고 원하는 취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또한 이러한 학습법 특강, 여러 가지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습능력을 키우게 되면 4점대를 넘어 좋은 성적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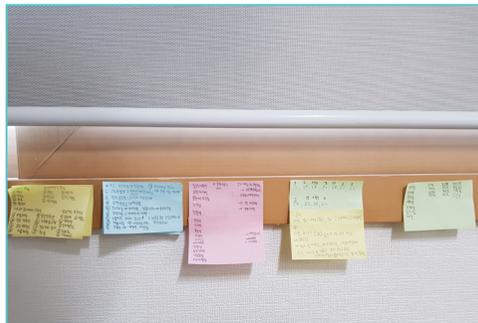
또 다른 목표

2020년도 2학기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뀌었고 그것에 적응하는 데 큰 힘이 들었던 것 같다. 이러한 시기를 통해 학업이라는 부분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아직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번 학습법 특강이 나의 목표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확실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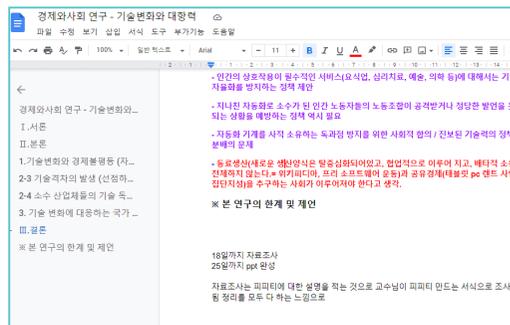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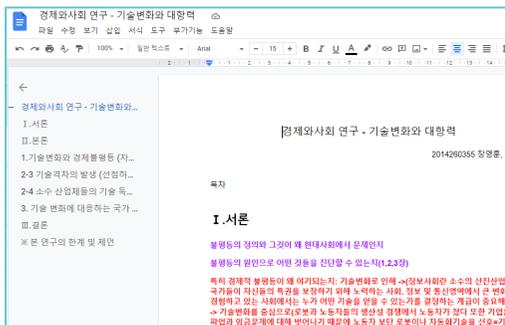
이번 2020년도 2학기가 지나고 학점이라는 목표가 아닌 취업이라는 또 다른 목표로 향해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2학기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공부뿐만 아니라 취업 공부를 하는 데 있어도 필기법이나 시간관리법 등 여러 가지 학업적인 면에서 많은 지식을 얻게 해준 특강이었다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또 다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번에 습득한 학습법들을 확실하게 활용을 하여 나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특강을 통해 향후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코로나 시대에서 온라인 학습법을 배웠다는 것 자체가 큰 메리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비단 이번 경험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의 경험들이 나의 대학 목표인 4점대를 넘어 더 크고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발판이 되어 또 다른 목표를 이루게 만들어 주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과거 2018년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프로그램들은 나에게 4점대라는 성적을 선물했고 현재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프로그램들은 나에게 또다시 4점대의 기적을 선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학 목표인 4점대를 넘어, 성공적인 취업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다른 학우들에게 학습법 특강과 글쓰기 클리닉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위의 2가지의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학업에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글쓰기 클리닉이나 학습법 특강은 몇 번만 참여해도 빠르게 성적 및 지식이 향상되는 느낌을 바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글쓰기 클리닉의 경우, 성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리포트의 부족한 부분과 문법적 오류를 첨삭해 주셔서 리포트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프로그램도 추천을 하지만 글쓰기 클리닉과 학습법 특강은 특히 무조건 강력 추천한다고 말하고 싶다. 이러한 이유로 내가 경험을 했듯이, 다른 학우들도 4점대를 넘어 좋은 성적표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끝으로 고생하신 학습법 특강 강사분들과 교수학습지원센터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다.



[학습법 특강 2차에서 공부한 메모의 습관화]



[학습법 특강 4차에서 공부한 구글 드라이브 공유로 온라인 협업]



2020년도 2학기
CTL 프로그램 후기 공모전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영어공부

약학과 류민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사람들은 최신의 정보를 습득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인터넷의 활용을 통한 개인의 발전이 중요해졌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 내가 아는 것을 남에게 전달하고 남에게 배우는 일은 자신의 역량을 기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유망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산업은 바로 제약산업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백신 개발에 수많은 제약회사가 뛰어들었고, 임상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주식이 들쭉날쭉하며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능력과 잠재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외국어에 능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외국어 능통자를 선호하며, 영어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능이나 토익의 경우, 독해와 청해를 기반으로 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이런 공부를 지속해오던 저에게 회화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 하는 일이지만 작년 여름, 저는 스페인으로 혼자 해외여행을 떠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만났지만 항상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영어였습니다. 스페인어라는 자국어가 있는 나라지만, 대화를 할 때는 영어가 필요한 순간이 많았고 내가 원하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지 못할 때, 그 동안 제가 지속해오던 영어 공부에 대한 회의를 느껴졌습니다. 과연 외국인을 만나서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이 맞는 영어공부인지, 내가 겪고 본 것에 대해 소통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에 다녀와서 결심했습니다. 실제로 내가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는 투자는 영어회화이고, 더 나아가 작문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점점 극심해져 회화 학원을 다니는 것은 실질적으로 위험한 일이었고 대면모임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서서히 영어 회화 실력을 높여야 한다는 처음의 결심이 흐릿해져 갈 때, CTL 프로그램인 외국어 스터디 그룹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약학과는 편입생으로 구성되는 소학과이다 보니 다양한 국가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닌 동기를 섭외하여 외국어 스터디그룹을 결성하게 되었고 제가 우려하던 대면 모임이 아닌, 비대면 모임으로 영어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Speaking의 경우 크게 5가지 파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질문을 가져와서 이것에 대해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질문은 매주 바뀌며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해오거나 그 자리에서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모임이 기억납니다. 멘토로 영어에 익숙한 동기는 발음도 좋고 질문에 대한 답을 너무 매끄럽게 잘했지만, 나머지 스터디원들은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더듬더듬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자기소개를 영어로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는 후에 제가 이번 겨울에 지원한 인턴 면접에서 실제로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Tongue Twister를 사용하여 한국식 영어 발음이 아닌 정확한 원어민의 알파벳 발음을 익혔습니다. 'R'과 'L' 발음을 포함하여 헛갈리는 발음을 주로 학습을 하였고 실제로 저는 Run이라는 단어를 Lun으로 발음하던 학생이었으나, 스터디 막판으로 갈수록 그 구분이 확실해지고 발음이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Idioms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상생활에 사자성어나 속담과 같이 자주 쓰는 표현들이 대화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며 대화의 문맥을 파악할 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어에는 어떤 속어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뜻을 공부하여 직접 그 속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배운 Idiom들은 유튜브의 "액팅 잉글리쉬"에 나와 있는 뽀&FUN한 표현 영상을 참고하여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또한, 줌 온라인 스터디를 진행하기 전에 꾸준히 서로 영상을 보고 있는지 스터디원들끼리 체크해보고 표현을 암기하는 과제를 내주며 협동하여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Idiom에 대한 공부가 도움이 된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저는 11월 22일에 토익을 신청해서 보았는데 이날 Listening 파트에서 관용적 표현이 나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앞서 배운 Idioms에 대한 질문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배운 Idioms을 스터디원들 스스로 직접 말하고, 멘토 동기가 이를 교정해주면서 발음에 대한 교정과 함께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영어로 자신의 경험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머릿속에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영어로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지만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며 자주 쓰는 표현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Daily Grammar입니다. 회화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 실수하기 쉬운 Grammar을 준비해서 날마다 6~7개씩 학습하고 고쳐나갔습니다. 학습한 Grammar에 대해 서로 특방에서 녹음파일을 공유하며 체크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멘토 동기가 해주었습니다.

Speaking에 대한 5가지 Way의 학습법뿐만 아니라 제 전반적인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준 것은 바로 어휘력이었습니다. 토익 공부를 위해 사놓았던 단어장을 다시 펼치고 혼자서는 암기하는지에 대한 체크도 제대로 안 되었지만 스터디원들과 범위를 정해 한 챕터씩 테스트를 보고 암기해가는 과정은 보람찼습니다. 매주 100개씩 단어를 외워와 간단한 Test을 진행하고 뿐만 아니라 토익 문제집을 풀면서 모르는 단어들을 따로 단어장에 정리하여 함께 외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받쳐주니 토익에 자주 나오는 단어와 속어에 자신감이 생겨 토익을 풀 때 Reading 파트에서 읽는 속도가 빨라지며 그 정확도 역시 올라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면서 가장 좋아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약대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보았던 드라마인 “Breaking Bad”을 시청하며 실생활에 자주 쓰이는 표현을 적고 이를 워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약에 대한 드라마이기도 하여 Breaking Bad라는 드라마가 전공지식에 대한 확장 효과뿐만 아니라 영어공부를 같이 진행할 수 있어 효과적이었으며 영어공부가 한층 더 흥미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의 대본을 구해 함께 드라마를 시청하며 장면마다 여러 번 되감기해서 따라 읽어보고 실제로 배역을 정하여 해당 장면을 똑같이 따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제 배우들이 말하는 억양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어 그 상황에 더욱 몰입이 되며 스터디원들의 모습을 보며 웃기도 하면서 즐겁게 영어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8회차에 걸친 스터디 모임은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영어 실력 향상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공부가 그저 지루한 외국어로 느껴졌던 저에게 기존의 주입식 공부가 아닌, 색다른 방법으로 영어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영어 실력 향상에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꾸준히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가진, 공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멘토였던 동기는 저의 한국식 발음을 하나하나 인내심을 가지고 짚어주며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향상된 영어 발음으로 최근, 토익 스피킹에서 Level 6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전의 저로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 이는 인턴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저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Zoom으로 스터디 모임이 진행되고, 이런 적이 낯설어 과연 이 외국어 튜터링 모임이 잘 진행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어 실력의 향상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지닌 스터디원들은 모두 스터디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 서로 의견을 내며 특방에서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CTL프로그램인 스터디 모임 프로그램을 주저 없이 추천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생님은 학생의 눈높이에서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기들은 서로에 대해 잘 알며 공부를 진행할 때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토익 공부를 진행할 때도 제가 모르는 Reading 파트에서의 문제를 다수의 동기들도 틀리거나 의문을 가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제의 답을 고를 때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답을 골랐는지에 대한 토론을 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생각했던 답의 근거가 틀린 경우가 많았고 친구들의 생각 방식을 머릿속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자 영어공부의 향상이라는 공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열의 역시 다질 수 있었습니다. 나보다 열심히 참여하는 스터디원의 모습을 보며 저도 자극을 받고 더 적극적으로 스터디 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스터디 모임을 지향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CTL 프로그램을 참여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터디 모임이 끝난 지금도 저는 영어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졸업이 1년 정도 남은 시점이라 이번 방학에 인턴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턴 면접을 진행하면서 영어와 관련한 질문이 나올 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 모임을 하며 증진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점수를 목표 지향한 만큼 획득한 상황입니다. 친구들과 소통하며 배운 영어 공부법은 스터디 모임이 끝나도 현재까지 저에게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공부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던 스터디그룹에 지원을 통해 성취감과 함께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0년도 2학기
CTL 프로그램 후기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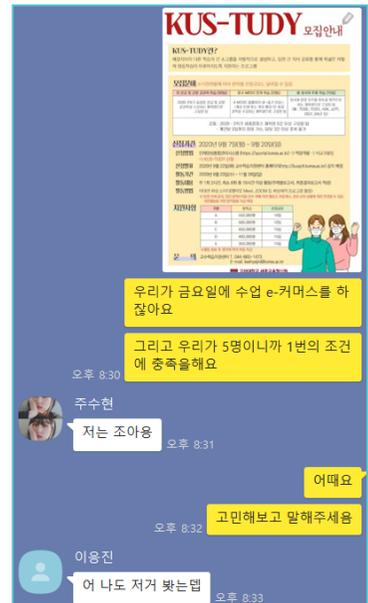
다같이 앞으로

융합경영학부 디지털경영전공
김보영

같은 학과의 친구들과 KUS_TUDY의 조장으로 활동하여, 한 학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KUS-TUDY는 배경지식이 다른 학습자 간 소그룹을 자발적으로 결성하고 팀원 간 지식 공유를 통해 폭넓은 자발적 협동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집은 크게 3종류로 2020-2학기 동일한 전공 및 교양 수업을 수강하는 재학생들이 진행해도 되고, K-MOOC를 수강하는 재학생끼리 해도 되며 외국어 관련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재학생들이 구성하는 팀도 되었는데, 그중 저는 첫 번째 모집 분야인 전공 및 교양교과목 학습 분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한 동기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코로나 19로 인해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과 하나의 추억을 쌓고 싶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친구들과 토론하여 심층적인 공부를 하고자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 됐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마자 전공 수업을 함께 듣는 친구들과 팀을 만들어 KUS-TUDY를 신청하게 되었고 그 후 그 과목에서는 같은 팀을 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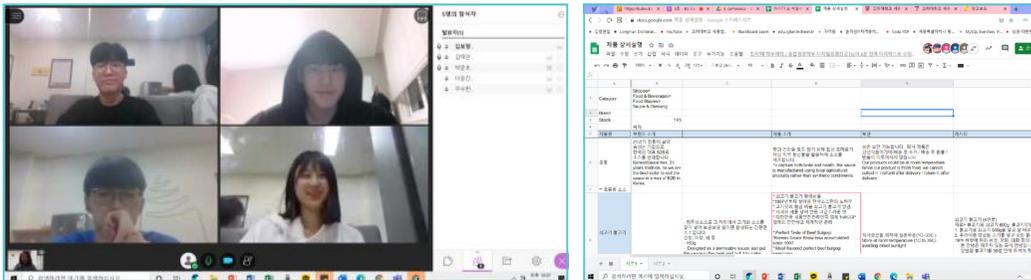
팀원이 5명 이상이어야 했기에, 같은 과목을 듣는 5명을 찾기부터가 쉽지 않았지만, 찾고 나서 단톡방을 만들고 어떠한 프로그램인지, 왜 하고자 하는지, 진행 방향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을 하였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자신이 이야기할까 고민했었다고도 했고, 일부 친구들은 아예 처음 들어보는 것이라고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친구들과



조용해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비대면(블랙보드의 콜라보레이션 활용)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하루 전 혹은 일주일 전에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팀 활동을 진행할지 혹은 어떠한 방향으로 최소 2시간을 활용할지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친구들과 큰 계획을 세우고 주장이자 제안했던 저는 제안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후 팀원들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수정하고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 선발되어 매주 한 번 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며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하기도 하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논의하는 등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KUS-TUDY과목을 전공과목 중 실습과목을 주로 하다 보니까, 특정한 요일을 정해서 하기보단 필요할 때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KUS-TUDY를 시작하기 전,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다소 불편하다고 하여 활동 보고서를 제가 작성한다고 하고 시작하였기에 제가 담당해서 시작할 때 사진을 찍고, 끝날 때 한 번 더 사진을 찍어 주간학습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로, 구글 공유드라이브를 통하여 동시에 문서를 작성하고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블랙보드를 켜놔 혹시 한 사람이 화면을 공유해야 할 때나 말을 할 때를 위해 켜놓았습니다.



활동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요일을 정할 때 해당 주의 진행 방향을 잡았고 대부분 실습에 진행하기 위한 준비 활동들(마케팅이나 물품 배송 논의 등)이었으며, 가끔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활동들을 정리하고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나가는지 확인하는 시간도 종종 가졌습니다. 첫날에는 저희끼리 간단한 OT를 진행하면서 시작하였고 마지막 또한 작별 인사를 하면서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활동 특성상 하루에 OT만 진행하면 안 됐기에 OT 하면서 활동의 계획을 세우고 실습의 기초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활동은 사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매주 하다 보니 8주 차, 9주 차까지 와있어서 어느새 활동의 종착점에 와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통제 속에서 진행되는 활동이 아니다 보니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했고, 친한 친구들이다 보니 만나면 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활동에서의 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과 과제가 많아질 때도 있었고 서로의 개인적인

시간이 겹쳐 제대로 시간을 맞추는 것 또한 쉽지 않아 가끔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열심히 하고 싶었고 그것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한 친구들이다 보니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면 대화를 통하여 시간 조율이 가능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간이 조정됐을 때의 미안함과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활동을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책임감은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의 약속이었고 내가 제시한 활동이기 때문에 조금은 피곤하고 지치더라도 먼저 약속을 잡아서 활동을 진행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성을 잡지 못할 때는 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보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지 3주 정도 되고 나서부터는 KUS-TUDY가 일주일에 2시간은 너무 적은 것은 아닌가 하면서 아쉽기도 했고, 오히려 기록하지 않고 진행했던 활동들이 더 많을 정도였고, 가끔은 혼자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고 대면이 가능한 경우 대면을,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면 비대면을 진행하는 등 굉장히 유동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의 몰랐던 매력도 알게 되고, 학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이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저의 마음가짐입니다. 저는 원래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22학점을 들으면서도 학원 아르바이트를 하고 동생과 함께 한자 자격증도 준비하면서도 토익 등의 자격증을 한꺼번에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끔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욕심을 부려 제대로 일을 끝마치지 못한 적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내 욕심이 많아서 하지 못했던 거다 라고만 단정 짓고 개선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활동을 하면서 가끔은 이 활동을 안 했다면 더 여유롭게 공부했었는데 라는 등의 약간 후회가 섞인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친구들과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마치고 바라보니 과거의 저는 제가 못해서 혹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가 하고자 했던 의지와 끈기가 부족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리더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반장 등의 리더 자리에 많이 있어 봤기 때문에 걱정 없이 시작하였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리더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조원들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먼저 말하기보단 의견을 묻고 조율하며 진행을 하였기에 시작을 하면서도, 진행하면서도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다른 전공 팀 활동을 진행하였을 때에는 틈만 나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왜 다른 방향으로만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혹은 너무 참여를 안 한 거나 소극적으로 행동하여 불편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팀원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싸움이 이루어지고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리더는 가운데에서 중재하고 먼저 들어주고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등은 우리 조의 KUS-TUDY는 해당 교과목에서 진행되는 경진대회를 끝으로 이 활동도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경진대회에서 우승이라는 결과를 가지게 되면서 조금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팀플레이에서 끝날 수도 있었던 활동이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생성되었고 활동 중에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2020학년도 2학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만약 이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활동을 하더라도 다른 친구들과 했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활동은 이번 학기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이 활동을 추천하는 이유는 진정한 팀플레이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대학교에 와서 팀플레이를 진행하다보면, 누구는 무임승차 누구는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등 부정적인 느낌의 총집합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느꼈고, 그렇기에 이 활동을 해도 되는 건 맞을지 많이 망설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제 생각과는 확연히 다른 생각을 들을 수 있고, 활동을

익명
09/25 14:49

Like
Scrap

KUS-Tutoring 튜티 모집!!
[경제학원론 :거서]

안녕하세요~ 지금 경제학원론:거서 튜터링 튜티 2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학원론 : 거서를 A 학점을 맞았고, 그 이외에 경제학 전공 수업을 대부분 A학점으로 이수하였습니다. 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학과 수업에 있어서 튜티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간은 9/28 ~ 11/29 까지 최소 8주차로 주차별 2시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쭉지나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
3
0

익명
10/08 09:30

Like
Scrap

통계적추론 전공 튜티

통계학과 빅데이터 학우분 중에 통계적 추론 튜티 하실 분 계시나요? 기간도 10월 16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고로 15학번 남자입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장학금 반 나눠가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마다 2시간씩 8회 해야됩니다.

0
2
0

익명(글쓴이)

Comment
Like
More

한 분 모집하고 오프라인으로 할 생각입니다. 저는 일단 수리통계 개념을 정리해오고 문제도 몇 문제 풀어보는 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통계 대학원에서 구술 면접 때 수리통계 관련 질문을 많이 물어봐서 서로 개념을 설명해 줄 수 연습도 할 생각입니다.

10/08 09:44

익명(글쓴이)

Comment
Like
M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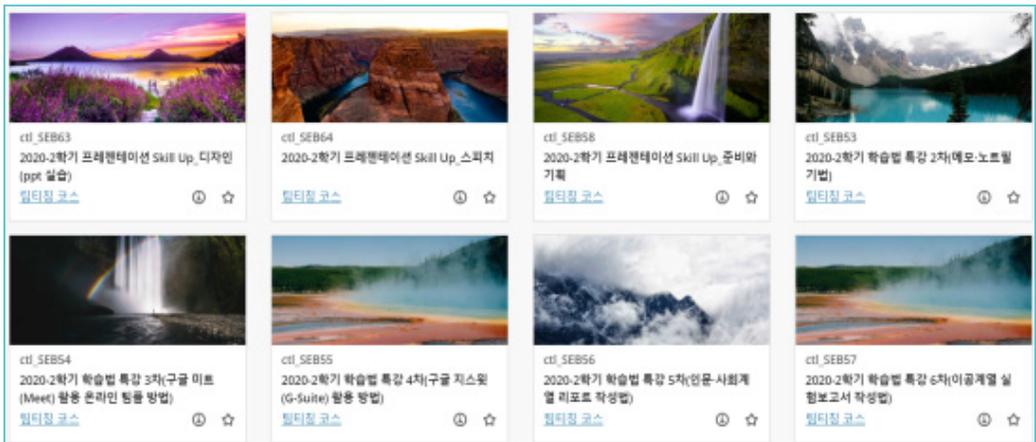
올해 코로나 때문에 통계대학원 대부분이 거의 다 화상면접(구술면접)만 시험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연습을 많이 가질 생각입니다.

10/08 09:54

시작했던 원인이 교수님 혹은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진행하고자 했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무임승차의 걱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들 너무 열정적이어서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힘들 정도였으니까 말은 다한 것 같습니다. 이 활동은 내가 해야 하니까 의무적이고 수동적으로 하는 로봇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무엇인가 추구하고 얻고자 시작한 활동이기에 서로 배려하면서 맞춰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도 더 깊은 이해를 만들어주었기에 대학교에서 팀플을 많이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일이 적어서 마음이 아픡니다).

내가 새내기라서 친구를 많이 모르거나, 아니면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가 5명 미만일 경우에는 에브리타임 등에서 많은 회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19학년도 2학기에 워크튜터링 (현 외국인 튜터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KUSTUDY처럼 매주 시간을 정하여 외국인 학생들에게 전공 혹은 전공 관련 교양을 가르쳐주고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도 아녀서 매주 모여서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활동은 저에게 매우 뜻깊었었는데 이유는 저에게 도움이 되었고 튜티들도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뜻깊은 시간이자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수업이 일주일에 두 번씩 진행되기 때문에 항상 일주일의 마지막 수업 일자에 지도교수제를 진행하고 일주일마다 배운 것을 토대로 튜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도교수제를 준비하는 동안 복습도 됐고 내 기준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문맥이었는데 튜티 입장에서는 너무 이해되지 않아 그 뒷부분부터는 아예 이해를 못 했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로의 언어가 서툴다 보니 정말 진도를 나가는 것보단 그들과 직접 눈을 맞추고 호흡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진심이 느껴지면서 서로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저는 워낙 공부하는 것 자체에 흥미를 느끼고 있고 또한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것, 그리고 외국인과의 활동 등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신청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얻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지난 학기와 이번 학기에도 신청하고 싶었지만, 현재 같은 수업을 희망하는 튜티도 존재하지 않았고, 2학년이다 보니 전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기에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요즘 학습법 관련하여 많은 강의가 블랙보드에 업로드가 되고 있는데, 강의 자료도 제공이 되고 원하는 시간대에 듣고 한 줄 평가 및 피드백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많은 이득을 얻었던 강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공모전입니다. 사실, 모든 종류의 공모전에 출전하고 있는데 단 한 번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즉, 경쟁자도 많고 입상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일주일 꼬박 작성하여 매년 출전하는 이유는 저만의 포트폴리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 연도의 경우 더 다양한 공모전이 존재하던데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프로그램 후기 공모전이나 좋은 강의 에세이 공모전에서 쓸 내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저 머리에만 동동 떠다니는 일들을 적어보면서 생각을 정리할 기회도 되고 한 학기를 돌아보는 기회도 되기에 매우 추천하는 바입니다. 단, 시간과 노력이 다소 필요하다는 점은 기억해주세요. :)



2020년도 2학기
CTL 프로그램 후기 공모전



새로운 시각의 학습법을 갖다.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과
박호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

2020년, 3학년 복학을 하게 되면서 나는 어떻게든 저학년 때 받았던 학점을 만회해야만 했다. 하지만, 긴 휴학 때문에 전공 내용을 상당 부분을 잊어버렸다. 학점을 만회하기는커녕,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도 벅찬 상태가 되었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었다. 따라서 나는 어떻게든 코로나 시대에 맞는 학습법을 만들어야만 했었다. 학점을 잘 받는 친구에게 조언을 받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맞는 학습법을 찾아서 나만의 '디플반 학습법'을 만들었다. 지금까지 내가 공부해오던 성향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학습법을 도입했고, 그대로 실천하였다.

'디플반 학습법'을 통해 2020년 1학기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 학습법에 자신이 생겨, 2학기에도 동일한 학습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번 학기에는 1학기와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났다.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은 더 많아졌지만, 생각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느꼈다. 나의 학습법 중 하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적고 반복 학습을 통해 암기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중요하다고 표시한 것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았다. 집중적으로 공부한 곳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고, 쉽다고 생각해 넘어간 내용, 너무 어려워서 "이 정도는 출제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한 내용이 시험 문제로 출제되었다. 당연히 점수가 좋게 나오지 않았고, '디플반 학습법'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나의 공부 방법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보완하고자 2학기 학습 컨설팅에 신청하게 되었다.

첫 번째 컨설팅

2학기 학습 컨설팅은 3주간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는 학습 컨설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주는 ‘주간 시간 계획표’를 바탕으로 1주일 동안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가용 시간’, 집중이 가장 잘 되는 ‘황금 시간’ 등을 스스로 체크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주는 ‘코넬 필기법’을 통해 새로운 학습법을 공부하고,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의 컨설팅 모두 뜻깊은 의미가 있었다.

첫 시간에는 대략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하였고, 평소 본인이 갖고 있던 ‘학습법’에 대한 생각을 논의하였다. 나는 ‘디플반 학습법’을 만들게 된 계기를 말하였고, “1학기 때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 왔었고,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생각보다 효과가 별로 없다.”, “특히 시험 문제를 풀 때 내가 모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시간 대비 효율이 너무 나지 않는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 내가 평소 생각하고 있던 문제점을 말하였다. 말할 기회가 없어 속으로 끄끙 앓고 있었던 말들을 선생님에게 털어놓으니 마음이 굉장히 홀가분하였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였다.

내 학습법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을 많이 했다. 따라서, 불만과 문제점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피드백 받고 싶었다. 그러나 이번 학기는 비대면 수업이 주를 이루면서 학습법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학생이 없었다. 첫 번째 학습 컨설팅 시간을 통해 평소에 내가 하고 있는 학습법을 선생님께 소개했다. 나의 문제점을 서로 의논하고, 피드백을 받았다.

두 번째 컨설팅

두 번째 시간에는 ‘주간 시간 계획표 관리’를 주제로 컨설팅이 진행되었다. 컨설팅 전, 아래에 보이는 시간표를 미리 작성했다. 나는 평소에 시간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당일 배운 과목을 전부 복습해야 했기에, 대략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한 과목이 끝나는 대로 다음 과목을 공부했었다. 이 방법은 정해진 시간이 없어 내가 좋아하는 과목, 잘하는 과목은 오래 공부하고, 싫어하고 손이 잘 가지 않는 과목은 적게 공부했다. 당연히 공부 시간의 불균형이 발생하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부하는 과목이 편중되었다.

스케줄을 짜지 않는 내 학습법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취침 시간과 점심, 저녁 시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일반적으로, 나는 점심을 굶었다. 점심을 먹지 않고, 다른 여가 활동이나 강의 내용을 복습하였다. 인지하기 전까지는 몰랐지만, 점심을 먹지 않고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취침 시간이 너무 불규칙하였다. 당일 복습을 전부 끝내고 취침에 들곤 하였는데, 피로가 누적되면서 수면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 오전 수업이 있는 강의는 졸거나 몽롱한 상태에서 강의를 들었고, 이 역시 수업 시간에 집중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주간 계획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식사 시간과 취침 시간을 통일시켜야 했다. 수면 부족과 식습관은 집중력 저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두 가지 요소는 계획표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다. 점심 식사 시간은 모든 강의를 없는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정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쉬는 시간까지 전부 포함하여 오후 18시부터 20시까지 정하였다. 한편, 취침 시간은 새벽 1시부터 모든 공부를 멈추고 취침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정했다. 식사 시간과 취침 시간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여유를 두고 계획하려고 하였다.

주간 시간관리							
시간	별	화	수	목	금	토	일
06:00-07:00	취침						
07:00-08:00	취침						
08:00-09:00	기상(8:30)						
09:00-10:00							
10:00-11:00	양자역학	가용시간	English	가용시간	가용시간	황금시간	가용시간
11:00-12:00							
12:00-13:00	점심 시간						
13:00-14:00		멘토	반소				
14:00-15:00	학습도움		전자기학	반소	English	휴식!	황금시간!
15:00-16:00	세미나						
16:00-17:00	가용시간	양자역학	가용시간	전자기학	가용시간		
17:00-18:00		가용시간		가용시간			
18:00-19:00	저녁 식사	저녁 식사	저녁 식사				
19:00-20:00		양자연습					
20:00-21:00							
21:00-22:00							
22:00-23:00	황금시간!	황금시간!	황금시간!	황금시간!	황금시간!	휴식!	황금시간!
23:00-24:00							
24:00-01:00							
01:00-02:00	취침(02:00)						
가용시간	7시간	9시간	6시간	9시간	9시간	3시간	8시간
학습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4시간	2시간	-	-
목표 학습시간	7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9시간	3시간	8시간

계획표를 작성할 때, '가용 시간'과 '황금 시간'을 나누어서 작성하였다. '가용 시간'은 내가 사용(가용)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의미하고, '황금 시간'은 가용 시간 중, 집중이 가장 잘 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스케줄을 작성하지 않고 무작정 공부할 때는 매일같이 시간이 부족했었다. 그러나, 계획표를 작성하고 난 이후에야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가시적으로 표시해두니,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내가 낭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일주일 시간 계획표를 작성하는 일은 초등학교 방학 숙제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계획표를 작성함으로써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가용 시간과 황금 시간을 나누면서 전공 과목 공부 시간을 배정하기 더욱 수월하였다. 두 번째 학습 컨설팅을 통해 학습 향상에 큰 도움을 준 활동이다.

세 번째 컨설팅

세 번째 시간에는 '코넬 필기법'을 학습하였다. '코넬 필기법'은 7가지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의가 끝난 이후 20분 안에 꼭 노트를 검토한다', '전체 흐름을 정리하고 의문점을 해결한다'와 같이 나에게 맞는 두 가지 방법을 골라서 사용했다.

지금까지 나는 강의가 끝난 직후 바로 복습을 하지 않았다. 모든 강의가 끝난 이후에 복습했다. 새로운 학습법 '코넬 필기법'을 적용한 이후, 강의가 끝난 직후 바로 복습을 진행했다. 교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표시했고, 수업 시간에 어렵다고 판단한 내용을 표시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읽었다. 강의를 들은 생생한 기억이 남았을 때 복습을 진행했다. 연속으로 강의가

코넬 필기법 연습

대상:	학습목표
내용:	1. 국의 책임을 이해하고 필요성을 알아본다
성성남:	2. 설명문의 두 가지 책임 방식을 이해한다
	3.
인용단서(책실계단)	수업내용정리
책임 자연적 구성 논리적 구성	<p>국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정한 질서에 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구조화 >> 책임</p> <p>책임을 파악하기 위해 문단 중심 내용을 요약, 큰 전체를 몇 부분으로 나누어 보며 내용 전개 방식을 고려</p> <p>책임 방식 >> 1. 자연적 구성 >> 2. 논리적 구성</p> <p>1. 자연적 구성 :: 순서에 따라 >> 시간적 구성 :: 차례에 따라 >> 공간적 구성 :: 물리적 대상이 바뀌어 따라 >> 물리적 구성</p> <p>2. 논리적 구성 :: 구성 단계에 따라 >> 단계적 구성 :: 중심 내용을 위주로 >> 포괄적 구성 :: 중심 내용이 분산 >> 열거적 구성 :: 인과관계 >> 인과적 구성 :: 점점 중요하게 고르시길 >> 점층적 구성</p>
메모	<p>요약</p> <p>일정한 질서에 의해 구조화시켜 놓은 것은 책임이라고 하며, 내용을 쉽게 이해, 오래 기억할 수 있음. 책임을 알아보기 위해 각 문단의 중심 내용 요약 및 전체를 나누며 국의 전개 방법을 알아보아야 함. 자연적 구성에는 시간적, 공간적 물리적 구성이 있으며, 논리적 구성에는 단계적 구성, 포괄적 구성, 인과적 구성, 열거적 구성, 점층적 구성이 있음</p>

있을 때도, 쉬는 시간 10분을 활용해 최대한 복습하려고 노력했다. 모든 강의를 다 듣고 복습할 때보다 복습하는 시간이 확실히 빨라졌고, 중요한 요점을 체크하는 데 훨씬 용이했다.

평소에 쓰는 학습법 중, 당일 배운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는 ‘요약 노트’ 학습법을 사용해왔다. 이 방법을 대략적으로 소개하자면, 수업이 끝난 이후 과목마다 시험을 볼 때까지 계속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요약했다. 즉, 당일 배운 과목을 복습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요약 노트에 적었다. 이 과정을 통해 과목 전체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과목 전체의 유기적으로 짜인 논리를 이해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내용을 전부 지우고 나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기억했다.

이 학습법에도 단점이 있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내가 직접 선택하다 보니 정작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빠지기 일쑤였다. 따라서 나는 코넬 필기법의 ‘전체 흐름을 정리하고 의문점을 해결한다’의 내용을 약간 변형해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부분은 깊게 공부하지 않고 넘어갔었는데, 모든 내용을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읽었다. 또한, 필기하는 방법을 변형시켰다. 이전까지는 교수님이 칠판에 필기한 것만 받아 적었다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농담, 포인트 등 세세한 사항 전부 놓치지 않고 필기하였다. 세 번째 학습 컨설팅을 통해 코넬 필기법을 학습하였다. 필기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학습법을 바꾸고 난 이후, 성적이 크게 상승하였다.

소감

전반적으로, 학습 컨설팅을 통해 기존의 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의 학습법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주간 시간 계획표 관리’는 평소 나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었고, 내가 얼마나 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는지 인지할 수 있는 좋은 과정이었다. 코넬 필기법 컨설팅 역시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학습법을 알려주는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컨설팅 기간 동안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보다도 평소 내가 하고 있던 생각을 누군가와 토론, 의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많은 학생의 고민 중 하나가 ‘성적’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 학점을 잘 받고 싶은 학생, 특히 평소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지만 학점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매우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다. 학습 컨설팅을 통해 본인의 학습법의 문제점을 알 수 있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학습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학점을 올리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장 '학습 컨설팅'을 신청하라.

2020년도 2학기

나만의 학습전략 공모전

최우수상

- 필기가 어려운 너에게 유용한 필기 꿀팁!
경제통계학부 경제정책학과 김규리





2020년도 2학기
나만의 학습전략 공모전



필기가 어려운 너에게 유용한 필기 꿀팁!

경제통계학부 경제정책학과
김규리

나의 필기 역사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나는 꽤 오래전부터 필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정갈한 글씨로 의미 있는 내용을 적고 나면 부듯했고, 의미 없는 내용을 적더라도 글씨를 휘갈기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나는 어릴 때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수업을 들을 때면, 항상 필기를 했다. 그리고 내가 한 필기는 혼자 공부할 때 빛을 발했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오다가, 중학생 때 필기를 하지 않는 친구가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되, 필기를 하지 않으면 어떨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 후 수업에서, 필기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이해만 해보았으나, 수업 시간에 설명 들었던 양에 비해 내가 기억하는 내용은 너무나 적음을 인지했고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무서워 수업 내용을 쉬는 시간에 바로 필기를 했다. 필기를 하지 않고 수업을 듣는 방법은 기억력이 아주 뛰어난 친구에게는 맞을지도 모르는 방법이지만, 기억력이 그리 뛰어나지 않은 나에게는 맞지 않는 방법이었다. 그 이후로 수업을 들을 때면, 빠짐없이 필기를 했다. 나의 공부는 늘 내 필기가 가득한 노트와 함께 이루어졌다. 내가 몇 년간 터득한 나만의 필기 전략에 대해 말해보자 한다.

필기의 2가지 분류

우선, 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수업 중 필기와 수업 후 필기로 말이다. 수업 중 필기는 강의자가 전달하는 내용을 적는 것으로, 나중에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적는 것이 중요하다. 수업 중 필기는 수업 후 필기의 기반이고, 시험공부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업 중 필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수업 후 필기는 강의자의 말을 나의 말로 번역시키는 것이다. 수업 후 필기를 할 때는, 지난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재생시켜야 한다. 수업 중 필기와 강의자료를 보며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려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해결해야 한다. 이 필기는 시험 직전까지 봐야 하는 노트이므로 깔끔하게 그리고 수업 내용을 찾기 쉽도록 순서대로 적는 것이 좋다.

수업 중 필기 - 전략1

여기서 터득한 나만의 첫 번째 전략은 강의자가 말하는 것보다 조금 느리게 적는 것이다. 강의자가 강의 내용을 암기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습득한 내용을 자신의 말로 전하는 것이므로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강의자의 말보다 조금 느리게 적기 위해서는 강의자가 말한 내용과 그 흐름을 대충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이때 필기를 위해 기억하는 것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수업 중 필기 - 전략2

두 번째 전략은 강의자가 설명하는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적기이다.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후에 혼자 공부를 하면서 깊은 생각을 통해 이해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해도 모르겠다면 강의자나 또 다른 이에게 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멍을 때리며 아무것도 적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영원히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별표 등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한 뒤, 강의자의 설명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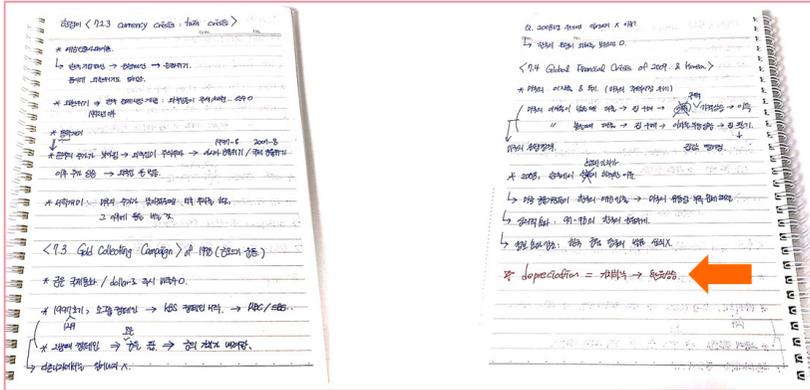
수업 중 필기 - 전략3

세 번째 전략은 ‘어느 부분을 필기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자신이 듣는 강의가 PPT 등 강의자료가 제공되는 강의라면, 강의자료에 있는 내용은 과감히 생략하는 것이다. 대신 강의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은 ‘강의자의 말’을 적는 것이다. 강의자료는 중요한 부분을 간단하게 적어놓은 경우가 많다. 특히 서술형 시험이라면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하는 것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기에 ‘왜 저것이 중요하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 즉, 강의자료에 나온 것을 설명하는 강의자의 말을 적어놓으라는 것이다. 만약 그 강의가 강의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그 강의자료의 내용을 모두 적는 것이 아니다. 강의자료는 사진을 찍고 ‘강의자의 말’만 아까와 같이 적으면 된다.

수업 중 필기 - 전략4

네 번째 전략은 ‘될 수 있으면 필기는 볼펜으로, 그리고 최대한 적은 색을 사용하여’라는 것이다. 강의자는 강의의 흐름을 잃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말을 한다. 즉, 학습자에게 매 순간 필기 시간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강의자의 말을 멈춤 없이 따라가야 한다. 샤프는 샤프심이 부러지기도 하고, 샤프심이 없어 넣어야 할 때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 또한, 3개 이상의 색을 쓸 경우, 색을 바꾸는 시간이 걸린다. 실제로 나는 필기에 검은색 볼펜 하나만을 사용하고, 시험 혹은 과제에 대한

공지나 강의자가 강조한 부분만 빨간색 볼펜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이렇게 하면 한눈에 무엇이 강의 내용인지, 무엇이 공지인지 알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수업 중 필기 전략4의 예시]

수업 후 필기의 적정 시기

수업 후 필기는 수업 후라면 언제나 이루어져도 된다. 그러나 시험을 위한 필기라면, 너무 빨리하거나 너무 늦게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수업 후 필기가 너무 빨리 이루어지면, 수업의 영향이 크게 미쳐서 내가 이것을 진실로 아는 것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 또한, 수업 후 필기를 너무 늦게 하면, 시간에 쫓기게 되어 이해가 아닌 그저 필기하는 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두게 되고, 제대로 된 암기와 이해를 할 수 없으며 복습할 시간도 부족하다. 그러므로, 수업 2주 후 또는 시험 3주 전 정도에 하는 것을 추천한다. 수업 중 필기를 보며, 수업 내용을 회상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난 후 필기를 하는 것이 좋다.

수업 후 필기 - 전략1

수업 후 필기의 첫 번째 전략은 잘 외워지지 않거나 모르는 단어를 뜻과 함께 적어두기이다. 외국어나, 경제 용어, 미술 용어 등에는 어려워져 외우기 쉽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이때, 단어를 필기하면 그 단어를 보고 어떤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 시험에 나오지 않는 너무 어려운 단어는 외우지 않아도 괜찮지만, 외국어의 경우 시험 또한 외국어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에 단어를 외우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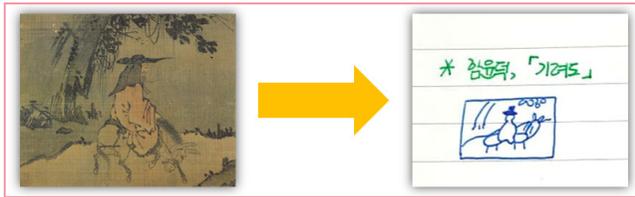


[수업 후 필기 전략1의 예시]

수업 후 필기 - 전략2

두 번째 전략은 중요하게 생각되는 강의자료의 그림이라면, 필기 옆에 대충이라도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함윤덕의 <기러기도> 같은 경우 말과 사람, 그리고 나무를 그리면 된다. 시험시간이

다가왔을 때, 강의자료와 필기를 둘 다 펼쳐서 보기가 힘들다. 그렇기에 강의자료 중 중요한 부분을 간단하게 그려놓는다면 필기만 보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 절약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미술 작품과 똑같이 그리는 것은 시간이 많이 듦으로 추천하지 않고, 간단하지만 특징이 나타나게 그리는 것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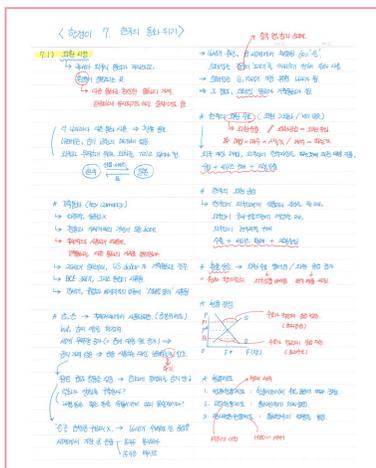
[수업 후 필기 전략2의 예시]

수업 후 필기 - 전략3

세 번째 전략은 말하면서 필기하는 것이다. 어느 순간 필기를 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져 뇌를 쓰지 않고 손만 쓰는 일이 발생한다. 이때, 누군가에게 설명하듯이 말을 하며 필기를 하면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말하면서 필기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 후 필기를 하거나, 필기를 한 후 설명을 해도 좋다. 이 전략의 필기를 하는 것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필기를 하는 도중 필기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수업 후 필기 - 전략4

네 번째 전략은 줄이나 모눈이 있는 노트에 적는 것이다. 빈 에이포 용지에 적으면 글이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이것이 신경 쓰이지 않는 사람은 괜찮다. 그러나, 깔끔한 필기를 하려는 강박증이 있는 사람은 필기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내용에 집중하기보다 글씨에 집중하기 때문에 공부가 되기도 어려우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종이를 바꾸거나 다시 쓰기 때문에 시간도 낭비된다. 실제로 나는 이런 필기 강박증을 지닌 사람으로, 줄이 있는 노트를 사용하고 나서 필기에 할당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그 시간에 복습이나 휴식 등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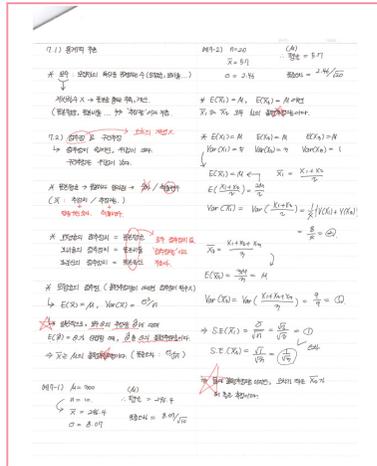
[수업 후 필기의 예시1]



[수업 후 필기의 예시2]



[수업 후 필기의 예시3]



[수업 후 필기의 예시3]

필기가 어려운 너에게

나의 시험공부는 항상 필기와 함께했다. 수업 중 필기는 수업에 집중하도록 하는 수단이었고, 수업 후 필기는 수업 내용을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수단이었다.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내가 필기한 노트를 계속해서 보았다. 필기를 했던 수업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결과를 주었고, 나의 노력이 담긴 필기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겼다. 머릿속에 남겨진 기억은 부분적으로 퇴색되지만, 종이에 적힌 글씨는 없어지지 않는다. 고등학생 때, 내가 중학생 때 썼던 필기를 통해 도움을 받은 적도 있고, 대학생 때, 내가 고등학생 때 썼던 필기로 도움을 받은 적도 있다. 그 당시에 내가 시험만을 위해 정보를 머릿속으로 기억만 했다면 미래의 나를 도와줄 수 없었을 것이다. 대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것이 미래의 나에게 도움을 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어떤 것을 배워도 필기가 있기에 ‘아 그때 배운 걸 찾아봐야겠다’하고 기억을 되살릴 자신이 있다. 그리고 나의 노력이 가득한 노트를 보며 ‘열심히 공부했네’라며 뿌듯해하기도 한다. 앞서 소개한 필기의 8가지 전략은 내가 몇 년간 터득한 전략으로, ‘나’의 맞춤형 전략이다. 이 전략이 누구에게 맞을지 아닐지는 해보기 전까지 모른다. 나의 전략이 괜찮다면 받아들여도 좋고, 아니라면 바꾸거나 버려도 좋다. 한 번 너만의 ‘맞춤형’ 전략을 만들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2020년도 2학기

나만의 학습전략 공모전

우수상

- **내가 All A+를 맞을 수 있었던 공부방법**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 공공사회학전공 강지혜
- **효율 is the Best!**
경제통계학부 경제정책학전공 김나영
- **반복하는 노력**
생명정보공학과 허민





2020년도 2학기
나만의 학습전략 공모전



내가 세 A+를 맞을 수 있었던 공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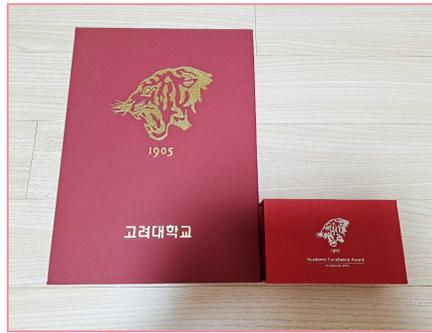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 공공사회학전공
강지혜

1학년 1학기 성적 2.59.

대학에 입학해서 처음 받은 나의 성적이었다.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에 들어왔지만,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수업 시간에는 즐기 일쑤였고, F를 받은 과목도 있었다. 당연한 결과였다. 그나마 친구들과 함께한 수업에서는 열심히 해서 괜찮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한 학기 동안 방황의 시간을 보냈다. 우울한 시간이 많았고, 거의 기숙사에서만 지냈다. 학교 상담 센터에 찾아가 상담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일단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생각하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나는 1학년 2학기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나의 성적은 노력과 비례해 꾸준히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4학년 1학기, 전체 평점 평균 4.5의 성적을 받게 되었다. 성적이 잘 나오니 그동안 노력해왔던 모든 시간을 보상받은 느낌이었고, ‘노력하면 뭐든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현재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중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뭔지 직접 부딪쳐가며 배우고 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부터 최선을 다하니,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방법을 몰라서 혹은 그 시절 나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다면, 일단 학교생활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지금부터 내가 올 A+ 성적을 맞을 수 있었던 공부 방법을 공개하고자 한다.

2020년 1학기 공시성적										
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담당교수	이수 구분	과목 유형	학점 등급	재수강 년도	재수강 학기	재수 과목명
20	1학기					교양	1			P
20	1학기					교양	2			A+
20	1학기					교양	2			A+
20	1학기					교양	3			A+
20	1학기					교양	2			A+
20	1학기					전공선택	3			A+
20	1학기					전공필수	3			A+
20	1학기					전공필수	3			A+

누계성적				
년도	학기	신성학점	취득학점	평점평균
2020	1학기	19.0	19.0	4.5



Chapter 1. 대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과 강의계획서를 통해 한 학기 동안 무슨 내용을 배우는지 파악하고, 노트에 과목별로 평가 방법, 시험 출제 방향, 과제 등을 정리한다. 이 내용은 한 학기가 끝날 때까지 각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제시해 줄 것이다. 학기를 보내면서 새로운 과제나 기억해야 할 사항이 생긴다면 추가로 기록한다.

기본이지만 정석인 공부 방법

큰 틀은 똑같다. 수업을 충실히 듣고, 복습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나는 예습, 수업, 복습의 3단계로 이 과정을 나눴다.

- 예습 : 내용 읽어보기 & 흐름 파악
- 수업 : 집중해서 듣기 & 필기
- 복습 :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조화하여 노트 정리 & 주기적으로 봄으로써 이해 강화

예습

예습은 수업을 집중해서 듣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면 된다. 오늘 내가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살펴보는 과정이다.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며 흐름을 파악해보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수업 때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표시해 놓는다.

수업

수업을 들으면서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교재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을 받아 적을 필요가 없다.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듣고, 쓰여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그럼 어떤 것을 필기해야 할까?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에 도움이 된 부분들을 적는 것이 바로 필기다. 필기의 목적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며, 복습할 때 내용을 구조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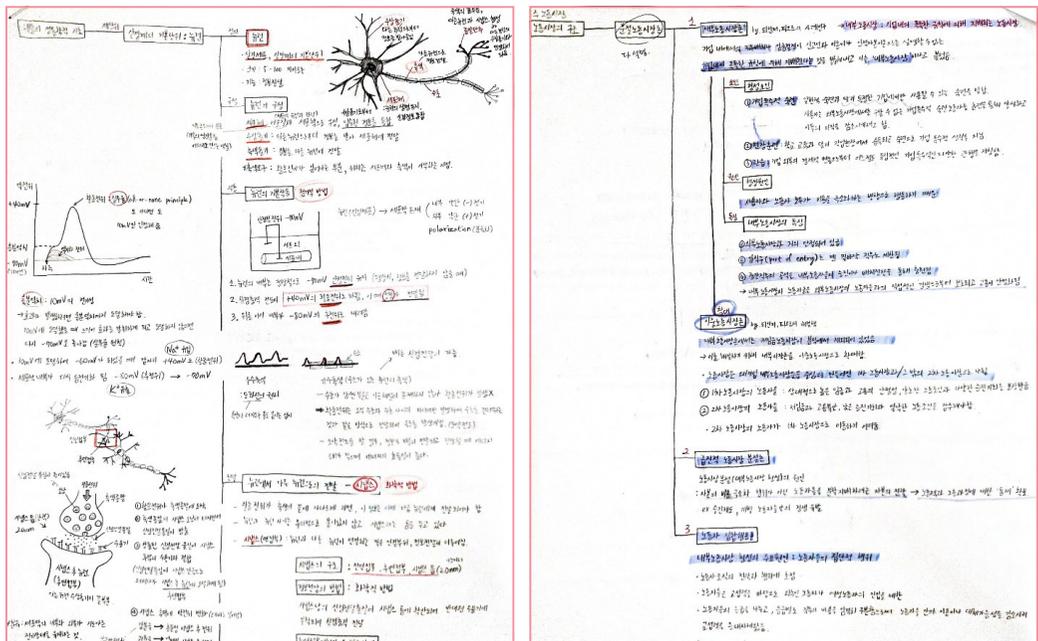
* 뭘 필기해야 할까?

- 교수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해 주시는 예시
- 교재나 강의록에 쓰여 있는 어려운 내용을 쉽게 말로 설명해 주시는 것
- 중요하다고 하시는 내용에 표시하기

복습 : 나만의 노트 필기 전략

교재와 필기를 바탕으로 배운 내용을 구조화하는 노트 정리를 하는 것이 복습이다. 단순히 배운 내용을 읽어보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기 편하고, 내 머릿속에 집어넣기 좋도록 정리해 놓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교수님께 질문해서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나는 A4용지에 목차를 바탕으로 작은 가지를 뺀어서 내용을 구조화시켜 정리했다. 큰 가지 속에서의 작은 가지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그 안의 세부내용 하나하나를 100% 이해하고 기억하는 방식이다. 최종적으로는 머릿속에 큰 틀을 저장해놓고, 가지에 해당하는 각각의 내용을 떠올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공부해야 하는 모든 과목에 대해 이 과정을 수행한다. 강의마다 주제가 있고, 그에 따라 목차가 나뉘어 강의가 진행된다. 목차가 없다면 수업하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이해하기 편한 방식으로 직접 만들면 된다.

이렇게 매일 차근차근 내가 배운 내용을 과목별로 쌓아나가야 한다. 수업이 끝난 직후 배운 내용을 훑어보면서 중요하게 설명해 주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기시키고, 이 기억이 가장 생생하게 남아있을 때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수업을 들은 당일에 복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업을 들은 지 오래되었을 경우, 처음 보는 내용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복습 시간이 늦춰질수록 복습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Chapter 2. 시험공부 방법

고등학교 때와 달리 문제집이 없었기 때문에 나 혼자 문제를 풀고 내가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글자 그대로를 외워서 쓰려고 할 때도 있었고, 이해만 한 뒤 시험장에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그랬던 경우,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머릿속에 백지가 되는 경험을 수없이 했다. 객관식으로 나왔을 경우에도 정확히 암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고를 수 없었고, 서술형인 경우에는 아무 말도 쓸 수 없었다. 그리고 나에게 최적화된 대학교 공부 방법을 찾아냈다.

시험공부 방법

시험공부를 할 때, 큰 틀은 똑같지만, 객관식과 서술형의 공부 방식은 조금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객관식은 말 그대로 선지가 주어지고 그중에서 답을 고르는 형식이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백지에 써 내려가며 외우는 것보다는 키워드만 암기하고, 여러 번 읽으면서 내용을 구조화하여 기억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반면, 서술형은 문제를 주고, 그것을 줄글로 작성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가 직접 시험지에 써 내려가야 하므로 백지에 내가 외운 내용을 꺼내서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객관식이든, 서술형이든 모든 내용은 머릿속에 암기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보면 객관식은 부분 점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암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험 3주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험공부를 시작한다. 목차를 바탕으로 내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복습 노트를 모두 암기하는 과정이다. 복습을 통해 배운 내용이 100% 이해되었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그 내용을 모두 암기하는 것이다. 목차를 통해 정리했기 때문에 체계적인 암기가 가능하다. 틈틈이 구조화시켜 정리한 나만의 노트를 많이 보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중요한 키워드는 암기한다. 서술형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목차를 바탕으로 큰 목차 하나가 시험문제라고 생각하고 빈 종이에 구조적으로 암기될 때까지 써봐야 한다. 단순히 보고 베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고 빈 종이에 체계적으로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 ① 내가 아는 내용을 최대한 써본다. ② 못 쓴 내용을 노트를 보고 확인하고 쓰면서 다시 암기한다. ③ 빈 종이에 다시 시험을 본다. 이 과정을 모든 내용이 암기될 때까지 반복한다. 내가 어떤 것을 암기하고 있는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목차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세부내용뿐만 아니라 큰 흐름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다. 객관식일 경우는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하고, 모든 내용을 흐름대로 구조화시켜 여러 번 읽어서 기억하는 것이 좋다. 시험계획의 핵심은 한번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닌, 여러 번 보는 것이다.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최대한 이 과정을 많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과목별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Chapter 3. 생활 습관 개선하기

좋은 수면습관 만들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은 수면습관이다. 집중력 있게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좋은 수면습관을 들여야 한다.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피로가 풀리는 황금시간대라고 알려져 있다. 최대한 이 시간에 잠들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이 언제 눈이 떠지는지 체크하다 보면 자신만의 최적의 수면시간을 찾게 될 것이다. 나의 경우에는 10시 30분에 잠들어서 7시간 30분 정도 잤을 때 가장 컨디션이 좋다. 중간에 낮잠을 20분 정도 자는 것도 집중력을 다시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자신만의 수면시간을 찾아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졸음이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잠을 잘 자야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있고, 공부할 힘이 생긴다.

다이어리 사용 : 효과적인 시간 관리 전략

두 번째는 다이어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다이어리는 하루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자, 더 나은 하루를 만들게 해주는 나만의 지침서가 된다. 대학 생활을 하루하루 기록해나가며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가 어떤 활동에서 재미를 느꼈는지도 알 수 있다. 실제로 나는 다이어리를 매일매일 쓴다. 다이어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을 까먹지 않도록 나의 일정을 관리해 주는 동시에 하루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단순히 머릿속에만 있는 것보다 글로 써서 눈으로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나는 이러한 형식의 다이어리를 사용했다. 실제 내가 사용한 다이어리 양식을 설명을 위해 재현해낸 모습이다. 10분 단위로 나누어진 시간 계획에 오늘 일정의 중요한 부분을 적고, 나머지 칸들은 우선순위로 오늘 할 일을 계획한다. 할 일을 바로 적기보다는 <오늘 해야 할 일>에 써놓은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오늘 채워진 일정의 남은 시간에 하나하나 해나간다. 그리고 내가 그 시간에 한 일을 시간 계획표에 기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시간을 잘 활용했는지 체크해 볼 수 있고,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루 평가> 칸에서는 오늘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하고, 개선할 방안을

DAY 12 / 7

	10	20	30	40	50	60
05						
06			기상	운동		
07						
08	시집					
09	수업					
10						
11						
12	점심					
13						
14	수업					
15						
16						
17						
18	배식					
19						
20						
21						
22						
23	취업					
24						
01						

Follow your dream 꿈관이 모여 나의 꿈이 이루어진다.

오늘 해야 할 일

- 1 8주차 대중문화의 이해 노트정리
- 2 한국경제론 기말 대체 레포트 2p
-
-
-
-

하루 평가

집중이 잘 안 됐다가 하고 싶은 것부터 했다. ➡ 우선순위 지키

저녁에 밥을 너무 많이 먹었다. 아직도 배부르다. ➡ 잠들기 3시간 전까지 식사 끝내기

➡

➡

오늘의 일기

오늘은 눈이 아프고 피곤한 날이었다.

바빠면 수업이 길어져서 노트복을 보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집중도 잘 안 되니까 오늘 몸이 좀 힘들었다. 푹 쉬고, 다시 바이팅 해봐야겠다!

하루하루가 모여 나의 모습이 만들어진다. 바이팅 ✨

MEMO

생각해 본다. 이를 통해 하루하루 더 나아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일기>는 내가 오늘 느꼈던 감정을 적어보는 공간이다. 내가 느꼈던 감정과 생각들은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도와준다.

누구나 꼭 해야 할 독서

대학 시절의 가장 큰 특권은 학교 안에 도서관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 학교에는 전자도서관도 있어서 학생들이 독서를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진정한 대학 공부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된다. 내가 전공 수업이나, 교양수업에서 배운 내용 혹은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책을 통해 알아나갈 수 있다. 공부법 관련 책과 자기계발과 관련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책은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아침 5시의 기적』이다.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Chapter 4.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유는 아는 것이 일정 정도 쌓이면 내가 뭘 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방향하고 있다면, 일단 주어진 공부에 최선을 다하며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나갔으면 좋겠다. 대학이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야 하는지 고민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대학의 전공수업과 교양수업, 동아리 활동, 학교의 크고 작은 행사, 프로그램들은 모두 나를 찾아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가운데 사람이 있었고, 학교가 있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학교(學校)에서 마음껏 배우고, 서로 가르치며 자신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여정에 나의 공부 방법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20년도 2학기
나만의 학습전략 공모전



효율 is the Best!

경제통계학부 경제정책학과
김나영

2020학년도 1학기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중도휴학을 했었다. 2학기에 복학을 하게 되었고,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되어 여전히 2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을 해야만 될 줄은 몰랐었다. 1학기 휴학 전 약 한 달간의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생활 패턴도 무너지고, 학습 효율성도 많이 떨어져 봤던 경험이 있던 나로서는 '2학기엔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하고 학기 초에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난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학우들도 한 학기 동안 이런 다짐과 사투를 벌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게으르지 않은 한 학기를 살기 위해 노력했던 나의 매일, 매주 그렇게 한 학기 동안의 학습전략이라는 말을 빙자한 사투전략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나의 첫 번째 사투전략은 너무나 당연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계획과 생활패턴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었다.

강의 듣기, 시험 준비, 레포트 작성 등등 세부적인 학습전략에 앞서서 것은 마음가짐과 태도라고 생각하기에 첫 번째 사투 전략으로 앞세웠고, 사실 이 전략이 무너지면 다른 전략들은 무용하다고도 생각한다. 온라인 강의를 통한 학습의 제일 큰 어려운 점은 건강한 생활패턴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주위로부터, 어떤 성공한 사람의 강의들로부터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을 것이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지내다 보면 그것이 왜 중요하다고들 하는지 알게 된다. 개인마다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지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나에게 가장 효율적이었던 방법은 하루하루의 계획만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었다. 당장 꼭 해야 할 일과 조금 시간을 두고 해도 되는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기 전에 내일 해야 할 일에 대해 계획을 세웠다. 세운 계획들을 다 마치고 남은 시간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계획은 너무 무리하지 않되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좋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정말 쉬운 첫 번째 전략이다.

✓	11/19 (목)
□	계량 경제 11/5 강의 다시 듣기 <복습>
✓	한국 경제의 이해 7.3 해석하기
✓	소득재분배 강의 듣기
✓	스페인어 말하기 & 쓰기 연습 그림한개하기
✓	교양과목 제안서 정리하기
✓	블로그 폰팅 - 강남 카페 Urban Rabbit
✓	경제 사상사 열심히 듣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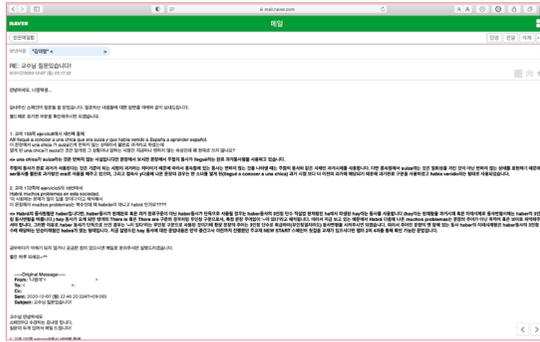
[일일 계획표의 예시]

두 번째 전략은 ‘온라인 강의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먼저, 온라인 강의는 특성상 실시간 강의가 아닌 강의들은 시간표에 짠 강의 시간 그대로 듣지 않게 되어 미루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단점은 오히려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나의 생활 리듬과 강의 이외의 일정을 위해 강의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장점이다. 물론 교수님께서 지정해주신 시간 안에 듣는 것은 필수이다. 예를 들어,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오전 시간의 강의를 녹화강의라면 자신이 가장 맑은 정신으로 온전히 집중하여 학습의 최대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파악하여 그때 듣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듣는 것이 당장의 학기에 수업을 듣는 것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런 습관이 자리 잡아 버리면 코로나 이후의 학교생활 또는 취업 이후의 규칙적인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고,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우리 모두에게 단점인 것을 나에게서는 장점으로 만들어 버리자는 다짐을 해보는 것이 개인이 발전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강의의 두 번째 특징은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인 것 같다. 강의를 쭉 듣고 나서 복습을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수업 시간 중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달라고 몇 번이고 부탁드리는 것은 다른 학생들 눈치도 보이고, 교수님께도 죄송한 마음도 들 때가 있었는데, 온라인 강의를 통해 그런 점들을 극복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강의 내용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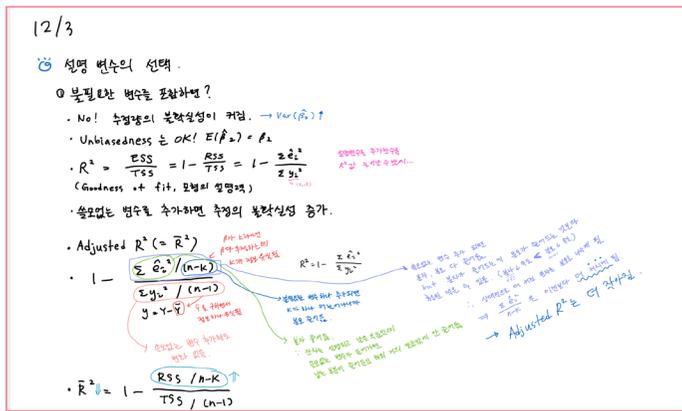
온라인 강의의 세 번째 특징은 소통과 관련된 것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온라인 강의로 인해 대면으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강의를 들을 때보다 채팅창 또는 메일을 통해 교수님과 소통하기에 더 좋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대면 수업에서는 내성적인 성격이라 많은 사람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려웠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 온라인 실시간 강의에서는 교수님께 질문을 하거나 교수님의 질의에 답하는 것이 조금 덜 어려웠다. 소통의 창구가 온라인뿐이다 보니 메일을 통해서도 교수님과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교수님께 메일을 통해 질문을 드릴 수 있었다. 이 장점을 활용한 나의 전략은 ‘소통의 창구를 잘 활용하여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얻자’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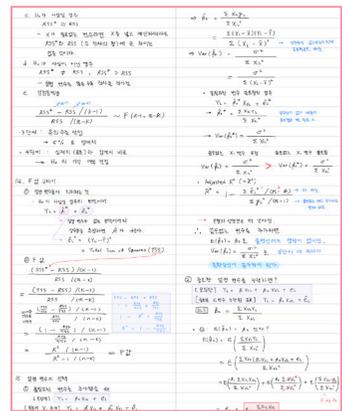
[교수님과 주고받았던 메일의 예시]

세 번째 전략은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노트필기’이다.

강의 시간에 정말 열심히 필기를 하고, 부듯해하며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강의 시간에는 사실 깊이 생각하며 강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머릿속에 완전히 저장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시간에는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시는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받아 적고, 강의가 끝난 후에는 수업자료와 받아 적은 필기를 함께 읽고, 비교해가며 내가 필기한 것을 의심해보며 다시 정리를 하면 좋다.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적는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물론 있다. 그런데 나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가끔은 교수님께서 농담처럼 해주시는 이야기도 강의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때가 있다. 만약 강의 시간 동안 무얼 필기해야 할지 구분이 잘 가지 않는다면 되도록 많이, 최대한으로 필기한 후 다시 복습하며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복습하는 과정에서 다시 필기를 정리할 때에는 오류가 없는 노트 정리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말하였듯 필기에 대해 의심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는 교재와 인터넷 검색(인터넷 검색에서는 블로그와 같은 개인의 의견을 적은 글보다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을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고서도 확신이 없을 때는 교수님께 꼭 다시 여쭙보아 확실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놓는 것이 가장 좋다. 강의 시간에 한 필기를, 복습을 하는 과정에서 한 필기는 첨부한 사진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수업시간에 빠르게 필기하기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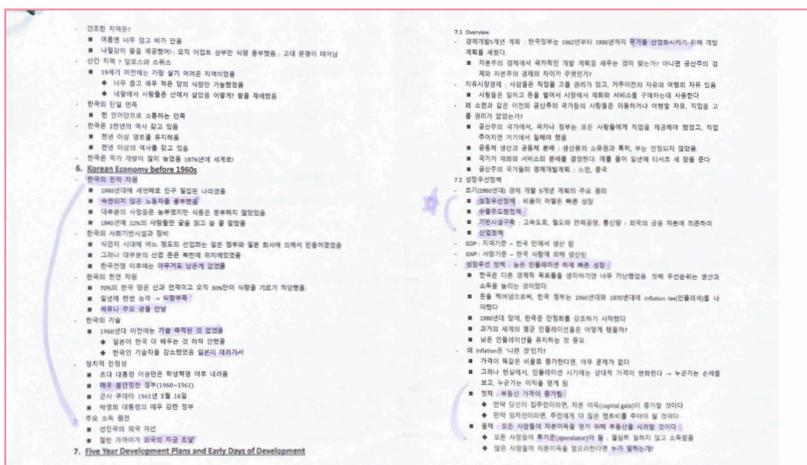


[복습 노트 정리 예시]

또한 노트필기에 있어 중요한 것은 강의의 특성에 맞게 노트 필기 방법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2020학년도 2학기 동안 내가 들었던 강의를 예로 들어 필기 방법을 설명해보자면, 교수님께서 직접 제공해주신 PPT 강의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PPT 자료를 따라가며 자료에 적혀있지 않은 부분, 또는 자료만 보게 되면 나중에 다시 보았을 때 혼자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에만 필기를 하였다. 또, 강의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오롯이 교수님의 말씀만이 강의자료인 강의에서는 노트북을 활용하여 말씀하시는 것들을 키워드 위주로 빠르게 타이핑하여 필기를 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판서를 해주시는 강의에서는 판서를 따라가며, 거기에 나만의 필기를 더하는 방식으로 필기를 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중에 다시 보았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생각하며 필기를 하는 것인데, 만약 이렇게 강의특성에 맞는 필기방법을 고려하는 것 또는 내가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어렵다면 앞서 말했듯이 거두절미하고 최대한 많이 필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 전략은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양의 공부를 하는 시험대비’이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정말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을 쌓는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나 같은 경우 최대의 목적은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었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하면 다른 것들도 그에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이다. 나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은 욕심이 많아서 학기 중에 강의도 듣고, 알바도 하고, 전공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공부해보며, 학기 중 정말 많은 일을 하면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많은 양의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네 번째 전략을 위해서는 세 번째 전략인 ‘노트필기, 정리’는 꼭 필요하다. 노트 정리가 잘 되어있으면, 시험 대비는 완벽히 된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그래서 노트 필기를 정리할 때에는 ‘시험을 대비해서 이것만 알면 된다!’는 내용을 담는 것이 필수다. 시험 대비를 할 때는 정리해놓은 이 노트를 반복해서, 적어도 세 번 이상은 읽고, 첫 번째 읽을 때에는 키워드를 형광펜으로 칠하며 읽고, 이후 전체적으로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며, 시험 직전에는 키워드 중심으로 빠르게 훑으면 좋다.



[노트정리로 키워드 중심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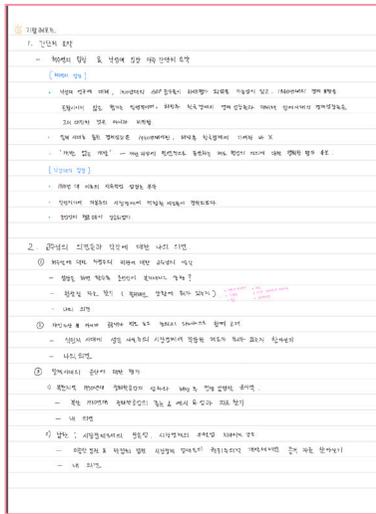
노트 필기를 할 때 수업의 방식에 따라 노트 필기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듯 시험 대비도 온라인 시험인지, 오프라인 시험인지 또는 오픈북 시험인지 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준비해야 한다. 온라인 시험일 경우에 시험에 응할 때 시험 당일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한 준비를 완벽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번 학기의 시험의 경우 '락다운 브라우저'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는데, 이런 프로그램 관련 문제가 시험에 방해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오프라인 시험을 볼 때에는 마지막으로 5분 정도 전체 내용을 훑을 수 있도록 잘 외워지지 않다가, 어려운 부분들만 담은 한 장을 준비하면 최종 점검에 도움이 된다. 오픈북 시험의 경우는 오픈북이기에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시험에 응했다가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다. 어느 위치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도는 꼭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시험 보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내용에 대해 숙지하면 더더욱 좋다. 필자의 경우, 녹화 강의 과목이 오픈북 시험이었는데, 시험 하루 전에 강의를 전체적으로 빠른 배속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오픈북 온라인 시험에 응하여서 큰 도움을 받았다.

또 하나의 시험 대비 팁이 있다.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예상하여 모든 가능성을 담은 예상문제지를 만들고, 그에 대한 나의 답안을 직접 작성하여 보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는 서술형에 대해서 완벽히 대비할 수 있다. 기본 원리를 담은 답안을 작성하여 보면, 실제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사전에 준비해본 예상답안을 활용하여 적기에 유용하다. 예상문제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면,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특별히 강조하신 것에 대해서부터 작성해보아도 되고, 더 좋은 방법은 기본적인 이론 관련 문제에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연습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단순히 키워드만 외우는 때보다 더 이해하며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첨부한 사진에서 예상 문제를 만드는 팁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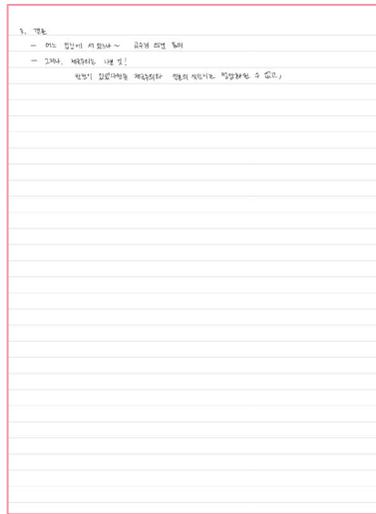
다섯 번째 전략은 '시작이 반이다 하고 외치며 작성하는 핵심곡곡 레포트 작성'이다.

항상 레포트를 작성함에 있어 제일 어려운 점은 너무 막막해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 지 모르겠을 때였던 것 같다. 이번 학기말고사가 비대면 원칙으로 바뀌고서는 기말 레포트만 6개를 작성했어야만 했지만, 그동안 쌓아온 레포트 작성 노하우로 빠른 시간 안에 핵심적인 내용은 전부 담은 효율적인 레포트를 작성하고, 좋은 점수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개요를 탄탄하게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개요 없이 레포트를 작성하다보면 꼭 필요한 내용을 담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담아 내용이 산으로 가는 일들이 발생하기 쉽다. 레포트 작성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개요는 서론, 본론, 결론 세 파트로 나누어 서론에는 레포트를 작성하게 된 배경, 또는 주제에 대해 레포트 작성이 필요한 이유 등을 담으면 좋다. 본론에서는 주장에 대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 또는 주제에 관련한 내용을 세 가지 이상을 포함하고, 예시를 포함은 필수다. 본론에는 논리적 결함이 없는지 작성 후 꼭 검토하는 것이 좋다. 결론에서는 전체 레포트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레포트의 한계점, 또는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의 '정리'의 느낌이 나는 내용을 포함하면 된다. 전공 분야에 따라 레포트 주제가 다르고, 내용도 다르겠지만, 큰 틀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요를 그 개요를 바탕으로 좀 더 살을 붙여 구체적인 글로 완성하면 된다. 여기서 팁은 글을 쓰다 보면

문장의 시작과 끝이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완성된 글은 꼭 처음부터 소리내어 읽어보며 문법적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레포트를 쓴다면 간단명료하지만 핵심적 내용은 들어가 있는 정갈한 레포트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식으로 항상 레포트를 작성해 왔고, 레포트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왔으며, 학교에서 진행되는 좋은 강의 에세이 공모전 등의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경험이 있다.



[개요작성예시(서,본론)]



[개요작성 예시(결론)]

레포트를 쓸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자료조사이다. 자료를 조사할 때에는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보다 많은 자료들을 보고 싶다고 하면 구글에 영어로 검색해 보는 것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알고 싶다면 한국어로 검색하는 것보다 ‘Household Debt to GDP for United States’라고 검색했을 때 더 많은 양의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도서관의 온라인 홈페이지에 원하는 자료의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학위논문이나 보고서 등을 참고할 수 있어서 유용하다. 이 점들이 나의 글을 보는 학우들 중 자료조사가 어려운 학우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지금까지 나만의 학습전략들을 소개해 보았는데, 짧게 요약해 해보자면, 첫째, 의지를 갖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 지키기, 둘째, 온라인 강의의 특성을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에게 맞추기, 셋째, 필기는 강의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것으로 소화했을 때 끝나는 것임을 알기, 넷째,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의 효율을 내어 시험 대비하기, 다섯째, 개요를 탄탄하게 세운 뒤 레포트 작성하기이다. 모두에게 이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 없겠지만, 각자에게 어려움이 있던 어떤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또한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급격히 변화가는 학습환경 속에서 우리 모두 최적의 학습 전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20년도 2학기
나만의 학습전략 공모전



반복하는 노력

생명정보공학과 허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3학년 2학기까지 생활하면서, 전공 과목, 교양 과목 등 배우는 범위가 많아져서 고등학교 때와 비교하면 좀 더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대학교 공부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왔는지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노트필기 전략

노트 필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필기를 한 부분을 봤을 때 정확히 알아보고, 어떠한 정보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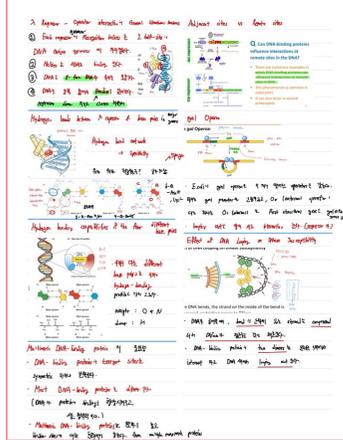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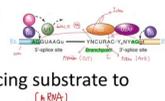
저는 1, 2학년 때는 수업 자료를 학술 정보원이나 제1과학기술대학에 있는 프린트 하는 곳에서 모두 프린트를 해서 형광펜과 볼펜을 이용하여 필기하였고, 3학년 때는 아이패드를 사용해서 필기했습니다. 두 방식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지만, 저는 아이패드가 있을 때가 훨씬 더 필기를 할 때 편안했고, 프린트도 미리미리 뽑을 필요도 없어서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방식은 직접 프린트를 했을 때랑 아이패드를 통해 필기한 방식은 차이가 없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아이패드가 훨씬 좋았습니다. 필기하는 것을 좋아하시거나 평소에 많이 필기를 하신다면 아이패드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림 1]을 보면 저는 필기를 할 때, 교수님의 말씀을 무작정 따라 적기보다는 교수님이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핵심 단어를 파악하고, PPT에 그 핵심 단어가 있다면, 초록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합니다. 노란색 펜으로 표시한 것은 단어의 뜻을 모를 때 표시를 하고, 뜻을 적어 줍니다. 또한, PPT에 없지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은 빨간색 펜으로 필기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검정색 펜으로 필기합니다. 수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Spliceosome assembly and function

❖ Spliceosome cycle

- Assembly begins with **binding of U1** to splicing substrate to form a commitment complex (CC)
- U2 joins the complex with help from **ATP: A complex**
- **U4-U6 and U5** join to form the **B1 complex**
- U6 dissociates from U4 and displaces U1 at the 5'-splice site
 - ✓ This step is **ATP-dependent** ① U6 to displace U1: ATP-dependent
 - ✓ Activates the spliceosome – **B2 complex** → spliceosome activation
 - ✓ Allow U1 and U4 to be released ② U2 & U4 to exit spliceosome
- C1 complex – separating the two exons/forming lariat splicing **intermediate** ③ U1 to free splice site with U2
- C2 complex – joining two exons/removing lariat-shaped intron
- I complex



[그림1. 수업시간에 필기]

[그림2. 시험기간 필기]

저는 별다른 일이 없으면 그날에 배운 수업은 그날에 복습하는 편입니다. 복습을 할 때는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과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하신 부분을 비교해가면서 필기를 수정합니다. 또한, 슬라이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참고 자료가 있으면 첨부해주어서 이해를 돕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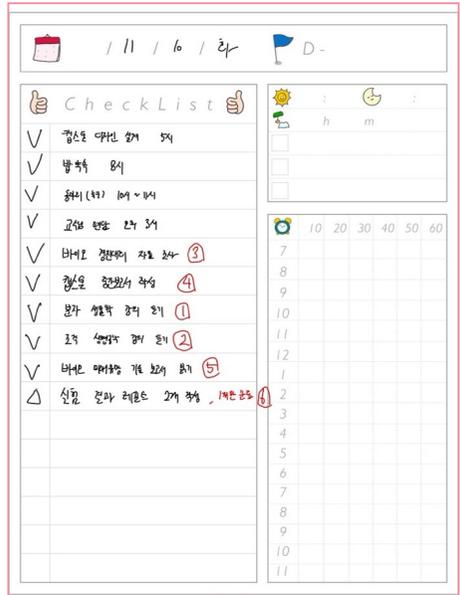
[그림2]는 제가 시험 기간에 시험을 위해 다시 한번 필기한 것입니다. PPT의 모든 내용의 파트별 소제목, 중요한 부분, 암기해야 할 부분, 참고해야 할 그림을 내가 이해한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평균적으로 PPT 120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노트 10장으로 함축되었습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 내가 필기한 노트와 PPT를 번갈아 가면서 보고, 약 5~10회 독하면서 모든 내용이 이해되고 암기될 때까지 공부한 후 시험을 칩니다. 이렇게 하면 공부를 시작하는 초반과 달리 후반 부에는 핵심 단어의 관련된 내용과 핵심 단어 사이사이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되면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효과적인 시간 관리 방법

대학교 생활을 할 때,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플래너를 작성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시간 안에 해야 하는 것은 시간까지 표시하고, 나머지 해야 할 것들은 하루하루 우선순위를 매겨서 우선순위로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대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술자리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과감하게 놀고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면 됩니다. 놀기 전에, 해야 할 것의 계획을 세우고 놀고 난 후 계획을 지킨다면 뿌듯해지고, 효과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자신이 얼마나 계획을 지키는지 알 수 있고, 반성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면서 자기 개발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1학년 때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노는 것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계속 플래너를 작성하고 반성하다 보니 해야 할 것을 끝내고 놀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시험 기간을 3주에서 한 달 사이로 잡고,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합니다. 복습한 것을 바탕으로, 아이패드에서 저만의 필기 방식으로 필기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시험 범위와 난이도(이해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과목별로 하루에 어느 정도 분량을 할지 정합니다. 분량을 정할 때는 과목 당 몇 시간을 하겠다고 정하기보다는 과목 당 어떤 챕터, 어떤 부분을 공부하겠다고 계획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과목 당 시간을 제한해서 공부하면 계획이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시간을 정해서 공부를 했지만, 공부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시간에 비해 이해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느껴서 공부 방법을 바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처음에는 시간이 잘 맞춰지지 않고 이로 인해 계획이 흐트러졌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맞게 계획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험치기 2일 전에는 단어를 보면 어떤 내용과 관련 있는 지 알 수 있는



[그림3. 플래너 작성]

정도입니다. 남은 2일 동안은 노트 필기한 것과 PPT를 보면서 모든 내용을 암기하는 수준까지 공부합니다. 매일 복습을 하고 시험 기간 동안 공부를 해도 과목별로 다르지만 전공 과목에서 어려운 과목들은 밤을 샌적도 있고, 시험이 9시면 2시까지 공부하다가 자고 일어나서 6시에 공부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하루에 몇 과목씩 시험을 칠 경우에 이런 경험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험 전에 아무리 공부를 다했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몇 번이라도 더 보고 자는 것이 나아서 시험치기 전날에는 어떻게 해서든 모든 내용을 알고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알려고 노력합니다. 대학교 학점은 어딜가서든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평생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힘들어도 일주일 정도는 투자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든 얻지 못하든 배우는 게 많아 성장한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효과적인 레포트 작성법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일주일마다 2~4개씩 레포트를 써야 합니다. 저는 실험 목적, 실험 이론, 실험 과정, 실험 결과 해석, 실험 고찰 순으로 레포트를 작성합니다. 실험 이론 부분에는 새로 알게 된 이론을 무작정 베끼지 말고, 자신이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적고, 실험 과정은 PPT를 참고하면서 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지 생각하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험 과정을 무작정 베끼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는 결과 해석과 고찰에서 오류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결과 해석 부분에는 실험을 통해 나온 결과의 사진을 첨부하고, 실험 목적에 맞는 실험 결과를 도출해 내고, 각 첨부 자료에 맞는 설명을 덧붙여 줍니다. 실험 고찰 부분에는 실험 과정에서 생긴 오류와 왜 오류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작성하고, 실험을 통해 알게 된 부분과 알고 싶은 부분을 조사해서 작성합니다. 이렇게 실험 레포트를 쓸 때는 실험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결과와 고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 이론, 과정도 중요합니다.

실험 레포트 말고도 레포트를 쓸 때에는 자신이 정확하게 전달하려는게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레포트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남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알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가 알고 있는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들 많이 때문에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레포트 작성할 때 단어를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공부하는 것도 레포트를 작성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효과적인 팀(study group) 학습 방법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풀이 스터디 그룹을 해 본 경험이 있고, 대학교에서는 KUS-TUDY의 경험이 있습니다. 스터디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두 함께 공부해오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조원들이 모두 공부를 다 해온 상태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정답에 대한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답이 나온다면 어떤 부분을 이해를 잘하지 못해서 오답이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풀이 방법과 오답을 찾아내는 능력을 기르게 되는 것이 스터디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스터디 그룹을 보면 1~2명이 스터디를 이끌어 나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스터디는 이해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스터디를 할 때에는 가만히 있지 않고, 모르는 부분을 바로바로 질문하고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하는 토론 형식의 스터디가 제일 스터디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토론을 하면 내 입장도 생각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집중을 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스터디를 할 때는 오늘 무엇을 할지 미리 정하고 만나고 모든 사람이 집중할 수 있게 1~2시간 정도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공부하는 습관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이러닝 학습법

최근 COVID-19에 의해서 대면 수업이 불가능하여,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의 이러닝은 크게 실시간 강의와 녹화 강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시간 강의를 들 때는 비교적 대면 수업과 비슷하기 때문에 교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지만, 녹화 강의를 들 때는 계속해서 미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비대면 수업 초기에 강의를 계속 미루게 되고 강의를 너무 많이 미뤄지게 되어서 시간표에 있는 시간에 올라오는 수업을 듣겠다고 계획했더니 강의를 미루지 않고 집중해서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수업을 듣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대면 강의를 하면서 좋았던 점도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전공 과목이 영어 과목인 경우도 많습니다. 영강의 경우에 주변의 학생들의 경우를 보면, 강의를 전혀 듣지 않거나 수업을 듣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뒤로 돌려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을 고민하다가 자동 자막 기능을 알 수 있었고, 강의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이해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 자막 기능을

활용해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동으로 영어 자막으로 영상에 나타나게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해를 도울 수 있었고, 영어 듣기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영어 강의를 한글로 자동 번역하는 것은 전혀 도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어 자막에만 의존하면 듣기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강의 영상은 절대 배포하면 안 되고, 녹화 강의는 다운로드하고 수업 듣고 바로 지워야 합니다!!)

끝맺음

대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학습 전략을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나만의 학습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나만의 학습법을 찾으면 공부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2학기

나만의 학습전략 공모전

장려상

- **외국인을 위한 학습 능력 신장 전략 -한국학 전공 중심으로-**
글로벌학부 한국학전공 FAN LECHENG
- **A+ 어렵지 않아요!**
응용수리과학부 데이터계산과학전공 김지원
- **의식의 흐름 레포트는 이제 그만, 복선 회수 레포트 작성법**
문화창의학부 미디어문예창작전공 오수민
- **아이패드 없이 아이패드처럼 공부하기**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임현웅
- **공부, 알고하자!**
경영학부 한대훈





2020년도 2학기
나만의 학습전략 공모전



외국인을 위한 학습 능력 신장 전략 -한국학 전공 중심으로-

글로벌학부 한국학전공
FAN LECHENG

목차

- I.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공부
- II. 언어 능력과 학업 생활
- III. 전공과목 학습

I.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공부

대부분 학문 목적(진학하기 위한) 한국어 학습자들은 1년, 또는 2년 동안 집중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통합 과정을 마친 후에 바로 대학교나 대학원에 입학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짧은 기간 안에 한국어를 배우고 훈련하는 것은 외국인에게 능숙하게 한국어를 사용하여 학업을 수행하게 하기는 매우 어렵다. 마치 제2 언어 습득과 관련된 연구에서 다루어 왔던 것처럼 14세 전과 후에 학습자 자신의 언어 능력이 변화되어 뒤로 가면 갈수록 새로운 언어 습득하기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현재 학문 목적 학습자는 절반 이상 다 20대 성인인데 물론 인지적 능력이 발달되어 있지만 선천적 언어 습득 능력이 많이 없어졌으므로 단기간에 새 언어를 습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학생으로서 나는 내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자원을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다음으로 활용할 만한 자원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언어 환경이다. 제2 언어 학습 이론에서는 아이가 모국어를 습득할 때 일정한 언어 환경에서 충분한 언어 입력을 받아 웅알이부터 점점 정확한 발화로 산출하는 것과 똑같이 외국인 학습자에게도

언어 환경이 몹시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외국인 학생이 활용할 만한 첫 번째 자원으로서 한국 학생이나 교수자와 소통할 때, 수업을 들을 때,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사거나 교통편을 이용하거나 주문하거나 여행할 때 우리가 듣거나 읽었던 내용에서 우리의 한국어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매우 많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경우에 한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더 자세히 따지면 어떤 어휘나 문법을 어떤 구조로 말을 하는지 등에 대해 항상 신경 써야 우리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한국어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외국인으로서 우리가 항상 어떤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거나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 자체에 무게를 더 두고 다른 요소에 무게를 덜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가급적 주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의식적으로 신경 쓰면 좋을 것 같다. 환경을 중시하는 예로 발표를 들 수 있다.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학생 발표할 때 인사는 어떻게 하는지, 소개는 어떻게 하는지, 발표 전개는 어떻게 하는지, 마무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관찰하면서 배울 만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하여 나중에 발표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남의 발표를 들으면서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하려는 목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해한 것 가운데 발표에 관한 기술, 전략 등을 내재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뒤로 다룰 원어민 화자의 말과 행동을 본받는 것과 그 목표가 같다.

입력을 중시하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의 표현과 행동을 이해하고 우리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두 번째 자원은 사용과 관련성이 있다. 사실 이것도 환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용은 다른 요소 없어도 우리가 스스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그 문제이다. 외국어 습득 이론에서 학습자의 오류 분석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오류를 일으킨 요소 중의 하나로서 모국어 간섭의 영향이 크다고 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한국어 원어민 화자의 발화를 본받는 것이다. 모국어 간섭으로 학습자들은 자신의 모국어 구조에 맞게 한국어 어휘를 골라 말하기가 쉽다. 또한 한자 문화권 나라의 학습자들은 자신 나라 식의 한자어를 발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원어민 화자를 본받는 것도 구어뿐만 아니라 문어도 본받아야 한다. 학업 수행에서 보고서 쓰거나 전공과 관련된 글 읽기 등 활동에서 문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모르는 단어나 문장을 접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사전을 찾는 것인데 사전을 찾고 단어나 문장을 이해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받기도 역시 의식 갖고 해야 한다. 본받기가 습관이 돼 버리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본받아 말하거나 써 본 항목들은 나중에 의식 없어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I. 언어 능력과 학업 생활

지금은 공인된 한국어 능력 시험은 TOPIK이지만 이 시험은 일반 목적, 학문 목적, 직업 목적,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등 모든 학습자를 위해 서로 다른 학습 배경의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을 공통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시험이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그 영역에 대한 능숙도는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우리 학문 목적 학습자를 예로 논하자면 전공 수업을 듣거나 과제를 하거나 우리가 다루는 것은 사실 언어와 거의 관련성이 없고 다 전공 지식과 관련된 것이며, 또한 우리의 사고력,

학습 전략 등도 실제 학업 수행에서 자주 활용하던 것이다. 외국인에게 한국어는 전공을 다루는 과정에서 지식을 받는 매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매개, 문제를 해결하는 매개일 뿐이다. 이 매개는 영어도 될 수 있고 일본어도 될 수 있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어느 언어나 다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실현하는 전제는 원활하게 전공 지식을 다룰 수 있는 한국어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이 수준을 넘으면 흔히 이야기하는 한국어 능력이 학업 수행 능력과 큰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전공, 또는 어떤 수업에 대한 학습 능력 신장시키거나 기대한 성적을 얻으려면 수업 자체에 대한 고민을 간과하고 너무나 한국어 능력을 강조하면 결과가 정반대가 될 수도 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업 수행 능력이 한국어 능력과 큰 관련성이 없지만 그 전제는 학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일러야 하는 것이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면 학업을 수행하는 매개 자체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공을 들으면서 한국어 공부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1, 2 학년이었을 때 집중적 한국어 학습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새로운 학습 환경에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중에 가장 큰 지장은 교수자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 학생과 의사소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 많은 외국인 학생은 ‘처음 대학교에 들어와서 좀 어렵지, 시간 지나면서 많이 듣고 많이 해 보면 잘 될 거야’라는 생각을 갖기 쉽다. 많이 들으면 입력이 많아지고 축적된 언어 지식이 많아져 이해력이 향상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면에 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전공을 향하여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는다면 학업 수행 능력과 표현력이 절대로 향상되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인문 계열의 시험은 대부분 서술형 문항인데 하나의 개념을 서술할 때, 두 개의 개념을 비교할 때, 어떤 원리를 설명하거나 근거를 밝힐 때 사용되는 문형, 표현, 접속 부사, 문장 구조, 작게 보면 적절한 낱말, 어미, 조사 등은 전공 학습 과정에서 스스로 기억하고 본받고 보충 학습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교수자나 동기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충분히 이해해도 자신의 생각을 하나의 완전한 문장으로 구사할 수도 없을 것이다.

Ⅲ. 전공과목 학습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전공과목 학습 과정에서는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어 숙달도와 전공 지식 숙달도로 꼽을 수 있다.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위에 제시한 방법들이 효과적이지만 새로운 언어를 능숙한 것은 일조일식에 실현할 수 없으므로 많은 언어 입력과 산출을 통해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을 경험해 봐야 한다. 이와 달리 전공 지식 앞에서는 모든 학생이 다 비슷한 수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한국 학생에 비해 외국인 학생의 표현 능력이 좀 떨어지지만 이것은 일시적이고 어느 특정한 수준에 도달했으면 더 이상 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전공 지식 학습, 즉 내용에 대한 이해, 사고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학생이 선천적 약점이 없다는 자신감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 외국인 학생이 전공과목 학습에 있어서의 몇 가지 주의 사항을 논하고자 한다.(한국학 전공 중심으로)

팁: 사전에만 의지하지 말고 이해 먼저, 번역된 말만 암기하지 말고 원어부터 이해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공부했을 때는 사전을 자주 찾는 것은 능동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전공과목 학습에서는 이 전공을 다루는 사람들끼리만 활용하는 여러 전문 어휘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것이 많다. 따라서 나도 한때 사전을 열심히 찾으려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으며, 다른 동기에게서도 자기 전공과 관련된 많은 어휘가 사전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런 어휘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문 어휘로서의 줄임말, 이공 계열 좁은 범위에서의 기술 관련 어휘, 인문 계열 문화와 문학적 메타언어, 기존 한국어로 대체할 수 없는 외래어 또는 외국어가 있다. 여기서 주로 한국학 전공의 경우를 예로 논하도록 한다.

한국학 전공에서 우리가 접할 대부분 어휘는 국어/국문/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어휘들이다. 이 중에는 어휘의 어종 측면에서 따지면 한자어는 가장 많이 나타난 어종이다. 실생활에서도 한자어의 빈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따로 한자어 교육을 마련한 부분이 있고 심지어 한자 자체를 가르쳐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우선 어종을 따지지 않고 모든 낱선 어휘에 대해 먼저 사전을 찾는 것은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휘의 뜻을 알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어휘의 쓰임새도 알아야 하고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은 목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낱선 어휘를 접할 때 예문을 통해 그 어휘가 사용되는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이 방법은 특히 사전을 찾아도 안 나오는 어휘의 경우에 유용하다. 사전에만 의지하는 것이 습관화된다면 맥락을 통해 어휘 의미를 파악하거나 추측하는 능력이 훈련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많은 한자어의 경우에는 한자 문화권 나라의 학습자들이 어휘에 대한 부연 설명 조금 들으면 맥락에 따라 그 의미를 추측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나라마다 한자어를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어휘들은 짐작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때 번역된 말만 암기하지 말고 원어부터, 즉 한자 자체부터 그 의미를 이해해 보면 좋다. 한자어는 한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자는 표의 글자이므로 한자에 기반하여 한자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쉬워질 것이다. 그리고 원어, 또는 한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 한자어가 들어 있는 혼종어에 대한 학습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원어를 찾아 이해하는 방법은 외래어나 외국어의 학습에도 효과적이다. 특히 외래어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어휘들에 대한 학습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문법이나 문장 구조는 다음 문단에서 논하도록 한다.

한국어는 첨가어이고 어휘, 조사, 어미 등에 의하여 의미를 표현하는 언어인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한국어 중의 문법적인 요소들을 묶어서 덩어리 표현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때 조사와 함께 이런 덩어리 표현을 다 문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국어 지식을 접한 적이 없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문법’을 언급하면 그들이 떠올린 것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법, 즉 단순히 어휘와 대립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처음 국어와 관련된 수업을 수강하면 점점 한국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즉 발음은 음운론, 문법은 형태론과 통사론의 측면에서 한국어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어/여 보다’와 같은 종결 표현은 더

이상 하나의 문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각각이 어미와 보조 동사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논발’이라는 합성어는 더 이상 단순히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고 암기하지 말고 ‘논발’은 두 개의 어휘 형태소로 결합된 합성어로 봐야 한다. 이 외에도 한국어의 품사 체계를 당연하게 자신의 모국어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외국인에게 품사는 몹시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식을 먼저 바꾸어야 점점 학습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운론에서의 일부 음운 현상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항목이 되고 학습자에게 가르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한글 차원에서만 그 규칙을 가르치는데 실제로는 많은 음운 현상, 특히 ‘동화’의 경우에는 한국어 자음의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과 관련성이 있다. 다시 말해 개별적 한글 차원이 아니라 자/모음 체계 차원에서 음운 현상을 가르쳐야 학습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르치려면 학습자가 자/모음 체계와 관련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은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학 전공에 입학한 외국인 학생들은 음운론 공부할 때 자/모음 체계의 원리를 받아들여, 나아가 음운적 자질을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음운 규칙을 귀납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낯선 문법이나 문장 구조를 접할 때 개인적으로 역시 분석적으로 해당 내용을 찾아보고 이해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즉 어떤 결합된 표현이 나타났을 때 그 표현을 쪼개서 형태소 차원에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문법이라도 그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의 표현에 대해서는 개별 요소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전체 의미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학생들이 전공과목 학습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어 구사 능력일 수도 있지만 사실 자세히 따져 보면 전공 학습에 있어서 요구되는 국어에 대한 기초 지식과 전공을 다루는 데 필요한 풍부한 어휘량은 외국인 학생들의 취약점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인 학생들은 중, 고등학교 때 많은 적든 국어를 배워 본 적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한국학에 입학한 외국인 학생들은 대부분 처음 국어 영역을 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논했던 것과 같이 원활한 전공 학습을 이르기 위해서는 한국어에 대한 인식을 먼저 전환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또한 쉽지는 않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자료로 보충 학습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보충 학습 자료 얻기는 생각보다 쉬울 것이다. 도서관에 가서 어떤 책을 볼까 고민도 하고, 비교도 하고 다양한 책을 빌려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사실은 없고 교수자가 강의 계획서에 제시된 참고 도서나 자료를 찾아 공부하면 충분하다. 하지만 내가 내 주변 외국인 학생 친구들에게서 실제로 많은 학생이 강의 계획서를 읽지 않고, 읽어도 강의 내용 살펴보기에 중심 두는 것이 아니라 발표가 있는지, 과제가 있는지, 시험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하려고 보는 거라고 들었다. 또한 수업 강의 자료에 인용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의 원문을 찾아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때 우리 학교의 도서관 사이트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논문 검색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 아마 이를 언급할 필요성을 무시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데다가 있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

참고 도서나 자료를 자주 찾아 공부하는 일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문어 능력을 신장시키고 쓰기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2020년도 2학기
나만의 학습전략 공모전



A+ 어렵지 않아요!

응용수리과학부 데이터계산과학전공
김지원

고등학교와는 다른 대학 공부법

고등학교까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색하지 않았던 나는 대학에 올라와서 많은 혼란을 겪었다. 고등학교에서 단순 암기했던 내용을 대학에서는 증명해야 했고, 고등학교에서는 '계산'에서 끝이 났다면 대학에서는 '서술'해야 했다. 이런 '다름'에 한 번에 적응하지 못한 나는 결국 만족스럽지 못한 1학년 1학기 성적을 받았다. 그래서 1학년 여름방학 때 나는 나에게 맞는 나만의 공부법에 대해 고민했다. 그 고민의 결과는 나에게 꽤나 잘 맞았고 자연스럽게 성적 향상으로 이어졌다.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신입생들과 선배, 후배들을 위해 지금부터 나만의 공부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강의를 집중해서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1학년 여름방학 때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았다. 돌아본 결과,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바로 다른 아닌 '강의 집중'이다. 강의를 안 들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집중하지 않았다. 나는 강의시간에 100%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혼자 공부해서 100%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고등학교 때는 공부했었고, 그 방법이 통했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 같다. 첫 단추부터 잘 꿰지 못한 것이다. 교수님의 강의 시간만큼은 초집중해야 한다. 교수님의 강의 한마디 한마디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그때 즉시 해결해야 하며, 나중에 다시 보았을 때 같은 질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기록해 놓아야 한다. 교수님 강의 시간에 100% 이해한다면 과제를 할 때나 시험공부를 할 때 시간도 훨씬 단축되고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나 또한 1학년 2학기 때부터 교수님 강의를 정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때문에 과제 할 때 무리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며, 시험 대비 공부를 할 때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둘째, 효율적인 온라인 강의 학습법

2020년(2학년) 1학기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온라인 강의를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온라인 강의를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적응하면서 오히려 오프라인 강의보다 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복습이 필요한 부분은 한 번 더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 하나의 단점이 있다. 바로 강의를 밀리게 되는 것이다. 어떤 '강제성'이 없다 보니 나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도 아침엔 자느라 강의를 밀려 밤에 듣거나 다음 날 또는 다음 주까지 밀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강의부터 밀리게 되면 과제, 복습, 그리고 시험공부까지 모든 과정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강의를 제시간에 듣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강의를 제시간에 듣고 과제, 복습 등의 과정을 제때 하기 위해서 플래너 작성을 습관화하였다. 이때 플래너는 절대 화려하고 거창할 필요가 없다.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쁘게 쓸 필요도 없고 화려하게 꾸밀 필요도 없다. 나 또한 이쁘게 쓰려고 하지 않았고, 들어야 하는 강의와 과제, 그리고 따로 해야 할 일, 해야 하는 공부 등을 적어 놓고 했는지 여부만 표시하였다. 플래너를 꾸준히 쓰다 보면 쓰는 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다. 과제 범위 등도 함께 써놓으면 편리하게 과제를 할 수 있다.

The figure shows two examples of student planners. Each planner is a grid with columns for 'Date' (연월일), 'Time' (시간), and 'Subject' (과목). The left planner shows a weekly schedule with tasks like '강의', '과제', and '준비' marked with checkmarks. The right planner shows a similar schedule with more detailed notes and checkmarks.

[그림 1. 플래너 작성을 통한 체계적인 시간관리]

셋째, 과제는 최대한 빨리하자!

과학기술대학 특성상 거의 모든 과목에서 과제가 매주 나오기 마련이다. 과제가 거의 일주일에 4개~5개 정도 나오고 과제 범위부터 과제 제출 기한까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플래너에 범위와 기한을 잘 적어 놓고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나는 과제를 그 주 해당 과목 수업이 끝난 직후에 하는 것을 강력 추천한다. 나도 작년 1학년 때에는 과제를 제출 기한에 맞추어서 아슬아슬하게 제출했었다. 하지만 강의를 끝난 직후에 과제를 하면 내가 오늘 수업을 100% 이해했는지 확인해볼 수 있고, 복습이 될 뿐만 아니라 머릿속에도 기억이 더 오래 남게 된다. 그리고 제출은 과제를 마친 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 기한쯤에

제출하면서 한 번 더 훑어보면 머릿속에 오래 남고 120%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예와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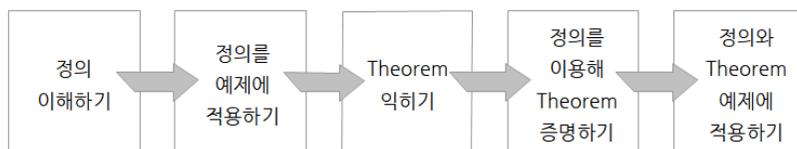
Ex) “선형대수학” 강의 : 월요일 2시간, 화요일 1시간, 제출기한 금요일 자정

- ① 선형대수학 월요일 강의 제때 듣기
- ② 선형대수학 화요일 강의 제때 듣기
- ③ 화요일 강의 끝난 날 해당 범위 과제하기
- ④ 금요일 제출하기 전 한 번 읽어보고 제출하기

하지만 과제를 하다 보면 분명 어려운 문제, 틀린 문제, 함정이 있는 문제, 실수한 문제, 모르는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다. 이는 꼭 해결해야 한다. 과제 문제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높고 내가 강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과제를 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꼭 다른 눈에 띄는 색으로 표시해놓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조교님의 연습 강의(풀이)를 보면서 내가 실수한 부분이나 틀린 부분 또한 눈에 띄는 색으로 표시해 놓아야 한다. 내가 몰랐던 부분이나 실수한 부분은 시험에서도 똑같이 실수하거나 모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표시해 놓으면 시험 전에 공부하기 훨씬 수월하다. 나 또한 과제는 검정색 펜으로 하고 과제를 하면서 주의할 부분은 파란색 펜으로, 조교님 설명을 듣고 새롭게 안 부분은 빨간색 펜과 초록색 펜으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 눈에 띄는 색깔로 표시해 놓은 부분만 한 번 더 읽으면 시험 때 내가 실수 했던 부분에서 그 필기를 떠올리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넷째, 공부는 속도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공부는 절대 빠르게 할 필요 없다. 나는 천천히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 나만의 단계를 만들어서 공부했다. 이 과정은 전공마다 다를 수 있지만 나는 수학 과목이 주를 이루는 데이터계산과학과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과정에 따라 학습을 진행하였다. 과정을 만들어 한 단계씩 공부하면 보다 체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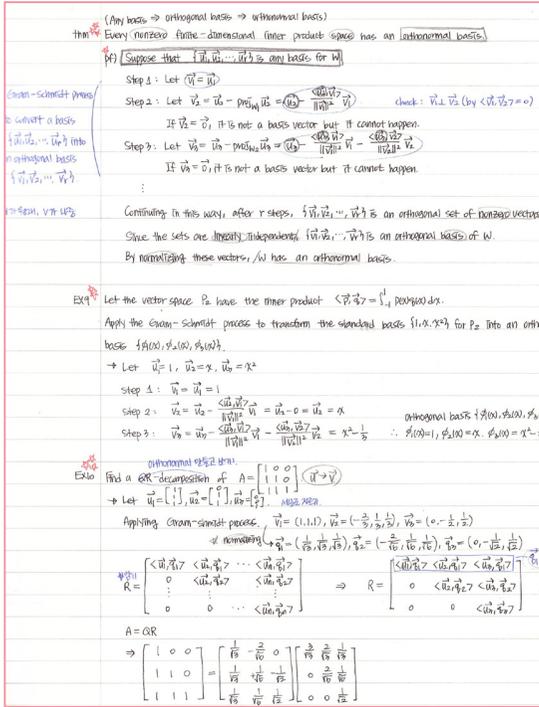


[그림 2. 내 공부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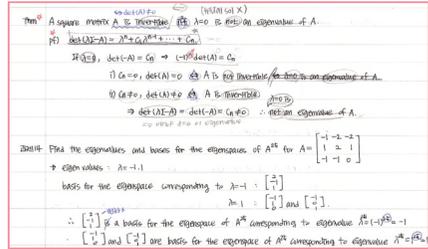
다섯째, 요점정리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공부와 복습 과제를 진행했다고 해도 시험 전에는 추가로 공부를 해야만 한다. 나는 이때 내가 직접 요점 정리를 하고는 한다. 많은 친구가 시험 직전에 책을 보고는 하는데, 나는 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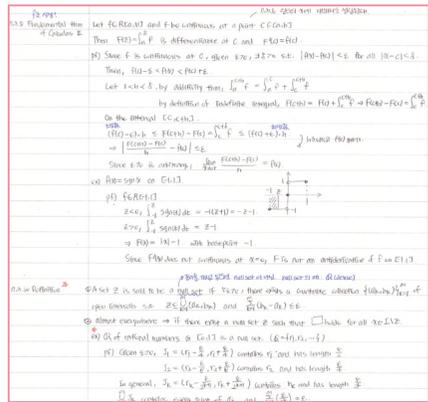
정리한 요점정리를 본다. 처음에는 나도 책을 보고는 하였는데 책에 있는 표현이 어렵거나 복잡하면 내 머릿속에도 안 들어오고 이해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내가 요점정리를 하면 책에 있는 내용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기억할 수 있고 머릿속에 사진처럼 기억에 남는다. 요점정리를 하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게만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림 3. 선형대수학 II 요점정리]



[그림 4. 선형대수학 II 요점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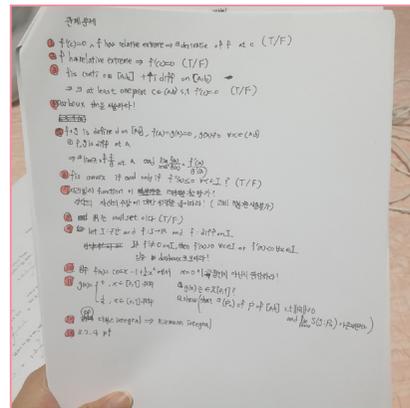
[그림 5. 해석학 II 요점정리]

여섯째, 예상 문제 보기!

마지막 단계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교수님이라면, 내가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를 낼 것 같은지 예상하여 예상 문제를 내 보는 것이다. 평소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셨던

- 6.1: 6.1.2 증명과 역이 성립하는지. 반례
- 6.2: 6.2.7 증명
- 6.3: 6.3.2 증명 또는 로피탈 적용 예시
- 6.4: 6.4.1 테일러 피오렘 statement적고 Remainder 찾는과정 서술
- 7.1: 리만 인테그럴 def + 예제 (Thomae's function)
- 7.2: 7.2.1 증명 또는 Dirichlet Function
- 7.3: 유리수가 null set 임을 보이기 또는 continuous almost everywhere 을 이용한 Dirichlet/Thomae's function
- 7.4: 7.4.11
- 7.5: 과제문제!
- 8.1: 8.1.10 증명
- 8.2: 8.2.4 증명

[그림 6. 내가 뽑은 예상문제]



[그림 7. 친구가 뽑은 예상문제]

부분이나 과제를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을 활용해서 문제로 만들어 보거나 내가 응용해서 문제를 만들어 보아도 좋다. 특히 예상 문제를 뽑는 것은 친구와 함께하면 적중률이 더 올라가기 마련이다. 물론 실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맞힐 확률은 드물지만 친구와 내가 둘 다 예상만 문제라면 나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상문제를 뽑아서 풀어보는 시간은 꼭 가졌으면 좋겠다.

마무리: 나만의 학습 전략을 찾자!

나의 학습 전략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① 강의가 제일 중요하다. 강의를 초집중해서 듣자!
- ② 강의를 밀리지 말고, 플래너 작성을 통한 체계적인 학습을 하자!
- ③ 과제는 강의 끝난 직후 하자!
- ④ 공부는 단계별로 천천히 하자!
- ⑤ 나만의 언어로 요약정리를 하자!
- ⑥ 친구와 함께 예상 문제를 뽑아 풀어보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오면서 나처럼 많은 혼란을 겪은 분들이라면 꼭 이 공부법을 실천해보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맞는 학습 전략이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자신의 공부법을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학습 전략을 찾아내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익히면서 자연스럽게 성적도 올랐다.

▶ 누계 성적							
년도	학기	전공신청학점	전공취득학점	총평점(증명용)	평점평균(증명용)	평점평균(전체)	환산점수(증명용)
2019	1	19	19	73.5	4.08	4.08	95.2
2019	2	22	22	84	4.42	4.42	99.1
2019	겨울계절	2	2	8	4	4	94.3
2020	1	18	18	81	4.5	4.5	100

[그림 8. 학습 결과]

성적이 오르는 것을 보면서 내 공부 방법에 확신이 생겼고, 이제는 자신감 또한 생겼다. 아직 자신의 공부법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꼭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보고 그 방법을 익혀 보기를 바란다!



2020년도 2학기
나만의 학습전략 공모전



의식의 흐름 레포트는 이제 그만, 복선 회수 레포트 작성법

문화창의학부 미디어문예창작전공
오수민

대학생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는 과제가 바로 레포트입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대체하는 과제 혹은 수시과제로 레포트를 적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이 코로나로 인해 온택트 열풍이 지속하면서 일반적인 시험이 취소되고 레포트 대체 과제로 바뀐 경우도 많았을 텐데요. 그때마다 적게는 1~2장 내외 많게는 10장이 넘어가는 소논문 분량을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밀려오는 레포트 대홍수 속에서 잘 버티셨나요? 저는 2020년에 작성한 레포트 개수만 해도 15개가 넘어갑니다. 가끔 레포트를 쓰다 보면 내가 적고 있는 문장이 맞는 말인지, 오류는 없는지, 주석은 잘 달고 있는지 걱정이 물밀 듯이 밀려오지 않나요? 결론을 적다가 다시 서론을 확인해보면 똥판지같은 이야기가 적혀있지는 않았나요?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저는 미디어문예창작전공에 재학 중이며 한국사학과 복수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인문학도로 학과 특성상 무언가를 외워서 치루는 암기 형식의 시험보다 생각을 정리하고 서술하는 레포트 과제가 많았습니다. 여태까지 제출한 소설, 비평, 발표문을 포함한 수십 개의 레포트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아왔고 대부분의 과목에서 평균 A 학점을 받았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죠. 우리의 마음가짐은 '복선 회수 레포트 작성법'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의식의 흐름에 의존한 레포트가 아닌, 서론에 부린 복선을 본론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회수하는 수미상관, 기승전결 레포트를 써보도록 합시다.

복선 회수는 커녕 뭘 적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목란은 가제. 적은 내용이라고는 학번, 학과 그리고 이름이 전부. 당장 마감이 코앞인데 첫 줄을 적지 못해 같은 말만 썼다 지우기를 수십 번.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가제로 남겨둔 제목? 심심해서 틀어둔 노래 플레이리스트? 그것도 아니면 쉴 새 없이 울려대는 핸드폰 알람? 전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적어야 하는 레포트의 내용을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레포트를 적기 이전에 간단한 자료 조사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경주 원성왕릉'에 대해 써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주어진 주제는 '경주 원성왕릉' 하나였죠. '누가 건축했고, 가로세로가 몇 미터이고, 어느 왕 때 지어졌다' 같은 내용을 적기에는 인터넷에 검색 몇 번만 해도 알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접속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대학교 도서관' 페이지입니다. 뭘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뭘 적어야 하는지 알아가는 게 첫 단계입니다. 자고로 도서관은 무한의 보고입니다. 직접 도서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플러그 하나만 꽂으면 무한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궁금한 정보를 찾으며 흥미로운 내용과 알아보고 싶은 내용을 연결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논문과 참고 문헌을 몇 개 찾아보고, 백지 혹은 빈 한글 파일을 열어 대략적인 내용을 늘어놓으세요.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어의 형태여도, 문장의 형태여도 상관없으니 일단 중요하다 싶은 정보나 꼭 쓰고 싶은 자료 사진만 따로 모아두어요.

그러면 무엇을 써야할지 가닥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저는 '경주 원성왕릉'에 대해 조사하다가 당시 신라가 '샤머니즘 신앙'이 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성왕릉과 샤머니즘 신앙의 관계에 집중한 내용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당장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관련 정보 혹은 주변 정보를 찾아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답니다.

목차 = 나침반

앞서 중구난방으로 정리해두었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이번엔 어지러이 흐트러진 내용을 질서 있는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보통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 표지를 본 후 무엇을 보시나요? 저는 종이를 두어 장 더 넘겨 목차를 확인합니다. 이 책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어떤 생각을 풀어낼지 궁금하기 때문이죠. 만약 담고 있는 이야기와 풀어내는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파악했다면 아무것도 모른 채 글을 읽는 것보다 독해에 도움이 된답니다. 이런 점은 우리의 레포트를 읽는 교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평가를 위해 수십 개의 글을 보시는 만큼 짜임새 없는 글처럼 보기 싫은 글은 없답니다.

목차는 교수님 말고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되어요. 모험가가 길을 떠나기 전에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지도를 펼치고 목적지를 표시한 후 나침반을 꺼내어 그 위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방향을 설정하고 경로를 설정하죠. 이처럼 올바른 방향과 경로를 설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옛날 사람들은 길을 잃지 않기 위해 하늘의 나침반, 북극성을 따라가기도 했어요.

레포트의 목차는 그들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중간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도 설정해둔 목차를 보며 다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샤머니즘 신앙으로 바라보는 경주 원성왕릉'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삼국 시대의 여러 신앙을 소개할 수도 있어요. 토테미즘, 애니미즘 등을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말이죠. 그때 목차를 다시 살피게 되면 이후의 이야기가 오로지 서머니즘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내용을 벗어난 이야기를 피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목차는 어떻게 설정할까요? 일단 한글 파일의 입력 - 도형 - 글상자를 활용하여 ‘글자처럼 취급’으로 개체 설정을 바꿔주신 후, 중앙에 정렬해주세요. 그 후에 글상자 안에 본인의 편의에 따라 장과 절 단위로 나누면 되어요. 문단 번호를 보다 쉽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ctrl+k+n을 누르면 뜨는 ‘문단 번호’ 단축키를 활용하면 된답니다. 문단을 줄이고 키우는 방법은 ctrl을 누른 상태로 +와 -로 변경하면 된답니다.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

좋아요. 쓸 내용도 생겼고, 대충 갈피도 잡았어요. 이제 내용을 나눌 차례예요. 레포트에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이 들어가야 한다는 정도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수십 번은 더 배운 내용입니다. 서론은 읽는 이로 하여금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내용을 배치하고, 본론은 적절한 의견 전개와 함께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은 앞의 내용을 총망라한 이야기를 서술하라고 하였죠. 그렇다면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를 보다 흥미롭게 이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수님마저도 우리의 레포트에 빠져들게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1) 서론

우리가 배워왔던 이론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읽는 이로 하여금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내용을 배치하고, 주제가 되는 이야기를 흘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소설을 가리는 신춘문에 심사에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문단을 읽고 재미가 없으면 버려라.’라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누군가가 글을 읽을 때 처음 읽게 되는 그 문단이 글 전체의 첫인상을 좌지우지하기 마련입니다. 각각각색의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것보다도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한 문장을 선택하세요.

- 1) 대한민국은 복잡한 세계 정계 속에서 존재한다.
- 2) 원래의 우리는 기세등등한 호랑이 한 마리였다.

어떤 문장이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하게 만드나요? 저는 2번 문장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문장 선택은 생각보다 다음 이야기를 풀어낼 때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1번의 경우 딱딱한 정치 이야기만을 표방한다면 2번의 경우 ‘호랑이’라는 비유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답니다. 실제로 제가 썼던 레포트 내용에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 이빨 빠진 정도가 아닌 허리 한가운데가 뚝 끊어진 반(半)호랑이가 되었다. 38선은 휴전선일 뿐이다. 모자람 없어 보이는 국가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전쟁국이다.’라고 적은 후 ‘옛날 기세를 들어내며 자유로이 꼬리를 흔들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황안(黃眼)을 통해 어느 땅이든 활개 쳐야 한다.’라고 서술했답니다.

문장과 문장은 서로의 인과가 되어야 합니다. 1번 문장 뒤에 나올 내용은 반드시 1번 문장과 3번 문장을 이어줄 수 있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을 한 문단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1번 문단의 다음 문단은 3번 문단과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문단이 모여 하나의 글이 되고 논리적인 레포트가 완성되는 것이죠. 이 작업을 서론부에서 잘 적은 문장 하나로 어느 정도 잡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본론

다음으로 본론인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서술하는 레포트의 바디(body)입니다. 서론을 헤드(head) 그리고 결론을 풋(foot)으로 본다면 바디에 해당하는 본론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자면 우리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장 많이 늘어놓을 수 있는 곳이 '본론'이라는 것입니다. 서론과 결론과는 확실히 다른 결을 가진 곳이 본론인데요. 이곳에서 바로 앞서 설정해둔 목차가 아주 요긴하게 쓰입니다. 두서없이 시작하는 이야기가 아닌 일정한 체계에 맞춘 내용을 하나씩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설득적이고 깔끔함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우리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단순히 줄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합니다. 모형을 들고 가기도 하고, 발표 자료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표정과 손짓, 발짓 그리고 목소리로 설득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방법은 사용할 수 없으니 우리는 레포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통계 자료나 이미지 활용입니다. 경주 원성왕릉이 어떻게 생겼는지 백 단어로 묘사하는 것보다 이미지 사진 한 장을 첨부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깔끔합니다. 백 마디 말로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율을 설명하는 것보다 코로나 확진자 월간 증가율 도표 자료 하나를 첨부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차고로 레포트는 우리가 새롭게 알아낸 내용이나 생각을 풀어내기 위함도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읽는 이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글에서 중시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3) 결론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head에서 설계를 마쳤고, body가 열심히 준비를 마쳤다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foot을 움직일 때입니다. 우리는 이때 '헨젤과 그레텔 기법'을 활용할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의식의 흐름으로 적어가는 레포트가 아닌 복선 회수 레포트를 적어보자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결론을 잘 적어야 합니다.

서론은 설계도면을 짠 부분인 만큼 곁핍기로 지나간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결론에서 보다 명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지요. 그 내용은 앞서 서술한 본론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제 '헨젤과 그레텔 기법'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해가 가시나요? 결론은 새로운 내용을 적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서술했던 내용을 조금씩 주워 와서 하나로 이어붙이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쓰인 레포트는 서론과 본론 그리고 결론까지 밀도 있는 짜임새로 밀착되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의 틀을 유지한 채 잘 짜인 체계처럼 보입니다.

완벽한 레포트를 쓰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승전결을 갖춘 완벽한 서사 구조의 레포트를 적는 건 방법만 알면 누구나 시도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뿌려두었던 씨를 다시 거둘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값진 일입니다. 서론에서 뿌려두었던 씨앗이 본론을 지나면서 잘 자란 곡식이 되어 결론에 도착하여 수확할 수 있게 된 셈이니까요.

히사기노 게이고의 추리 소설이나 셜록 홈즈 혹은 명탐정 코난을 보다가도 완벽한 추리 서사가 나올 때 소름 돋은 적 있으셨나요? 꼭 추리/미스터리 장르가 아니더라도 잘 짜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완벽한 복선 회수가 이뤄질 때 쾌감이 느껴지기도 하죠. 이러한 방식을 레포트에 적용해보는 건 어떠세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레포트는 단순히 과제물이 아니라 하나의 창작물이랍니다.



2020년도 2학기
나만의 학습전략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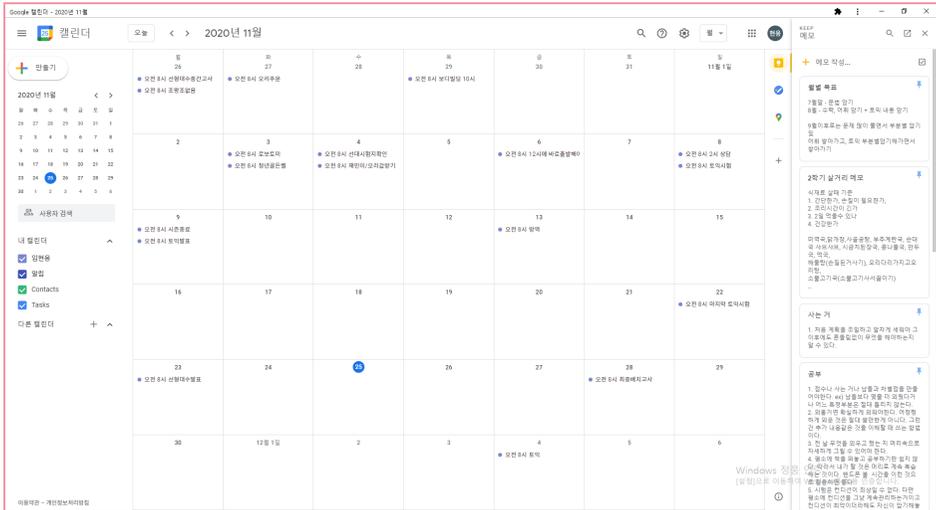
아이패드 없이 아이패드처럼 공부하기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임현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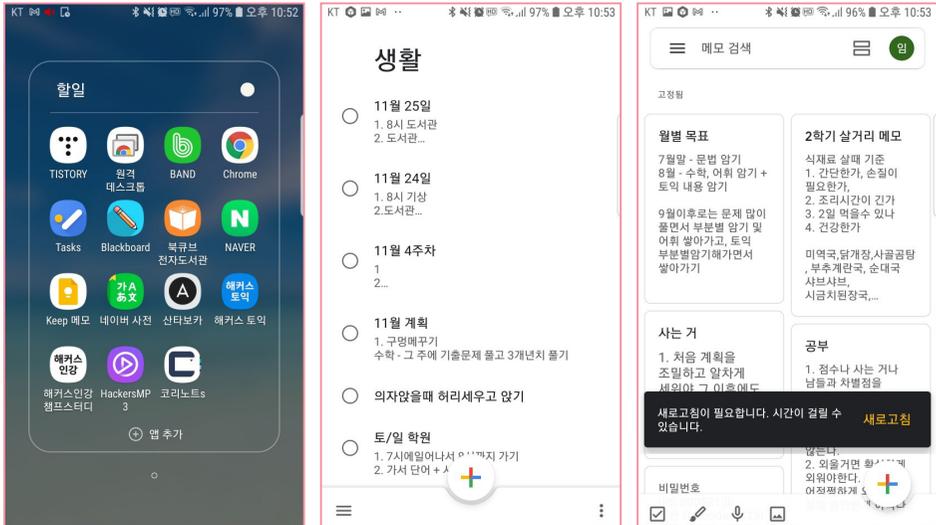
많은 학생들이 아이패드 등 전자기기를 통해 필기를 하고 영상을 보는 등 공부를 하곤 합니다. 특히 아이패드는 필기, 영상, PPT 사용에 용이하며 일반 책과 달리 가벼우며 편합니다. 하지만 아이패드를 사용한다고 모든 학생이 성적을 잘 맞는 것도 아니며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아이패드의 장점을 가져올 수만 있다면 굳이 아이패드가 없더라도 공부를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 이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글의 구성은 1. 시간관리 방법, 2. 필기 작성법, 3. 팀 학습방법, 4. 이러닝 학습법, 5. 나만의 노트 필기법으로 구성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준비물은 스마트폰과 데스크탑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 근처에서 있는 학생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관리 방법입니다. 아이패드에는 쉽게 캘린더를 꺼내 쓸 수 있으며 자동으로 알림이 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아이패드에서만 사용 가능한 기능이 아닙니다. 모든 폰에는 캘린더를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아이패드보다는 사용량이 훨씬 많은 스마트폰에서 유용합니다. 그중에서도 구글 캘린더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구글 계정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 계정의 로그인도 구글로 할 수 있습니다. 구글 캘린더는 학교 계정이 연결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과제의 제출기한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구글 캘린더는 다른 어플과의 사용이 용이합니다. 그 중에서도 Task 와 Keep은 캘린더 바로 옆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학교 시간표를 저장하며 어떤 일을 해야할지 정리하기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호환 또한 문제가 없습니다.



[사진 1. 구글 캘린더 안의 Task, Ke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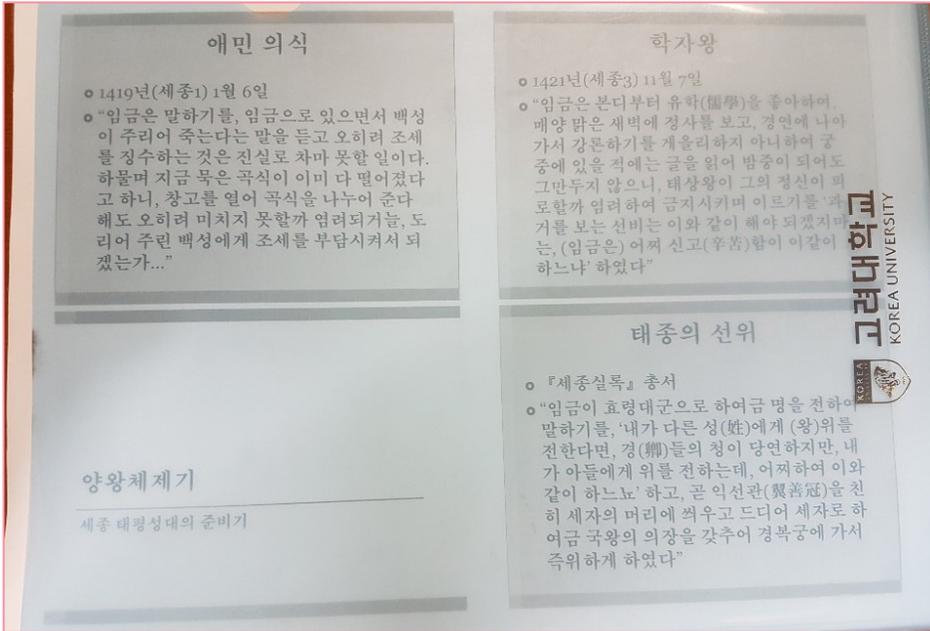


[사진 2. Task, Keep 어플]

이렇게 구글 캘린더와 Task, Keep을 사용해 매일 할 일등을 작성하고 수시로 찾아본다면 쓸데없는 시간이 낭비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필기 작성법입니다. 아이패드에는 여기서 굉장한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어플로 필기를 PPT 위에 바로 할 수 있으며 보기에도 편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 학생들은 그렇게 사용하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PPT를 교재처럼 사용하시는 수업의 경우에는 많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히려 아이패드와 다른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PPT를 프린트해 책처럼 만들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말 단순한 방법이지만 아이패드와 다른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ebook이 상용화되었음에도 서점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ebook은 물론 들고 다니기 편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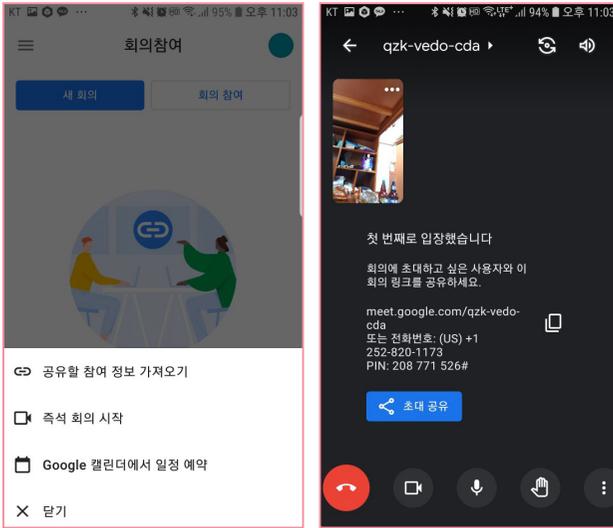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실체가 없기에 소유욕을 채워줄 수 없고 애정을 붙이기 쉽지 않으며 오래 볼 경우 눈이 피로해 길게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공부는 짧은 시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편해야 하며 그 과목에 대한 애착이 필요한 법입니다. 따라서 PPT를 프린트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이패드와 비해 다소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공부에 있어서는 알맞은 형태인 것입니다. PPT를 프린트할 곳이 마땅치 않다면 동기들과 프린트를 공유해서 사는 등이라면 부담도 적고 자신만의 프린트가 생김으로써 다른 활동을 할 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프린트할 때 한 면에 한 슬라이드를 담기 보다는 4개씩 한 면에 담아 많은 PPT를 보고 연결해서 필기한다면 아이패드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3. 조선왕조실록의 4면 슬라이드 PPT 프린트 필기]

세 번째로는 팀 학습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상황이 지속되며 팀플을 대면으로 하기보다는 비대면으로 화상통화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만큼은 아이패드는 화면이 크고 유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숙사에서 거주하며 데스크탑이 있다면 입장은 조금 달라집니다. 특히 팀플을 하게 되면 마이크가 필수이기에 밖에서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기에는 쉽지 않으며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아이패드의 유용성은 현재 필요 없는 기능으로 전략해버립니다. 결국에는 화면이 크고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데스크탑이 팀플에서 유용합니다. 또한 어플 중에서도 줌, 블랙보드가 많지만 저는 구글 Meet를 이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줌, 블랙보드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구글 Meet는 구글 아이디만 있다면 별다른 필요 없이 새 화상회의를 만들고 링크를 상대방에게 주어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팀플을 진행할때에는 계속 화상통화를 진행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대면일 때는 크게 상관없었지만 비대면에서는 회의에 집중하기 힘들며 기기의 문제 등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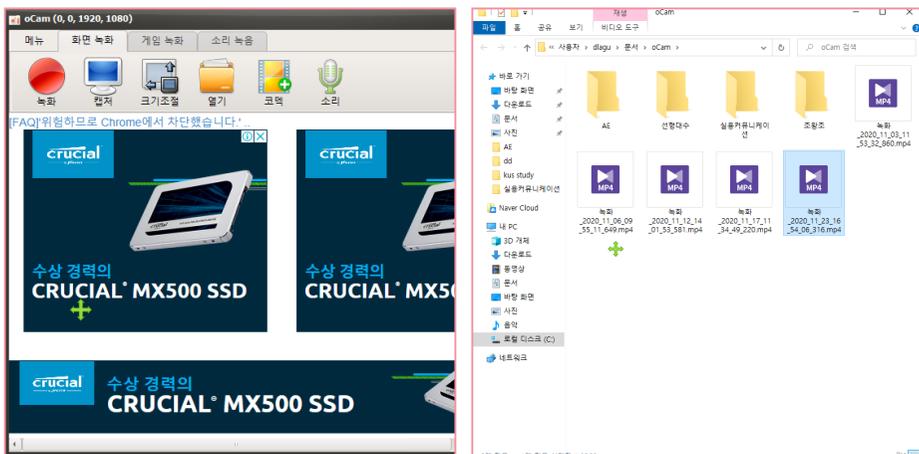


[사진 4. 구글 Meet 사용법]

실시간 강의를 통해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녹화입니다. 수업녹화는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교수님의 허락하에 배포하지 않으며 교육적인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가능합니다. 이후의 설명하는 녹화에 있어서는 전부 허락을 받은 녹화본들입니다. 녹화영상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록이 남기는 하지만 영상이 많아질 경우 용량의 한계로 강의가 사라지곤 합니다. 따라서 이후의 복습을 위해서라도 녹화는 필수입니다. 실시간 강의는 블랙보드의 경우 녹화기능이 있지만 줌으로 하는 경우는 녹화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녹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프로그램은 Ocam입니다. 별다른 사용법을 습득할 필요 없고 워터마크도 없으며 동영상 녹화길이가 용량에만 문제가 없다면 제한이 없습니다. 이결통해 삭제될 것 같은 녹화 강의와 실시간 강의를 녹화해서 복습할 때 사용하며 돌려본다면 이것은 대면에서 할 수 없었던 오직 비대면에서의 장점입니다.

많습니다. 따라서 20분마다 회의를 하되 주제는 어떤 역할을 맡을지 상의하고 이후 각자 어플을 끄고 자신이 맡은 바를 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현재 비대면 팀플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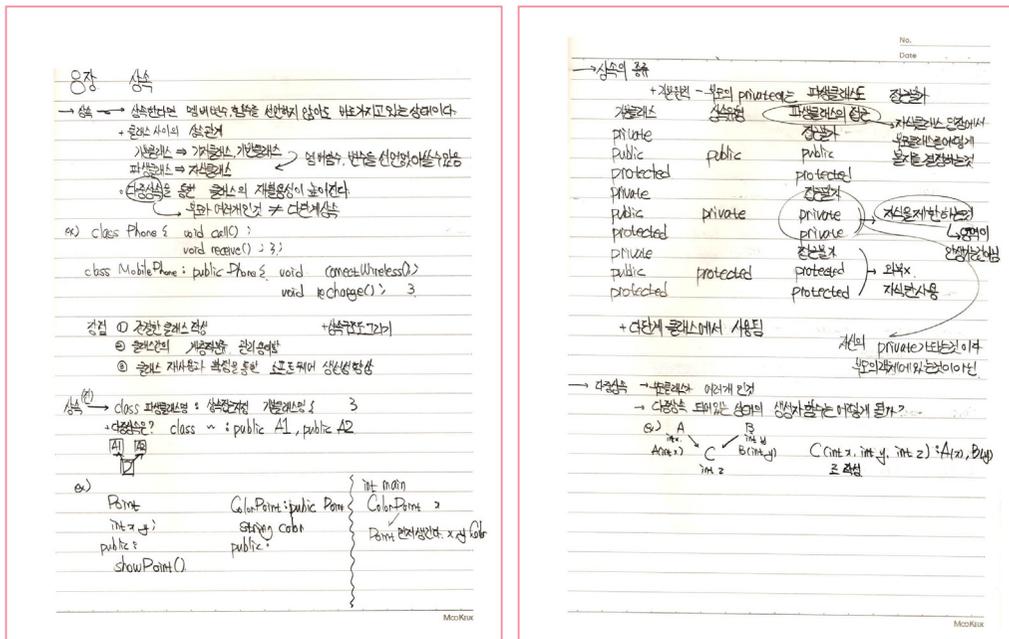
네 번째로는 이러닝 학습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이패드에서 하는 것과 데스크탑에서 차이가 많지 않기에 통합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업은 크게 2가지로 나뉠 것입니다. 하나는 녹화영상, 다른 하나는



[사진 5. Ocam 사용법과 폴더 및 파일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수업을 듣고 영상을 받게 된다면 태블릿은 절대 불가능하고 어지간한 데스크탑도 용량의 한계가 올 것입니다. 여기서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글 계정이 아닌 학생계정에서는 구글 드라이브는 무료로 무한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매주 업로드하여 용량을 비우고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한다면 데스크탑 뿐만이 아니라 핸드폰에서도 사용이 용이합니다. 이것으로 이러닝 학습의 장점을 확실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필기 방법에 대한 팁입니다. 많은 학생이 교재에 바로 필기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교재에는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며 보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책으로 필요한 내용, 즉 서로 다른 단원의 내용을 한 번에 엮을 수 있는 공책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공책을 정리할 때도 한번 쓰고 끝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수업 내용을 오른쪽 면에다 전부 씁니다. 그 후 중요한 내용을 먼저 왼쪽 면에 작성합니다. 그 중 질문하거나 모르는 것들은 질문의 내용을 남겨 놓습니다. 이후 질문이 해결되면 해답을 작성하며 중요 내용을 연결하며 암기해야 할 부분은 맨 끝장에서부터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총 3번 정도 공책으로 한 수업을 복습할 수 있으며 실습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는 내용 왼쪽에는 실습으로 작성한다면 실습과 내용의 연결에 굉장히 용이할 것입니다.



[사진 6. 컴퓨터언어II 및 실습 공책]

코로나사태로 많은 학생들이 대면 수업에서의 습관에서 비대면으로 옮기다 보니 많은 혼동이 있고 준비되지 않은 점이 많아 교수님, 학생들 전부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의 미미한 팁들이 이런 상황에서의 감초가 되길 바라며 모든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도 2학기
나만의 학습전략 공모전



공부, 알고하자!

경영학부
한대훈

I. 서론

학습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중에서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내가 '나만의 학습전략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여태껏 과 내에서만 후배들에게 구두로만 알려주던 나만의 학습법을 여러 학생과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본래 지식이란 것은 나 혼자서만 가지고 있을 때는 무의미한 것이다. 어떠한 지식이라도 공유되고 널리 활용되었을 때 그 무한한 가치를 실감할 수 있으며, 인류는 이러한 지식의 공유와 활용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나는 학교에 입학하고 1학년 때에는 학점이 3점대 초반이었지만 군대를 다녀온 이후 4.5를 두 번 받으며 과 수석을 두 번 했었다. 약 3년간 공부를 해오면서 깨닫게 된 학점 잘 받는 방법은 확실히 있으며 누구나 이러한 방법을 알게 되면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다. 이 글에서 나는 학점을 잘 받기 위한 방법 및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II. 본론

1. 학점을 잘 받기 위한 방법

1) 앞자리를 사수하라!

많은 학생이 간과하는 부분이다. 보통 이것은 사소한 것이라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수업을 들을 때, 앞자리에 앉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앞자리에 앉으면 우선 뒷자리에 앉을 때보다 수업에 훨씬 집중할 수 있으며 교수님이 질문을 하실 때 혹은 무언가 의견을 낼 때도 뒤에 앉았을 때보다 수월하게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이는 특히나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에게 꼭 필요한 방법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뒷자리에 앉으면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의식되어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수업을 들을 때 앞자리를 사수하는 것은 몹시 중요하다.

2) 학습도우미를 뽑는다면 용기를 내라!

이 또한 많은 학생들이 남의 눈치를 보다가 못하는 경우, 혹은 귀찮을 일이 많아질까 봐 안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신이 진심으로 학점을 잘 받고 싶다면 남의 눈치 따위는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생각보다 남들은 본인에게 크게 관심이 없음을 깨달아야 하며 학습도우미를 뽑을 때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의 이유는 보통 후자(귀찮은 일이 많아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주면 오히려 고마워하는 경우도 많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봐야 할 점은 학습도우미를 한다고 해서 학업에 지장을 줄 만큼 힘든 일, 귀찮은 일은 대개 없다는 것이다. 보통 학습 도우미를 하게 되면 열심히 하려 한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을뿐더러 칠판을 미리 지우는 일, 컴퓨터, 빔 프로젝터 전원을 켜는 일, 출석 부르는 일 정도의 간단한 수준의 일만 하면 되기에 결코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다. 더불어 학습도우미라는 직책은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게 되므로 평소 수업 태도나 시험공부를 할 때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준다.

3) 교수님과 아이컨택을 하라!

교수님과 아이컨택을 하라는 것은 눈만 마주치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이는 수업시간 동안에 교수님과 소통을 하라는 의미로, 교수님이 강의를 하실 때 교수님의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업을 들으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다는 것을 교수님께서 어필할 수 있으며 가만히 자료를 쳐다보거나 앞에 있는 스크린만 바라볼 때와는 다른 집중도를 몸소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날 잠을 제대로 못 잤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상태에서 수업을 듣는다면 누구라도 졸릴 수 있다. 하지만 졸더라도 맨 앞자리에서 교수님과 아이컨택을 하며 소통한 후 조는 것과 뒷자리에서 그냥저냥 수업을 들으면서 조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4) 교수님을 옆집 아저씨 혹은 아줌마라고 생각하라!

이 말은 잘못 이해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교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의 주변 사람들만 생각해봐도 교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떠나 그저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어릴 때부터 주변 어른들, 혹은 선생님들께 명절 혹은 새해가 되면 문자를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어 대학에 온 후에도 교수님들께도 항상 하던 대로 문자를 보내는데, 이러한 습관은 사실 예의와 같다고 생각하며 여태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하지만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문자나 연락을 드린다고 하여 교수님의 기분을 상하게 할 일은 결코 없으니 지금부터라도 자신이 고마움을 느끼는 상대라면 명절과 같은 날을 이용해 마음을 표현해보라는 것이다. 교수님은 우리에게 배움과 도움을 주시는 분이므로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마음을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거나 문자를 보내게 되면 교수님은 자연스럽게 나를 기억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교수님이 나를 알고 말고가 아니다. 일단 감사의 인사를 드렸으므로 교수님께서서는 아마 나를 꽤 괜찮은 학생으로 생각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것은 곧바로 수업태도로 이어지게 된다. 먼저 상상을 해보는 것이다. ‘교수님께 좋은 이미지로 비춰진 것 같은데, 내가 수업을 제대로 안 들으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은 자칫하면 교수님께 알랑방귀나 똥 줄 아는 약한 학생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교수님께 좋은 인식을 형성했으니 나는 수업 또한 열심히 들어야 해.’라고 말이다.

이러한 식의 동기부여가 완료되면 행동력을 보여야 하며 이것까지 이루어지면 누가 봐도 성실한 학생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5)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를 활용하라!

학교와 관련된 커뮤니티 사이트 중 유용한 사이트에는 대표적으로 ‘에브리타임’이 있다. 에브리타임에는 질문게시판은 물론 수강후기 등 다양한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학점을 잘 받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학교 시간표를 짜기 전, 수강후기 게시판에 들어가 자신이 들을 과목을 검색해 봐야 한다. 만약 자신이 발표에 자신이 없다면 검색을 통해 수업에서 발표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미리 보고 발표가 있는 수업은 피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수강했던 것을 토대로 작성되기 때문에 강의계획서에서보다 정확하다. 종종 강의계획서에는 발표 항목에 체크가 안 되어 있어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학생들의 경험을 통한 후기는 반드시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또 질문게시판을 통해서 자신이 학교생활에 있어 궁금한, 다양한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으며, 직접 글을 작성하여 물어봄으로써 빠르게 그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다. 질문게시판에는 특정한 주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와 관련된 모든 것을 물어보고 답을 찾는데 상당히 유용하다.

2.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방법

1)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

식상한 말일 수도 있으나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물론 특정 수업에서는 수업자료만 열심히 봐도 시험을 잘 볼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교수님께서 자료와 별개로 설명한 부분이 변별력을 위해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수업시간의 집중은 필수적이다.

수업을 들을 때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나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시키라는 것이다. 몸으로 하는 몇 가지 행동만으로도 집중을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마음에서 움직여야 진정한 집중이 가능하다. ‘나는 ~하니 열심히 해야 해.’, ‘내가 공부하는 것은 ~한 이유 때문이야.’ 등 자신을 동기부여 시키는 것은 사람마다 다양하다. 나를 자극하는 것이 무엇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며 그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야 한다.

2) 집중하는 것에 자신이 없다면 녹음을 해라!

이렇게 집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집중하는 것에 연습이 안 된 사람은 수업시간에 계속해서 잡생각이 들거나, 다른 행동을 하고 싶을 수 있다. 나도 그러한 시행착오를 거쳐 왔기 때문에 한 가지 터득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업시간에 녹음을 하는 것이다. 이 또한 어떻게 보면 모두가 아는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보통 수업을 녹음하면 '어차피 녹음했으니까 수업 대충 들어야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므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수업을 녹음하면 보통 그 내용을 모두 들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이는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 수업의 녹음한 파일의 시간을 보니 모두 24시간이라고 가정해보자. 안일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녹음파일을 믿고 있던 사람은 시험과목이 한 과목도 아님에도 24시간을 다 들어야 한다. 여기서 내가 알려주고 싶은 방법은 수업시간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되, 놓친 부분이 있다면 필기하고 있던 자료 또는 노트에 그 즉시 녹음 시간을 보고 작게 표시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케팅 23분' 이런 식으로 말이다. 이렇게 하면 공부를 할 때 그 부분만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3) 시험은 적어도 2주 전에 준비해라!

시험은 적어도 2주 전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내가 말하는 시험 준비는 2주를 계속해서 매일 매일 시험기간인 것처럼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다. 2주 전에 준비하라는 것은 그때부터 각 과목의 내용을 파악하라는 것이다. 나는 보통 2주 전에는 책이면 책, 수업자료면 수업자료를 편하게 읽어본다. 한 번 읽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번 읽고, 안 읽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만큼 전반적인 내용 파악은 중요하고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에 돌입했을 때, 좀 더 빠르게 많은 내용을 볼 수 있다.

2주 전에는 전반적인 내용파악에 집중하고 1주일 전이 되면 그때부터는 스퍼트를 올려야 한다. 이때는 무작정 '한 과목 다 끝내야지!'의 마인드가 아니라 각 과목들을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공부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계획표 작성은 간단하다. 매일의 날짜를 쓰고 그날의 공부계획을 써두는 것이다. 공부계획은 시험을 치르는 날짜순으로 정하도록 하고, 한 단원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과목을 나누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하루에 마케팅 1단원, 회계 1단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는 것이다. 계획표에 이렇게 작성하고 난 후 공부를 했으면 색깔 있는 펜을 활용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시를 하도록 한다.

처음에는 이러한 계획이 귀찮을 수도 있고 쉽게 실천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계획표를 짜고 공부를 하면 내가 어느 정도의 공부를 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이 끝난 후에 그 계획표를 다시 보면 엄청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4) 시험과목의 책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하면서 읽어라!

누군가는 뭐 이렇게 당연한 말을 써놨냐고 물어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의 효력은 시험 직전에 발휘된다는 것이 내가 말하는 포인트다.



과목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과목은 책만으로, 또 어떤 과목은 프린트만으로 또 다른 과목은 책과 프린트를 이용해 수업이 진행된다. 보통 가장 광범위하고 학생들이 버겁게 생각하는 과목은 책과 프린트 둘 다 봐야 하는 과목일 것이다. 이런 경우, 프린트만 보는 것은 시험을 대충 보겠다는 말과 같으며 당연히 책도 읽어봐야 한다. 책은 적어도 2번 이상 읽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프린트와 대조하며 읽어야 한다. 책을 읽다가 프린트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 색을 정해 밑줄을 치도록 하며,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는 다른 색을 이용하여 밑줄을 치도록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프린트와 겹치는 부분이다) 이렇게 시험범위의 내용을 한 번 읽었다면 두 번째 읽을 때는 밑줄 그은 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더 유념하면서 읽도록 한다. 자, 이제 시험 당일 30분 전이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이때 밑줄을 안 그어 놓은 학생은 책을 볼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왜?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놨기 때문에 빠르게 한 번 훑어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점점 더 내가 생각한 중요한 부분이 교수님이 생각하신 중요한 부분과 겹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며 시험에서 그 부분이 선지로 나오는 쾌감 또한 느낄 수 있다.

5)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 시험의 유형 및 스타일을 분석하여 메모해둬라!

보통의 학생들은 중간고사가 끝나면 그 행복함에 젖어 모든 것을 잊고 어딘가로 놀러 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아주 잠시만 시간을 내어 각 과목의 시험 유형 및 스타일에 대해 메모해둔다면 기말고사 때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과목의 시험은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각각마다 유형과 스타일이 존재한다. 어떤 시험은 서술형으로,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중요하다고 언급하신 부분을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또 어떤 시험은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합하여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문제로 출제되기도 한다. 더하여 또 다른 시험은 하루 전에만 공부를 해도 충분한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을 자신이 체크해 둔다면 기말고사 기간에 훨씬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으며 시간 또한 확실하게 절약할 수 있다. 인간은 막강의 동물이라는 말이 왜 있겠는가. 나 역시도 1학년 때는 시험을 대비하는 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행복해 친구들과 놀기 바빴다. 그런데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이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왔더라... 아 그때 좀 적어둘걸...'과 같은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무슨 그 몇 주를 기억을 못 하냐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몇 주 후에 무슨 문제가 나왔냐고 되물으면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학생이 몇이나 될까?

이러한 이유로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반드시 시험의 유형 및 스타일에 대하여, 약간 더 보충하면 어떻게 공부해야 효과적일 것인지까지 기록을 해둔다면 시험기간에 대한 부담감과 막막함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결론

지금까지 학점을 잘 받는 방법, 시험을 잘 보는 방법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사실 학점을 잘 받는 방법,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곧 공부를 잘하는 방법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결코 위의 나만의



방법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대학교 3년을 다니면서 각종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진 나의 학습법을 많은 이들이 활용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확신한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했지만 분명히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공모전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공부를 잘하고 말고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일단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필요하며 계속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자신을 믿기 위해서는 작은 일이라도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해보는 경험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니 많은 학생이 이 글을 읽고 작은 일부터 성취해나가 점점 더 큰 성취를 하게 되는 과정의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요즘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귀찮으면 무슨 일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귀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많은 것들이 무너진다. 가만히 있으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해가면서 실패도 해보고, 실패를 통해 깨달음도 얻으며 또 다른 시도를 할 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스스로가 발전할 수는 것이다.

끝으로 이 공모전을 통해 나만의 학습법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었고 다시 한번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 것 같다. 서론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지식 혹은 정보더라도 모두와 함께할 때 진정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의 내용이 많은 학생에게 공유되어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2020년도 2학기

좋은 강의 에세이 공모전

최우수상

- 창업을 위한 필수 지식 -디지털 창업과 자금관리-
융합경영학부 디지털경영전공 김민홍





2020년도 2학기
좋은 강의 에세이 공모전



창업을 위한 필수 지식 -디지털 창업과 자금관리-

융합경영학부 디지털경영전공

김민홍

강의 소개 및 특징

2020년, 청년창업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의 대학생들에게 창업은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분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과 대외활동 등을 우선하면서, 그동안 창업이라는 분야는 자신하고 거리가 먼 분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과 국내 여러 대학교에서 창업에 대한 강의를 점차 증가하면서 청년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보는 대학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창업 과정은 절대로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다수의 대학생은 창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의 창업강의와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업 아이디어를 수립하고, 막연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창업을 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초창기 창업 단계에 들어서 자금확보를 위한 투자, 계약서 작성, 자금 운용 계획과 같이 강의를 통해 배우지 못한 돈과 법에 관한 내용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대학생 창업자들은 초창기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디지털 창업과 자금관리는 20대 청년 창업가를 위한 강의입니다.

본 강의는 스타트업 창업 과정에서 반드시 동반되는 자금과 법에 관한 내용을 초창기 창업기업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자금조달, 유가증권 발행, 주식 인수 계약 및 투자, 주주 간 계약 방법, 자금운영 등의 실전 지식을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학습하여 실무 지식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창업

과정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무 경험이 적은 20대 청년이 알기 어려운 자금과 법에 관한 내용을 창업의 성장 흐름을 따라 설명합니다. 특정 시점마다 발생하는 계약의 특징과 자주 실수가 발생하는 유형을 사례를 통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생존과 성장 및 수확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경영학도로서 경영, 재무, 회계, 기업법 등의 경영 기초지식을 함양해야 합니다. 관련 지식을 충분히 학습하지 않았을 경우 완벽한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과목에 대한 관련 지식이 충분한 경우 본 강의를 통해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향후 3~5년간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는 4차산업 시대에 맞는 스타트업형 인재를 위한 강의입니다.

현재의 기업이 끝없이 변화하고 적응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변화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이전 세대의 안정적인 기업에 대한 경영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아닌,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자금과 법에 지식을 갖춰 경영전략을 이해해야 합니다. 본 강의를 통해 스타트업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 내용의 유익한 점

성공적인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은 앞으로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장기적인 청사진입니다. 또한, 투자자(VC)와 은행 및 외부 업체에 자신의 기업을 소개하는 얼굴입니다. 본 강의를 듣는다면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5가지 유익하고 실용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금조달 과정에서 유의할 점입니다.

자금조달 과정은 창업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사업은 초창기 창업자, 가족, 친구들을 통해 시드머니를 출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사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 또는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투자자를 통한 투자를 위한 주식의 종류(보통주, 우선주)와 주식의 특성(배당금 청구, 우선주 배당, 상환 우선주, 전환 우선주)과 주식 인수 계약 조건(전환비율, 전환가치, 우선매수권, 공매도참여권, 동반매도요구권,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다양한 고려 사항이 존재합니다. 본 강의는 이러한 조항을 하나씩 해석하고 실제 주식투자 사례를 통해 불필요한 계약을 지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무관리와 순 운전자본의 활용입니다.

대학교의 강의에서 재무관리와 순 운전자본의 개념은 배울 수 있지만 활용하는 방법은 배울 수 없었습니다. 매출채권, 미수금, 약속어음과 같이 실제 현금화되지 않은 자산을 현금화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스타트업은 언제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업에서 손 운전자본은 필요에 따라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약속어음 배서, 약속어음 할인, 매출채권 팩토링 계약을 통해 스타트업은 유동적으로 자산을 활용합니다. 본 강의는 이러한 실용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실제 경영을 위한 실무 지식을 학습합니다.

세 번째는 창업 관련 세법과 계약서에 대한 학습입니다.

다양한 창업 관련 수업에서 배운 내용만을 기반으로 절대로 실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조항은 계약인에 따라 상이하며 이는 모두 창업자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의 전환비율, 전환가치의 산정을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평균적인 전환비율,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 간 계약서 간의 효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함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세법에 대한 학습과 계약서 수립 방안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확(Exit) 전략입니다.

모든 기업이 성공적으로 기업공개(IPO)를 통해 경영을 지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기업은 일정 궤도에서 여러 수단을 이용해 창업자 본인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확을 위해서 인수합병, 주식매수, 자산매수, IPO 등의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기업 실사(Due diligence)와 같은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는 이러한 수확 전략들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비상장 기업의 가치 평가를 위한 방법(배수법, 상속·증여세법)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이후, 해당 수확 전략의 실현을 위한 고려 사항(합병 비율, 기업 인수 계약서의 유형)의 개념을 학습하고 실제 기업의 수확(인수합병) 사례를 학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입니다.

사업계획 타당성은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실제 청년 창업가들의 가장 큰 실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곧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장황하게 적고 재무, 자금확보, 자금관리, 성장전략에 대한 부분을 외면한다는 점입니다. 본 강의에서 실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수단을 직접 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강의 내용을 모두 학습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학습향상 내용

본 강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대학 강의, 인터넷,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아이디어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 강의를 통해 다음의 5가지 유의미한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모전과 지원사업에 도전하는 것은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을 위해서는 돈을 확보하고, 돈을 순환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사업화 지원금 선정과 작은 공모전 수상 등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에 필요한 요소인 돈, 사람,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것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외부에 피력하고 돈을 벌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본 강의에서 배운 기업의 가치평가 방법(배수법, 상속·증여세법)은 기업의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금조달 방안의 수립입니다.

대학생 사업계획서의 자금조달 방안은 대부분 직접 조달,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금 수주, 대출, 투자 및 클라우드 펀딩과 같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직접 조달 자금은 실제로 주머니에 있어야 하며, 지원금은 수주가 확정된 상태여야 하며, 대출은 가능 여부를 분명히 따져야 하고 투자는 어떤 기관과 대상을 통해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건을 통해 신주를 발행하고 계약을 진행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강의는 이러한 자금조달을 위한 수단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기관을 통해, 어떤 조건으로, 어디에 사용할 자금을 확보할 것인지 분명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금계획의 수립입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전 자금계획은 기업의 실현 가능성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사업경험이 전무한 예비 창업가, 그중에 대학생 청년 창업가는 대부분 자금계획에 대해서 시드머니, 지원금,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인건비와 임대료와 같이 명확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비용 산정을 불명확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 강의를 통해 순 운전자본에 대한 지식과 스타트업의 재무관리 사례를 통해 기업에 성장 궤도에 맞춰 자금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을 높이고 투자의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수월한 자금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합니다.

네 번째는 계약과 법에 대한 지식 학습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약과 법은 반드시 마주해야 합니다. 주주 간 계약, 기업 간 계약, 투자 및 대출 계약 등 계약과 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사업은 절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몇몇 청년 창업가들은 계약과 법에 대한 지식을 간과하고 투자를 진행하여 큰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많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투자를 유치할 때 조심해야 하는 사항을 실제 사례와 조항을 통해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투자 계약서를 학습하는 것은 실제 투자 과정에서 겪는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 기반 계약 시뮬레이션입니다.

1인 기업을 제외한 창업기업은 반드시 주주를 보유하게 됩니다. 주주는 각자 지분과 의결권을 가지고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독립적인 주체입니다. 각 주주는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의결권에 대한 교섭을 진행할 수 있고 이는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자는 반드시 주식을 분배할 때 주식 분배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 강의는 주주 간 계약에 필요한 계약서 작성, 계약 내용(지분양도제한, 우선매수권, 우선 매입의무, 동반매도참여권, 동반매각 청구권, 의결권 행사 등)을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명합니다. 이는 실제 창업단계에서 주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대비하게 합니다.

추천이유 및 소감

저는 창업에 도전하는 대학생으로서 창업에 관련된 교내, 외 각종 공모전과 지원사업을 진행해오면서 많은 20대 청년들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업 준비를 위해 2018~2019년에 교내의 모든 창업강의를 수강하였으며, 2019년부터 다양한 공모전과 지원사업을 지원하였고 최대 3,750만 원 규모의 세종 청년창업 챌린지 랩 사업지원금을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지원금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때, 계약서의 조항으로 인해 사업지원금을 수주를 포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실제 창업단계에 들어서면서, 창업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여러 창업 관련 멘토링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돈과 법에 관한 내용은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들었던 대학 내 창업강의는 아이디어의 발상과 사업계획서의 수립에 대해서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금의 확보와 관리 및 계약과 법에 관한 내용은 매우 짧게 넘어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창업지식의 부족함은 실제 창업 직전에 제 발목을 잡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디지털 창업과 자금관리 강의는 제가 느낀 부족한 지식을 정확하게 채워주는 강의였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항상 골머리를 앓게 했던 자금확보와 관리 부분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투자 상황에서 제게 적합한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강의를 1년만 일찍 들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창업을 준비하는 모든 교수님에게 전공과 관계없이 디지털 창업과 자금관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본 강의는 창업을 위해 들으면 좋은 지식이 아닌, 반드시 들어야 하는 지식을 배우는 강의입니다. 제가 창업을 위해 준비하면서 느낀 어려움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창업자로서 만나서 사랑하는 모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를 빛낼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인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0년도 2학기

좋은 강의 에세이 공모전

우수상

- 명불허전 교수님의 명실상부 강의
글로벌학부 이재현
- 운동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다. 건강하기 위해 운동하자.
생명정보공학과 신수민
- 당신이 캡스톤 디자인 강의를 수강해야 할 이유
경영학부 이성윤





2020년도 2학기
좋은 강의 에세이 공모전



명불허전 교수님의 명실상부 강의

글로벌학부
이재현

명불허전 교수님의 명실상부 강의

박용남 교수는 고려대학교 최우수 강의상인 ‘석탑강의상’을 무려 17차례(2019년 기준)나 수상한 이력이 있다. <영미어문의 이해>는 명불허전 박용남 교수님의 명실상부 강의이다. 이 강의는 전공 관련 교양 과목으로 수강대상에는 제한이 없지만, 주로 1학년 학생들이 많이 수강한다는 특징이 있다. 강의계획서에 따르면, 본 강좌는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 글로벌학부 저학년 학생들에게 영미학의 중요한 분야인 영미문학의 기초를 제공해주기 위해 설계되었다. 영문학의 주요 작가와 작품들을 시대별, 장르별로 살펴보고 이들이 영국과 미국의 역사와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강의이다.

교수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강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미어문의 이해 수업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지요?”

“네, 재현 학생 안녕하세요. 지금 제 모습이 잘 보이고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확인해 주세요.”

<영미어문의 이해> 수업은 학생과의 소통으로 시작된다. 일방적인 강의를 아님, 학생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진정히 쌍방향으로 진행되는 강의이다. 교수의 일방적인 강의와 학생의 수동적인 청강은 수업의 효율성을 저하한다는 박용남 교수의 철학에 따라 교수의 강의,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상호 간의 소통과 토론이 있는 수업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견해를 뚜렷이 정리할 수 있고, 아울러 정리된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훈련도 병행할 수 있다.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학생들의 집중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데, <영미어문의 이해>는 다양한 학습 방식으로 이러한 우려를 완벽하게 극복했다. PPT와 사진, 영화, 노래, 원어로 듣는 문학 작품 등 시청각 보조자료를 활용해 학생들의 몰입도를 극대화한다. 예를 들어, 영화 <베니스의 상인>의 한 장면을 함께 보고 자신이 바사니오였다면 금, 은, 납 중 어떠한 상자를 선택했는지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은 작품에 대한 흥미를 돋우고 학생들의 활발한 소통을 도왔다. 또, 헤밍웨이의 <킬리만자로의 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용필의 노래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감상하는 과정에서는 모두가 표범에 이입하여 공감 능력을 키우고 세대 간의 격차를 아우르는 소통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온라인에서의 수업 집중도를 이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창의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러하듯이 블랙보드 내의 채팅창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학 작품을 감상한 후에 자유롭게 학생들이 의견을 개진하면, 교수님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신의 의견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도 들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다.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강의

교수님은 늘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학생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수업에 임하니 매 수업 시간은 따뜻하다 못해 뜨거울 수밖에 없었다.

수업 시간이 되면 늘 서재에서 정장을 차려입고 벅타이까지 갖춘 박용남 교수님의 얼굴을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다. 교수님의 복장은 오프라인 수업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약간의 긴장감을 조성하여 수업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 이러한 차림 덕분에 다소 딱딱한 인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유머가 가득한 수업이다. 예를 들어, 날 라뷰트의 희곡 <Fat Pig>를 읽고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주인공 헬렌과 탐의 사랑을 방해하는 인물로 카터(Carter)가 등장하는데, 그가 두 사람의 사랑을 가르는 커터(cutter)처럼 느껴진다는 코멘트를 남겼더니, 교수님께서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셨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괜찮아요.”는 박용남 교수님이 수업 중 가장 자주 하는 말씀이다. 수업 도중 종종 학생의 다급한 외침을 들을 때가 있다. “갑자기 나가졌어요!” 기기 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교수님은 항상 괜찮다고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차분한 태도와 따뜻한 말씀 덕분에 학생들은 안심할 수 있고, 어쩌다 교수님이 수업 중 사라지는 불상사가 발생하더라도 학생들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다시 수업에 집중한다.

수업을 마치면 가장 늦게 콜라보레이트 강의실을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다. 바로 박용남 교수님이다. 이 시간에 학생들의 용무를 모두 해결해 주기 때문에, 급하게 메일을 보내며 교수님을 찾지 않아도 쉽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

따뜻한 교수님 곁에는 뜨거운 학생들이 있다. 학생과의 소통으로 시작하는 수업은 마친 이후에도 소통으로 이어진다. 지속적인 소통을 자랑하는 <영미어문의 이해>는 블랙보드 내의 토론실 게시판이 아주 활발하다. 이 게시판을 통해 학생들은 각자 감명 깊은 구절을 공유하고, 읽어볼 만한 논문을 추천하고, 서로의 감상을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눈다. 그리하여 수업은 마쳤지만 학생들의 토론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다. 교수님의 진솔한 이야기와 조언, 그리고 학생들의 열정은 <영미어문의 이해>를 따뜻하다 못해 뜨겁게 만들었다.

대학생으로의 성장과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도야하는 강의

<영미어문의 이해>는 본교가 추구하는 인재양성의 취지에 걸맞는 강의이다. 갓 고등학교를 졸업해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교에 입학했으나 갑작스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다시 비대면 수업을 피하지 못한 1학년 2학기. 혼란스러운 시기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강의이다. 학생들은 모든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기초적인 메일작성법부터 레포트 제출까지 세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박용남 교수님께서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다. “열심히 공부하되, 청춘을 즐겨라.” 젊음은 사회발전과 변혁의 원동력을 일깨워준다. 본격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창의성 있는 지식인과 미래 사회의 지도자로 육성한다.

창의력은 시험에서도 요구되는 역량이다. <영미어문의이해>는 단순히 수업 내용과 핸드아웃 자료를 암기해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아니다. 예를 들어, ‘안토니오를 변호해 보시오.’라는 문제가 있다. 실제 시험으로 출제된 문제는 아니고, 예시로 든 시험 문제임에도 선볼리 답을 하기 어렵다. 많은 사람이 악역으로 오인하기 쉬운 안토니오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베니스의 상인>을 완벽히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안토니오가 유태인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 극 중 등장인물의 성격과 관계를 모두 파악해야 답변할 수 있다. 이렇듯 문학 작품만을 감상할 뿐 아니라, 인간과 사회를 깊이 성찰해보고, ‘인간다움’을 지향하는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리고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며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보아 자신까지 통찰할 수 있게 돕는 강의이다.

<영미어문의 이해>는 진정한 성인으로의 도야와 더불어 자신을 성찰해보고,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까지 길러줄 수 있으므로 전공을 배우기 전, 진정한 성인이 되기 전에 들어보기를 권한다. 이 강의를 통해 공부하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공부는 무엇인가를 외우고, 문제를 풀고, 번역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물론 그러한 과정도 모두 공부지만 공부하는 것은 결국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힘을 키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고 안목을 기르는 일이 공부이다. 특히 갓 대학생, 갓 성인이 된 스무 살에게 이 강의를 추천한다. 생각도, 안목도 진정히 성인이 될 수 있다. 박용남 교수님은 공부하는 것을 열정 있게 도와주신다.



2020년도 2학기
좋은 강의 에세이 공모전



운동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다. 건강하기 위해 운동하자.

생명정보공학과
신수민

2020년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학기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게 되었다. 온라인 강의로 강의를 듣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 2학기 온라인 강의는 큰 문제 없이 들 수 있었다. 1학년, 2학년 때 전공 관련 교양, 전공, 전공필수 등 졸업요건에 필요한 과목들 먼저 듣다가 3학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교양을 듣게 되었다. 교양이 처음이라 어떤 과목을 들어야 도움이 될지 신중하게 선택하였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운동과 건강>이라는 과목은 흥미를 이끌기 충분했다.

I. 강의 소개 및 특징

박종석 교수님의 <운동과 건강> 강의는 일주일 중 월요일 하루 2시간으로 진행하였다. 박종석 교수님께서 국제 스포츠 학부 소속으로, 아무래도 운동과 관련한 과목이기 때문에 더 신뢰가 갔다. 처음에 <운동과 건강>이라는 강의명을 들었을 땐 어떤 운동이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지 배우겠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강의를 시작하고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현대사회는 교통수단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과 방송 매체의 발달 등으로 인해 신체활동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운동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평소에 얼마나 운동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평소에 잠깐 걸어서 장소를 이동하는 것을 제외하곤, 따로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운동 시간을 만들어 운동한 적이 없는 거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필자뿐만이 아니라 학생, 직장인 등 대부분의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본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교수님께서 신체활동과 운동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을 하셨다. 질문을 듣자마자 둘 다 움직임을 통해 에너지를 소비하니까 신체활동도 한편으로 운동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신체활동과 운동의 차이는 명확했다. 신체활동이란, 휴식할 때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모든 움직임을 말한다. 운동이란, 하나 이상의 체력 구성 요소를 향상하고 유지하기 위해 계획하고 반복적인 신체 움직임을 말한다. 즉, 운동은 신체활동의 하위개념으로 '목적성'이 있는 활동이라고 말씀하셨다.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처음에 생각했던 신체활동이 운동의 하위개념이 아니라 반대의 답을 보니 운동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느끼게 되었다. 신체활동과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각종 만성질환을 유발한다는 내용과 함께 본강의를 진행하였다.

이 강의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운동과 건강을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운동의 부족성에 의해 건강이 악화하고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이 좋아지는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다. 무작정 이 운동을 해야 건강하다가 아니라 이러한 운동을 하면 건강과 직결된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강의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II. 강의내용의 유익한 점과 학습향상

강의를 들으면서 평소 운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다. 그중에서는 잘못된 생각과 모르고 있었던 운동에 관한 진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가장 큰 잘못된 생각은 힘들게 운동하면 그만큼 비만도 예방하고 질병도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히려 고강도의 운동은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 고강도의 운동은 저, 중강도 운동보다 호흡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호흡량의 증가로 인해 호흡기의 점막이 건조해져서 공기 중의 오염원에 노출되어 면역력이 약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둘째,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 수 있었다. 그냥 유산소 운동은 편안한 호흡을 지속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의 형태라고 생각했고, 무산소 운동은 힘이 들고 숨이 차서 오래 지속할 수 없는 운동의 형태로만 생각했다. 둘 다 똑같은 운동이니까 몸무게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몸무게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달랐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 폐에 더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인슐린 감수성이 증가하고 무엇보다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만 예방에 가장 좋다. 무산소 운동은 주로 근육에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근비대, 근력, 근지구력을 향상시키고 탄수화물을 사용하고, 기초대사량을 높여준다. 다이어트에는 지방을 제거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좋지만, 무산소 운동도 병행하여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기초대사량은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으로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즉, 무산소 운동을 통해 기초대사량을 높여주고 유산소 운동을 통해 지방을 제거하면 운동의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운동을 할 때도 제대로 된 운동을 통해 운동을 진행해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생각이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여성들은 근육을 발달시키는 목적보다는 근육을 단련시켜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고 싶어 한다. 하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을 딱 들었을 때 바벨이나 덤벨을 사용하는 운동이 대부분이다 보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서는 근육을 생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셨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테스토스테론이 적게 분비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 근육이 커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즉, 남성과 여성이 같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더라도 호르몬의 차이로 인해 근육이 발달 되기보다 단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더 슬림하고 탄탄한 건강한 몸매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운동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생각들을 <운동과 건강> 강의를 통해 바꿀 수 있었다. 운동이란 한 번 힘들고 끝나는 운동이 아니라 평소에 조금씩 약한 강도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운동을 하고 난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Ⅲ. 교수님의 노력

강의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박종석 교수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 우선,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든 사람이 대면수업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해주셨다. 온라인으로 듣기 힘든 학생들을 위한 배려였다. 무엇보다 온라인으로 듣거나 오프라인으로 듣는 것의 성적 차이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편한 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녹장이 아닌 실시간 수업이었기 때문에 강의를 미룰 수도 없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필기하며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교수님의 시험방식에서 놀랐다. 중간고사는 대면시험을 치르고 기말고사 기간에 갑자기 코로나19가 격상하게 되어 대면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되자 결국 온라인 시험으로 바뀌게 되었다. 온라인 시험으로 바뀌고 아무래도 온라인 시험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인 컨닝이 걱정되었다. 아무리 카메라를 켜 상태에서 시험을 본다고 해도 사각지대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공정한 시험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조금 받았었다. 하지만 박종석 교수님께서서는 이러한 문제를 깨닫고 시험문제보다 시험시간이 더 적게 만드는 선택을 하셨다. 총 문제는 35문제 인데 20분동안 문제를 풀 수 있게 설정을 하고 시험을 본다고 하셨다. 처음에 20분은 너무 맘이 급할 거 같다고 생각했는데 교수님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시험 며칠 전 5분을 추가하여 25분이라는 시간을 부여해주셨다. 25분도 처음에는 부족할 거 같았지만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면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해주셨다. 평소 손도 느리고 문제를 푸는 속도도 느리다고 생각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게 되었다. 공부를 충분히 많이 숙지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니 25분은 절대 부족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시험시간을 줄여서 컨닝 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한 교수님의 노력이 느껴졌다.

IV. 강의추천과 이유

앞서 말했듯, <운동과 건강>에는 운동이 주된 주제가 아니라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주된 주제이다. 그래서 운동 단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건강을 다루는 내용이다 보니 후반부에는 질병들, 면역, 신체의 호르몬 등과 운동을 결합시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필자는 생명정보공학과이기 때문에 생명에 관해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후반부 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라 공부하기 편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운동과 건강> 강의를 생명과학을 배웠던 경험이 있는 학생이나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에게 추천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강의를 끝마치고 생각이 바뀌었다. 생명과학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교수님께서 이해되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고 내용도 전공 수준의 깊은 수준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만 설명을 잘 해주셔서 공부하기 편할 거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생각을 아예 반대로, 생명과학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평소 이런 내용을 접하지 않았던 동료 또는 후배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강의를 들었을 때 외울 내용도 많고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 이해하고 나면 건강에는 많은 호르몬이 작용하고 무엇보다 면역반응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는지 등 살면서 필요한 지식을 얻어가기 좋은 강의인 거 같다. 교양으로 이런 내용을 접하지 않으면 오랜 시간 동안 모르고 살아갔을 내용을 얻을 수 있는 거 같아서 정말 좋은 강의라고 생각했다. 물론 생명과학을 아는 사람들도 다시 공부하면서 지식을 장기기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V. 강의 소감

처음에 강의를 듣기 전 운동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는데 이 강의를 들어도 괜찮을지 걱정을 많이 했다. 하지만 강의를 끝나고 나니 그런 걱정을 했던 과거를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 아는 내용이 대부분이라 공부하기에 편했고 요즘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서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싶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유산소 운동과 식단 조절을 통한 다이어트가 요요현상도 없이 탄탄한 몸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이 강의를 듣지 않았더라면 그냥 하루에 한 끼를 먹거나 운동을 과도하게 하여 다이어트를 하거나 만약 성공하더라도 다시 요요현상이 와서 건강을 망쳐버렸을 것이다. 강의를 통해 부위에 맞는 운동을 알아가고 식단 조절을 잘해야 하는지 얻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강의였던 거 같다. 평소에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강의를 듣고 운동의 필요성을 크게 느낀 거 같다. 앞으로 주변에서 운동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 강의를 통해 배운 것들을 알려주고 생각을 바로잡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건강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요즘 상황에 정말 꼭 들어보아야 할 강의고,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었던 과목이 된 거 같다. 일주일에 하루 2시간밖에 강의를 진행하지 않아서 더 많은 내용을 다룰 수 없었던 거 같아 아쉽지만, 도움이 되는 강의를 듣고 좋은 성적까지 얻어가는 거 같아서 부듯했다. 2020년도 2학기 좋은 교양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도 2학기
좋은 강의 에세이 공모전



당신이 캡스톤 디자인 강의를 수강해야 할 이유

경영학부
이성운

저는 경영학부 3학년 재학생으로, 2020년 2학기 융합경영캡스톤디자인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한 학기 동안의 제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캡스톤 디자인 강의를 수강해야 할 자신만의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캡스톤 디자인이 무엇인지, 이 과목에서는 어떠한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캡스톤(Capstone)이란 건축물의 최종 장식으로, 사회진출을 앞두고 그동안 습득한 전공 과정의 최종정리를 의미합니다. 캡스톤 디자인이란 학생이 산업현장에서 만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 가상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이용하여 기획, 설계, 제작의 전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산업현장 수요에 적합한 기술/제품/서비스의 창조적 설계와 문제 해결 능력, 다학제간 융합적 사고와 지식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창조적 인재 양성 창의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캡스톤 디자인 과목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의 주체가 되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캡스톤 디자인은 현장실습연계형 캡스톤 디자인, 창업연계형 캡스톤 디자인, 산학연계형 캡스톤 디자인, 전공심화형 캡스톤 디자인, 지역발전 공익형 캡스톤 디자인, 자율프로젝트형 캡스톤 디자인처럼 유형별로 분류 가능합니다.

사회인문계 프로젝트의 경우, 주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거나 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사업계획(제안)서 또는 시장진출방안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공계 프로젝트의 경우,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학생의 아이디어 또는 기업의 요구를 토대로 시제품을 제작하게 됩니다.

2020-2학기 융합경영캡스톤디자인 수업은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블랙보드 Collaborate와 Zoom을 통한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수강생은 총 3명이었는데, 모두 고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각자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비록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비대면 수업이었지만, 교수님의 얼굴을 매주 볼 수 있었고, 교수님께서도 학생 3명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매주 수업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저는 교수님과 서로 연결되어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학기 중간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강의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타해진 적도 있었는데, 화면 속의 교수님 얼굴을 볼 때마다 스스로 뜨끔한 느낌이 들어서 저의 태도를 다잡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매 주차 자신의 프로젝트의 진행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고, 상호 간의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학생들은 서로의 프로젝트에 대해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할지 등을 말하게 됩니다. 학생 간의 피드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수님의 피드백입니다. 교수님께서도 학생에게 피드백을 해주실 때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쳐야 한다. 왜냐하면...’이라는 식으로 직접적인 지적을 해주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이 프로젝트가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며 무엇이 핵심인지’를 설명해주시고,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학생이 의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부족한 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융합경영캡스톤디자인 강의를 통해, 제가 준비한 창업 아이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3D기술과 전통제화기술을 결합하여, 개인 맞춤형 등산화를 보다 높은 생산성·정밀성으로 제작 판매하는 사업’이라는 주제로 창업연계형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의 발과 등산화의 보다 나은 핏감·착화감을 위하여 3D 스캐너로 개인의 발 모양을 입체적으로 정밀측정하여 3D 프린터로 모형을 출력한 뒤, 제화기술자에 의해 가죽이 재단되고 바느질로 봉합하여 개인 맞춤형 등산화를 제작한다는 발상입니다. 이러한 제작 방법이 실현된다면 기존의 방법보다 더 정밀한 제품을 적은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화기술로 수제등산화를 제작할 시, 석고판을 이용해서 발 모양을 측정하고 모형을 만들어내는데 2~3일이 소요되며 숙련된 제화기술자가 하루에 1켤레의 제품밖에 생산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제가 고안한 방법대로라면 발 모양을 측정하고 모형을 출력해내는데 20분~1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등산화 제작 과정 중 제화기술자가 담당하는 부분은 가죽 재단과 부품 봉합만 남게 되어 시간당 생산량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바느질

봉합은 전통적인 제화방법으로, 접착제로 붙이는 것보다 생산성이 낮지만 내구성이 우수하여서 유럽의 유명 등산화 제조사에서 일관되게 고수하는 방법입니다.

창업의 준비단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 사업(제품)이 어떠한 가치가 있고 특·장점은 무엇인지, 사업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보았습니다.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원자재는 어떻게 공급할지,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고 수익성은 얼마나 나오는지, 재무적으로 안정적일지 등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아이디어를 보다 구체화하고 보완·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경쟁사와 경쟁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수요예측조사를 실시하였고, 자사 제품의 특징점과 자사가 나아갈 방향성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3D 스캐닝과 3D 프린팅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어떠한 방법이 가장 경제적인지, 원자재를 어떻게 공급할지 조사하였습니다. 관련 업체에 문의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사업화 추진을 위해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추정해보고, 추정재무제표는 작성하여 추정손익분기점과 추정재무비율을 도출하였습니다. 분석을 통해 마케팅 계획과 세부적인 사업화추진일정을 수립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 사업계획서가 어떠한 맥락과 구성으로 작성되는지 알게 되었고, 사업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무엇이 핵심이고 사족인지를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내용과 가치,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이루어져야 하며, 내·외부 환경과 상황에 대한 분석, 시장·기술·재무 부분의 사업타당성 분석, 마케팅 계획, 세부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또 재무와 회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 줄의 문장보다 하나의 숫자가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으며, 훨씬 설득력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2학기 융합경영캡스톤디자인은 저에게 여러모로 의미 깊은 강의였습니다. 제가 입학 당시 가지고 있었던 창업 아이템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발표까지 해보았는데, 사실 이 아이템은 과거의 제가 대학입시를 준비하게 하는, 동기부여의 원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과거의 제가 바랐던 모습에 가까워진 것 같고 일종의 소원을 이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대학생활에서의 뜻깊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사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나의 창업 아이템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닌지 근심하기도 하였고, 한참의 생각과 조사 후에 겨우 하나씩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쓰고 지우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혼자서 사업계획서를

완성해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것도 못하면 사회에 나가서 뭘 할 수 있겠나?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력했습니다. 캡스톤 강의는 저에게 부담스러운 과목이자 동시에 힘을 주는 과목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나씩 진행시키면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모든 프로젝트를 혼자서 진행해보니, 저의 부족한 점이 보였습니다. 전공 관련 지식, 개념 등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사고 능력, 자기관리 능력 부분에서도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저보다 능숙하게 진행하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과목에 수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면, 그동안 배운 전공 관련 지식을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프로젝트 완료 시에는 대학 졸업 전에 캡스톤을 쌓았다는 성취감과 졸업 후 산업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문제를 거뜬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창업을 희망하는 학우분들은 캡스톤 디자인 강의를 수강해서, 본인들의 창업아이템을 사업계획서로 작성해보는 과정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통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 실천계획을 세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사업이 사업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스스로 검토해보며 부족한 점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본인 계획사업의 문제점을 스스로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지 못하면, 주변에서 아무리 말해줘도 안 듣게 되거나 오히려 쫓대 없이 휘둘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캡스톤 디자인 강의를 통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결과적으로 창업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 2학기 융합경영캡스톤디자인 과목을 수강한 저의 솔직한 경험과 생각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캡스톤 디자인 강의를 수강해야 하는 자신만의 이유를 스스로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2학기

좋은 강의 에세이 공모전

장려상

- 제대로 된 공부가 하고 싶다면 기업법을 들어보자.
경영학부 김민하
-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언제나 함께였다.
문화창의학부 미디어문예창작전공 김수현
- 강의, 그 이상의 것
글로벌학부 독일학전공 박효정
- 인간의 생태를 이해하는 거시경제학
경제통계학부 경제정책학전공 서주영
- 독서를 통해 생각의 깊이를 넓히다.
글로벌학부 윤신영





2020년도 2학기
좋은 강의 에세이 공모전



제대로 된 공부와 하고 싶다면 기업법을 들어보자.

경영학부
김민하

이 강의는 기업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 원리 및 제도에 대한 내용을 여러 기업의 형태 중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회사의 설립과 운영, 해산과 청산에 이르는 과정을 상법 회사편 규정, 판례, 뉴스 등을 통해 배우는 과목이다.

가장 큰 특징은 법조문을 그대로 가져와 배우면서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조문 자체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배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기업법 내용을 배운다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향후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영학부 학생이 있다면 기초 지식을 다듬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고 나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실제 사례를 확인하는데 개인 및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사나 뉴스 영상을 보면서 한 번 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점이 큰 장점이다. 수업 중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는 주의를 환기할 수도 있고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끔 하기 때문에 학습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수업을 듣기 전에 부모님의 사업을 이해하고 언젠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기본 개념과 기업법의 흐름을 탄탄히 다지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단순히 휘발성 암기과목이 아닌 진정한 지식으로 배우고자 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배웠다. 그리고 요즘과 같은 스타트업 폭발의 시대에서도 많은 사업가들이 투자 유치의 용이성 때문에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또한 많은 청년들이 주식을 배우고 투자하는 이런 상황에서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배우는 기업법은 아주 유익한 강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도 아주 뜻깊은 강의로 기억될 것 같다.

기억에 남는 수업은 15주 차에 걸친 강의 중에서 수업 초반에 정관과 1인 주주 회사에 대해 배웠던 것이다. 나의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내용이었다. 정관의 경우, 그 내용을 배울 즈음에 (부모님과 같이 사업을 하는) 언니가 나에게 기업법을 배우면 정관에 대해서도 배우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나는 마침 최근에 배웠다고 답했고 정관을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하냐는 언니의 물음에 내가 수업시간에 배운 것들을 토대로 답을 해주었다. 지금 생각해 봐도 내가 배운 과목들 중에서 지식을 이렇게 활용한 적은 손에 꼽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모님도 사업을 하시지만 사실상 주주가 없는 가족경영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자금은 법인 대표나 주주라 할지라도 함부로 인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기업법 수업에서 배우기 전까지는 몰랐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가끔 쇼핑을 하거나 장을 볼 때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구분해서 사용했던 기억이 있는데 법인 소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고 생각해 보니 그 행동들이 이해가 간다.

수업 시간에 배운 대표적인 가족경영을 통한 횡령 및 배임죄가 인정된 사건은 유명한 화장품기업 '참존'이다. 법인통장의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빌려주었기 때문인데 이런 사례들을 알고 나서 바로 부모님께 전화해서 우리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고 물어보면서 수업시간에 본 기사를 보여준 적이 있다. 다행히 세무사를 통해 잘 거르고 걸러서 사용한다는 답을 들었지만, 평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부분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내가 이 수업을 듣는다는 것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무지도 죄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참존의 경우 단순히 가족경영이다, 1인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횡령과 배임 의혹을 빠져나갈 순 없을 것 같다. 만약 참존의 회장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본적인 법 지식을 알고 있었다면 이 정도까지 왔을까? 이렇듯 배우지 않고서는 모를 내용을 내가 지금 배우고 있고 나중에 분명 내 직장생활이나 부모님의 사업에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내가 이 강의가 유익하다고 느꼈던 사례를 한 가지 더 들여보자면, 뉴스를 시청할 때 아는 단어들만 들리고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언택트 시대에서 맞이한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대한 내용,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RCPS 전량을 CPS로 전환함에 따른 토스증권의 출범 등 기업법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실제로 마주하게 되니 역시 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듯 이 과목이 실생활에서 나에게 영향을 주면서 나는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고 생각했고, 나중에 동기에게 꼭 추천해 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과목 자체의 유익성 외에도 수업을 듣는 나에게 중요한 역할이 되어주었던 것은 바로 교수님이다. 홍진희 교수님은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마냥 기존의 이론만 전달하는 다른 강의들과는 사뭇 달랐다.

강의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교수님의 노력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교수님이 직접 만든 교재가 아닐까 싶다. 수업 시간 중 강의 자료를 띄워 주시면서 중간 중간에 수정을 하셨는데,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완성된 교재를 끊임없이 수정하고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은 표로 만들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판결문은 뉴스나 기사를 보여주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신다. 어려운 단어나 내용이 나오면 기업의 실제 정관 및 주식청약서, 무역면주식,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직접 찾아서 보여주면서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하셨다. 아무래도 법이라는 과목이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기본적으로 강의는 녹화 강의를 수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월 1회마다 Zoom을 통해 퀴즈도 풀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의응답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비대면 수업에서도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부분도 좋았다. 나는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한글 파일에 적어서 저장해 뒀다가 비대면 실시간 수업이 있을 때마다 물어보곤 했는데, 아무래도 메일로 물어보는 것보다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추가 질문도 하기 좋았다. 질의응답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물어보기도 편했다.

여태껏 법이라는 과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었다. 처음에 수강신청을 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깊이 들어갈까 싶어서 좀 무서웠고 휘발성 암기과목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다. 하지만 교수님의 강의력 덕분인지 수업시간에 집중도 잘되고 복습할 때 쉽게 공부할 수 있었다.

기업법을 배우면서 신문 스크랩을 하는 과제가 있어서 여러 개의 기사를 읽어야 했다. 수업을 듣고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배우지 않았으면 어렵게 느껴졌을 단어도 쉽게 읽을 수 있었다. 기사를 읽으면서 스스로 신기하기도 했고 뿌듯했다. 내가 전공 지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기업을 설립하는데 기본이 되는 내용을 다른 부문의 수업으로도 들어보고 싶다. 앞으로 사회에 나갈 학생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전공과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만약 기업법과 같은 유익한 강의가 또 있다면 마땅히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꼭 들어보고 싶다.

이 강의를 추천하는 이유는 정말 뭔가를 배운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솔직히 나의 이 말이 어느 정도로 학우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암기 과목을 열심히 외우고 공부하다 보면 기계처럼 마냥 달달 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시험이 끝나면 허무하기 그지없었다.

서술형이 아닌 이상 객관식과 단답형 문제는 답을 중심으로 찾아 해매고 몇 개는 오답으로 거를 수 있어도 한두 개는 모호한 경우가 있다. 그래도 답이 보이니 적어 낸다. 하지만 기업법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고 시험을 본다면 문제를 푸는 그 순간 짜릿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온전히 내가 아는 지식으로 풀면서 정답과 오답을 완벽히 걸러낼 수 있을 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

내 주변 동기들을 보면 창업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다. 나는 그 친구들에게 이 강의를 꼭 추천해주고 싶다. 사실 마냥 쉬운 과목은 아니지만 교수님이 핵심만 쉽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다. 그리고 사업가라면 마땅히 알아야 하는 기초 지식이라고 생각한다.

빡빡한 수업 스케줄에 억지로 이 과목을 넣으라고 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고학년이 되어서 어느 정도 다양한 개론 수업과 전공과목을 들어봤다면 기업법을 통해 다시 지식의 기반을 다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분명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나는 이 수업을 들으면서 오랜만에 제대로 된 수업을 듣고 제대로 공부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2020년도 2학기
좋은 강의 에세이 공모전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언제나 함께였다.

문화창의학부 미디어문예창작전공

김수현

코로나를 맞이한 우리의 삶은 점점 변해왔다. 항상 우리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때로는 어느 곳에 속에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 속에 우리는 집이라는 공간에 머물며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나는 원래도 내향적인 사람이지만, 모든 강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됨으로서 학교에 가지 못했다. 그래서 더 내향적이고 회피적인 사람이 되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어 1학기에는 내가 인터넷상에서만 존재하는 유령처럼 지냈다. 교수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나는 채팅창에 '네'를 쳤다. 입을 열지 않는 시간이 많아지자 말을 하는 것이 어색하게만 느껴졌다. 하반기로 갈수록 코로나는 심해졌고, 나는 갈수록 심한 우울, 불안, 공황장애를 앓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막상 정신과 상담을 받거나 심리 상담을 받기가 두려웠다. 오래 앓는 감기라고 생각했다. 늘 그랬듯 언제나 잠잠해질 감정이라고 생각했다.

2학기 시간표를 짜던 중 '현대인의 정신건강'이라는 교양을 알게 되었다. 사실 사람들은 병이 생기는 곳이 마음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것은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병에만 집중하고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다닌다. 무너진 마음은 어디서 치료받을 수 있나. 마음은 누군가에게 치료받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지내다간 내 가족, 지인들에게 나의 우울과 힘듦이 바이러스처럼 전염될 것만 같았다. 그날의 나의 어떤 용기 덕분에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들을 수 있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다양한 정신건강의 특징들과 이상증상들, 그에 대한 예방법에 대해 배우고 스스로 생각해보았다. 늘 그렇듯 의미와 정의만 펼쳐놓는 강의가 아니었다. 직접 나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다가가며 때로는 검사를 해보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혼자 상담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가족 및 친구 관계, 성인이 된 초기, 혹은 과거에 겪었던 경험과 감정, 스트레스를 한 발짝 물러선 후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시 그 경험들과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11월 26일에는 우울불안검사 결과를 스스로 해본 것, 정신질환 목록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과 이유에 대해 수강생들끼리 서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나는 생각만으로 내가 우울하고 불안하다고 느꼈던 것을 실제 검사결과로 받아보니, 충격적이었고 겁이 났다. 그런데 첫 번째로 발표해주신 학우분께서 코로나로 힘들어진 가정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앓고 있는 우울과 불안에 대해 생각하고 분석을 하여 발표를 해주셨다. 이런 검사를 통해 오히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카메라 너머로 보이는 학우분의 표정은 정말 한결 편안해 보였다. 사실 발표를 하기 전엔 누군가 내가 심리적으로 장애를 겪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다. 하지만, 그 학우분의 말에 용기를 얻어 나는 공황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 발표했다. 그리고 다음에 발표했던 학우는 특징하게 나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신 또한 공황장애를 앓았었던 경험을 얘기했다. 그러고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 조언해주었다. 자신을 믿고 용기를 가지라는 그 학우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맞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닐까? 어떤 학우분께서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 코로나로 인해 힘듦을 겪고 있다는 것을 토로했다. 몇 번의 불합격을 받고 나니 자신이 무기력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은 실패라고 단정 짓는 것을 내려놓고, 산책을 다니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세상은 무기력해졌다. 그런 우리에게겐 무엇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 것이다.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산책을 하는 것, 밥을 먹으려고 쌀을 씻는 것.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무기력을 이겨내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전에는 조금은 나를 포장해서 발표했다면, 그날은 정말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 자신이 겪고 있는 감정, 우울함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발표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사람들은 나를 동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저 서로의 말에 경청해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자,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교수님은 항상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수강생들과 소통하는 수업을 해주셨다. 매 강의마다 주제를 정해서 자신만의 활동노트를 작성하게 했다. 자신이 사용했던 방어기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정신질환의 종류와 치료, 성격의 이해, 사고오류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작성해보았다. 그 활동노트를 적어보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강의에서 배운 것들을 모든 나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적용해보며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해가 잘 되었고, 스스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 혼자 생각해보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수업마다 교수님께서 직접 피드백을 해주시고, 발표를 하면서 다른 학우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셨다.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우분들이 참여를 잘 해주셨다. 누구에게든 꺼내기 힘든, 잊고 싶은 과거로만 남아있던 것일지 몰라도 이 강의 시간 내에서는 누구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강의를 진행하는 내내 나는 초면인 학우분들에게도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늘 같이 있어왔던 친구처럼 위로를 받고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학교에 다니면서 처음 겪는 경험이었다. 수업이 끝나면 모두가 남이 되는 순간에, 오히려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위로받았고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그것이 마음에 남아 좋았다. 그리고 좌절과 힘들었던 과거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사람들이 서로에게 손을 뻗는 것이 느껴졌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진 생활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움을 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속에서 깨달은 것은 늘 그렇듯 우리는 언제나 함께였기 때문에 이런 힘들음을 함께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나에 대해 더 솔직해지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분명히 나를 알다 보니 전공 수업에서 쓰는 나의 글에서도 많은 것들이 변화했다 나의 글에는 항상 이상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주인공, 이야기가 항상 비극을 맞이하거나, 해리성 인격장애를 겪고 있는 인물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 강의를 수강하고 나서는 캐릭터들이 나름의 개성을 갖게 되었으며, 우울하지 않은 결말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가장 눈에 띄게 변한 것 같다고 전공 교수님께서도 말씀해주셨고, 덕분에 어제 블랙보드에 기재된 중간고사 시나리오 과제도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그것은 강의를 일방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를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김재희 교수님의 덕분이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생각보다 많은 학우분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언젠가 꼭 대학에서 이런 정신건강, 심리, 상담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내가 쓰는 소설,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직접적인 상담이 아니라, 이런 강의를 통해서도 정말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병원을 가지 않아도 내가 나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구나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정신건강, 심리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책과 논문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종강을 한 후에는 아쉬워서 눈물이 났다. 나는 이제 어디서 나를 찾고, 알 수 있을까. 강의 자료를 정리하면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다시 훑어보았다. 하나도 나의 것이 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만큼 나와 교수님, 그리고 수강생들이 열정적으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용어와 글들을 볼 때마다 그 날의 수업이 선명히 떠올랐다.

처음에는 나의 감정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마음을 똑바로 마주보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교수님이 없이도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셀프케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처하는 기술에 대해 알게 되었다. 상담을 받아야지 생각했던 나는 상담이 아니더라도 이런 강의를 통해 얼마든지 내가 스스로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렇게 이 강의에서 얻은 것은 위로와 조언뿐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을 마주하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용기를 갖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것은 교수님의 주입식,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서로가 소통하는 강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학기가 마무리해갈 때쯤 학교로부터 문자 하나를 받았다. 최근 교내에서 우리 학우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일이 있었다. 어쩌면 그와 철저한 타인이라고 생각이 드던 찰나, 나와 한 번쯤은 이 학교를

오고가며, 교양에서라도 한 번쯤은 마주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번이라도 나를 스쳤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말, 어깨를 한 번이라도 토닥여 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다.

코로나 시대를 겪어오며 우리의 삶은 많은 것들이 변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이 무뎠고, 지쳤다. 당연한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그것을 빼앗겨서야 그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사소했던 친구들과의 만남, 아침에 문을 열고 가게에 손님을 기다렸던 사장님, 기다렸던 어학연수, 취업 면접을 다니며 입으려고 준비했던 정장. 많은 시험. 만남과 소통, 꿈이 점점 겨울밤처럼 길게 늘어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꽃이 피고, 덥고, 시원했던 봄, 여름, 가을에도 오늘처럼 항상 우리의 마음에 찬 바람이 불고 있다. 외로움, 쓸쓸함, 힘듦. 우리는 늘 그래 왔듯 이것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동안은 내가 취업을 위해서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이 느끼는 지금의 감정과, 상황,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나를 아는 것, 그것은 우리가 때때로, 아니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될 것이다. 학교생활, 취업준비, 대인관계에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과 정신이 아픈 모든 학우분들이 '현대인의 정신건강'이라는 강의를 통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곳에선 혼자야 아닐 것이다. 강의를 듣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하면서 무사히 졸업할 수 있길 바란다. 뿐 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이 강의에서 배운 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나를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나는 모두가 힘든 상황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친구의 말을 경청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를 더 이상 힘들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늘 그렇듯 우리는 언제나 함께였기에 이번에도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것이다.



2020년도 2학기
좋은 강의 에세이 공모전



강의, 그 이상의 것

글로벌학부 독일학전공
박효정

2020학년도 1학기에 이어, 또다시 교수님과 학우들은 온라인에서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것이 한편으로는 쓸쓸하면서도 다르게 본다면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하여, 본 전공을 보충하면서도 교외의 활동을 찾던 중, 연관 지을 수 있는 것이 독일어 인증시험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때 독일학 전공 전공 수업 중, 주한독일문화원에서 실시하는 ZD 공인인증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강의가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이 강의를 통해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본 강의는 강의명에서 알 수 있듯이 ZD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을 담고 있는 강의이다. 이 강의의 특징 중 하나가 한국에서 흔히 시행되고 있는 주입식 그리고 교수자의 설명이 위주인 강의와는 달리 학생들의 참여를 주로 하여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 강의는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본인이 응시하길 희망하는 시험의 수준을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자신이 희망하는 수준을 정했다면, 그것을 본인만의 목표로 설정한 후에 본 강의에 들어가게 된다. ZD 시험과 관련된 교재 및 다양한 자료로 수업이 구성되는데,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각각의 부분을 연습할 수 있다. 여러 차례 문제 풀이를 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는 연습과 지문을 이해하는 해석 연습을 동시에 진행한다. 그리고 이 강의의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말하기 부분을 배울 때이다. 원어민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기에 발음이나 억양 등 현지인에 가깝도록 연습을 계속한다. 또한, 교수님께서 열정이 넘치시는 편이기에 말하기에 큰 비중을 두기도 한다. 특히, 이 부분이 있기에 이 강의가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강의를 고르기 전에 독일어 인증시험을 떠올린 이유가 있다. 이것이 ZD 시험 준비를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험까지 치르는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1년에 4회에서 5회 정도의 시험이 예정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치를 수 있는 시험이 2학기 중반부에 있다. 그렇기에 약 두 달의 시간 동안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중간고사에서 그동안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적용하는 문제를 풀기도 한다. 그러므로 시험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 강의라는 꼬리표가 붙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강의이기도 하다. 그리고 시험뿐만 아니라 독일어 자체를 배우기 위함에도 손색이 없다. 계속해서 ‘시험을 위한’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는 표현과, 읽는 지문들의 내용이 독일어를 배우고 적용하는 데에 있어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 때문이다.

이 수업의 한 장면을 떠올려보자면, 여러 번 연습하고 또 연습했던 말하기 부분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방법은 이러하다. 화면에 독일어 단어와 주제를 띄우고 서로 질문과 대답을 하며 대화를 주고받는다. 처음 이 수업을 진행하였을 때, 모두가 벅벅대고 어려워했다. 문장의 어순을 맞추고 원하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그것들을 말로 다시 뱉어내기란 적어도 나에겐 매우 어려웠다. 매번 지적을 받기도 하였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말을 하는 중간에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셨다. 단순히 말로 표현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한국어로 예를 들어보자면, “어제 음... 어떤 과일을 음... 드셨나요?”라는 식의 말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한국어로는 절대 하지 않는 실수이지만 다른 언어를 사용할 때에는 보다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싶은 욕심에 중간마다 고민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다. 그러한 버릇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말하기 수업 중에 가끔 지적을 받은 적도 있다. 물론 그 결과 지금은 아예 그러지 않는다고 보장을 할 순 없지만, 학기를 시작하던 초기와 비교했을 때 현재는 말을 하는 중간에 공백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하지만 공백없이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고 있지 않아 지금도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리고 이런 강의의 흥미와 원만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 강의의 경우, 학생들과 교수님 그리고 학생들 간의 소통이 중요하고 필수적인 강의이다. 그렇기에 수업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연습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도 하는 수업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수업하면서 본인이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어떤 부분을 보충하고 싶은지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굉장히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또한 교수자와 학생 사이의 중요한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있기에 더욱 이 강의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 단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강의 속에서의 교수님 피드백이 굉장한 도움이 된다. 계속해서 언급한 말하기뿐만 아니라 쓰기 부분에서 각자 제출한 과제를 꼼꼼히 보시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해주신다. 그러면서 본인이 작성한 과제를 수정해나가고 더 나은 글을 쓰기 위한 걸음을 나아가게 된다. 쓰기 강의를 하면서 기억나는 장면을 떠올린다면, 독일어로 편지 쓰는 양식을 배우는 수업이었다. 한번은 편지를 시작하는 말로 인사와 자기소개를 했는데 이 부분을 지적받았었다. 한국과는 달리, 독일의 경우 시작하는 말로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셨다.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기 때문에 굳이 앞에서도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편지 양식을 배울 뿐만 아니라 한국과 독일 간의 문화 차이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Sehr geehrte Damen und Herren’이라는 표현을 배울 때였다. 이

표현은 편지를 받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편지를 쓸 때 상대방이 없는 편지를 써 본 경험이 없어서인지, 편지를 받는 이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점이 새로웠다. 따라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단순한 언어로서의 독일어를 배우고 동시에 독일의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반복적인 연습, 교수자와 학생 사이의 소통, 그리고 교수자의 피드백이 이 수업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점 때문에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을 가치가 충분히 있다.

강의를 듣고 무언가의 결과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깨달음이 있는 것을 더 의미있게 느낀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강의를 듣고서는 그 과정을 통한 배움과 깨달음에 더불어 만족스러운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다. 앞에서 이 강의는 ZD 시험을 최종목적으로 두고 진행되는 수업이라 소개를 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11월 중 시행되는 시험을 신청했고 그 시험을 바라보면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 9월 첫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독일어가 아직도 어색하고 말하기 어려우며 따라가기 급급했다. 그렇게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면서 보이지 않게 실력이 쌓이고 있었는지, 비록 낮은 수준의 시험이었지만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아 통과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소식을 교수님께 가장 먼저 알렸고 매우 좋아하시고 뿌듯하다 표현하시던 모습이 생생하다. 그리고 이 모습에서 어떤 자신감이 생겼는지, 다음 수준의 시험에 관심을 가졌고 구체적인 목표를 차근차근 세우고 있다. 그리고 열심히 했다는 행동에 관한 결과가 보람으로 느껴지니 이것이 독일어에 대한 흥미로 다가오기도 하였다. 보통은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공부라는 것이 항상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강의를 통해 배우고 연습하며 실력을 쌓아가니 놀랍게도 결과는 그냥 따라온 것처럼 느껴졌다. 이는 다시 말해서, 이 강의가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효율적인지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받은 많은 피드백도 자신감이 향상되는 데에 크게 이바지했다. 연습하는 동안, 해주시는 피드백과 가끔 해주시는 칭찬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런 피드백과 칭찬을 들으면서 스스로 어떤 것을 보완하고 보충해가며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겨 자율적인 학습으로 이어졌다. 자율적인 학습이 반복되면서 그 과정 안에서 새로운 공부 방법을 체득하기도 하였고 다른 학우들과 학업과 관련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심화 학습이 가능했다. 특히, 같은 수업을 듣는 학우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어떠한 공부든, 심화한 학습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언어를 배우는 경우는 같이 이야기를 하며 모르는 부분 혹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 배경에는 교수님의 피드백과 칭찬이 기본이 되어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점은 내가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학업 성취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 교수님의 행동과 말이 밑바탕이 되어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이 학생들에게 작지만, 본인이 더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 첫 번째 걸음을 수업에서 나아갈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두 번째 걸음은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원하는 목표까지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자신감을 얻었고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를 얻기도 하였다. 여기서 얻은 자신감이 내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한 그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 또한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수강하면서 이러한 학생들이 수업을 들어본다면 어떨까 하는 대상들이 떠올랐다. 바로 독일학 전공에 재학 중인 1, 2학년과 ZD 자격증을 버킷리스트에 담아둔 학우, 그리고 독일어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에게 이 강의를 추천하고 싶다.

먼저, 독일학 전공 1, 2학년의 학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보통은 독일학 전공에 독일어를 이미 배운 상태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비교적 적다. 내가 새내기였던 2019년에, 한 교양과목에서 교수님이 왜 자신의 학과에 진학하였는지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다. 1학년 필수 교양이었기에 많은 동기들과 같이 수업을 들었고 왜 이 학과를 선택했는지 들을 수 있었다. 대부분은 ‘자신의 성적에 맞춰서’ 혹은 ‘독일어에 관심이 조금 있어서’를 이유로 꼽았다. 독일학 전공에 입학한 학생들은 1학년에 전공필수로 기초독일어를 들으면서 다 같이 기초를 다져가는 강의를 듣는다. 그런 시점에, 이 ZD Deutsch를 같이 듣는다면 독일어를 습득하는 속도가 더욱더 빠르고 언어를 배우는 데에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지금 쓰고 주제로 잡아 쓰고 있는 강의는 ZD Deutsch 2이지만, ZD Deutsch 1로 학기마다 들을 수 있는 강의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학과를 들어온 이후에 독일어를 차근차근 배워가는 단계에 있는 학우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두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대상은 ZD 자격증을 버킷리스트에 담아둔 학우이다. 자신이 이 학과를 재학하고 있거나 혹은 제2외국어에 관심이 많아 ZD 자격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학우들이라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한다. 지속해서 언급했다시피, 이 강의를 ZD 시험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강의이기 때문이다. 연습도, 문제 풀이도 모두 ZD 시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교수님께 말씀드려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업 중 한 장면을 말해보자면, 한 부분이 끝나면 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자신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고 싶냐고 물어보신다. 그리고 학생들의 대답을 모아서 가장 많이 언급한 부분에 대한 보충 수업을 진행하시는 순서로 수업이 흘러간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ZD 시험에 관심이 많으며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학기 중에 성과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는 학우라면 이 강의를 들을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어에 관심이 있는 학우이다. 독일학 전공의 전공 강의 중에, 타 학과의 학우분들이 들을 강의는 비교적 적다고 생각한다. 만일, 독일어에 관심이 있어 독일학 전공의 전공과목을 살펴본다면 대부분은 독일학에 관한 내용이고 독일어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강의는 비교적 적거나, 전공필수로 이미 독일학 전공을 재학 중인 학생들로 자리가 많이 남지 않는 강의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이 강의를 추천하는 것인데, 이 강의는 비교적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수업이 진행된다. 그러므로 수업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보통 A1에서 A2의 수준을 다루고

있음으로 독일어를 처음 시작하는 학우여도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고 자신이 따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충분히 흥미를 갖고 들을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상태에 해당하는 학우들에게 추천하고 싶으며, 자신이 기회가 된다면 한번은 이 강의를 수강하여 새로운 경험으로 쌓는 것도 자신에게 색다른 의미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수강하면서 느낀 전체적인 느낀 점과 깨달은 것에 관해 쓰며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 이 강의를 수강하는 첫날, 잘못 고른 것이 아닌가, 학생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수업이 아닐까 하곤 두려움이 가장 먼저 다가왔다. 이미 이 교수님의 다른 수업을 들으면서 참여형 수업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구나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막상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방식의 수업이 더 많은 흥미를 느끼도록 한다는 것을 알았다. 참여하니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생기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되는 것에 대해 생기는 호기심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행동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공부가 되면서 그로 인해 나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특히 이 강의를 통해 뿌듯함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기에 한 학기가 만족스러웠다. 단순히 대학의 강의를 통해서 뿌듯함, 자신감 혹은 그 외의 다른 감정들을 얻기란 어렵다. 지난 2년간 학교에 다니며 안타깝게도 그런 감정을 수업을 통해 얻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강의처럼 한 가지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경험을 했기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꺼리고, 미루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그리고 내가 느낀 이 감정들을 바탕으로 다른 일을 해나가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ZD Deutsch 2라는 강의를 나에게에는 단순한 강의가 아닌 그 이상의 것이었다. 한 학기 동안 원하고자 하는 걸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결국엔 이뤄내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수업을 수강할 수 있었음에 감사한 마음이다. 그리고 나는 이 강의에서 얻은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시작하려 한다.



2020년도 2학기
좋은 강의 에세이 공모전



인간의 생태를 이해하는 거시경제학

경제통계학부 경제정책학전공
서주영

1784년 최초의 기계식 방직기가 발명되고, 수력 및 증기기관을 통한 기계식 생산설비가 개발되며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1870년 신시네티 도축장의 작업환경에서 고안된 컨베이어 벨트를 중심으로 전기동력에 의한 대량생산 체계를 이룬 2차 산업혁명을 거쳐 1969년 최초의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방식의 Modicon 084 모델을 시작으로 세계는 전자기술과 IT를 통한 자동화 진화를 주축으로 하는 3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게 된다. 3차 산업혁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터넷이 급격히 발전된 시기는 1990년대로써 이 시기를 인터넷 혁명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 100년이 채 안 되어, 이제 세상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을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이런 산업혁명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는 무엇일까. 바로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는 생각,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효율적으로 부를 생산하고 축적 및 분배하려는 사람들의 욕망일 것이다. 난 이번 학기에 <경제학 원론:거시-02분반> 강의를 들으며 거시경제학이 이 욕망을 설명하고 이해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거시경제학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 분석을 통해 사회적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미시경제학보다 조금 더 ‘거시적인’ 경제학이다. 즉 소비자와 생산자 개인을 넘어 집단, 국가, 세계까지 경제사회 전체의 통계와 흐름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경제학이다. 물론 내가 배운 강의는 원론강의이다 보니 아주 깊이 있는 수준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 경제 과목을 배우지 않은, 경제학에 대해 완전히 문외한이나 다를 바 없었던 나로서 대단히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해준 강의였다.

강의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것은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였다.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는 강의의 주 교재였던 「맨큐의 경제학」의 저자 그레고리 맨큐가 생각한 경제학을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생각 검원리이다. 이는 경제학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원리이기에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모두에 적용되는 원리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나는 이번 에세이에서 인상 깊었던 수업을 기본원리와 연관하여 어느 부분에서 인상 깊었는지 보다 심층적으로 적어보려 한다.

먼저 세 번째 원칙이었던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이다. 수업 내용 중 어느 부분에서 이 원리와 연관되어 인상적이었는지 설명하기에 앞서 이 원리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모든 합리적 판단은 선택과 행동의 범위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한정된 수량의 먹을 수 있는 빵이 있다면 빵을 먹을수록 남아있는 빵의 가치는 조금씩 떨어지게 된다. 경제학에서 이런 ‘빵’을 재화라고 하는데 선택과 행동을 할수록 변화하는 재화의 가치를, ‘현재 상태에서 특정한 재화 한 단위가 주는 추가적인 이득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물음으로 바꾸는 원리이다.

이 원리와 관련한 인상적인 부분의 수업은 용어를 학습하였다는 점이다. 합리적 판단이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용어의 학습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아할 수 있겠지만 내게 이 원리는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이번 수업을 통해 더욱 친숙하고 쉽게 학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곧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은 위의 원리설명과 같다.

어떤 재화의 소비자가 재화 1단위당 얻는 효용의 증가분(이를 한계효용이라고 한다)이 점점 줄어드는 법칙이다. 콜라 첫 잔의 상쾌함이 세 번째, 네 번째 잔부터 익숙해지고 마지막 잔엔 더부룩함이 느껴질 정도로 상쾌함이 떨어진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이 곧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인 셈이다. 경제학에 문외한이었던 것이 이유인 건지 내게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은 단어의 의미와 별개로 잘 이해되지 않는 용어였다. 이 단어뿐만이 아니다. 소비자물가지수, 국민총소득이니 말잔과 평잔에 연관한 통화지표 M1, M2 등 내겐 이해하기 어렵고 버거운 용어들이었다. 하지만 수업을 들으며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제학의 용어들을 하나하나씩 이해할 수 있었다. 내게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기본원리는 그 중요성과 기초성 만큼이나 용어를 이해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김양중 교수님 특유의 말투와 쉬운 설명이다. 김양중 교수님은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하고 계신 박사님이다. 선배들로부터 친절하고 너그로우시다는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직접 강의를 수강해보니 선배들의 설명 그 이상이었다. 김양중 교수님은 수업 중 본인이 지나오신 직장들의 경험에 관해서 이야기해주신 적이 있다. 박사 학위 소지자로 특채로 공직 경험을 하신 일부터 여러 연구원에서

연구를 계속하다가 현재 소속된 충남연구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지속하고 계시기까지 그전까지 가져왔던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경제학자와 김양중 교수님은 사뭇 다르셨다.

그러한 경험 때문인지 김양중 교수님은 비대면 상황임에도 매우 친근하고 살가운 말투로 수업을 진행하셨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사와 그래프를 통해 설명해주셨다. 에세이를 작성하다 보니 이와 관련한 한가지 일화가 생각난다. 투자와 관련하여 주식 이야기가 강의 도중 등장한 적이 있다. 교수님은 주식투자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동료 교수님의 사례를 이야기해주신 적이 있다. 이야기에 따르면 동료 교수님은 과거 내려갈 대로 내려간 대한항공의 주식을 꽤 큰 돈을 들여 샀다고 하셨다.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며 주식을 산 해당 교수님은 결국 더욱 내려간 주식에 큰 손해를 입었다고 하셨다.

교수님은 이를 설명하시며 강의 녹화 당일의 대한항공 주식 시가를 그 자리에서 바로 검색하여 보여주셨다. 동료 교수님의 때보다도 훨씬 떨어져 있는 시가를 보여주시며 큰 변동성 탓에 주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하셨다. 그저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닌, 일화와 구체적인 현상 및 사례를 곁들여 설명해주신 덕에 이렇게 깊게 머릿속에 남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인상적인 수업 내용과 관련된 경제학의 기본원리는 여섯 번째 기본원리인 ‘일반적으로 시작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이다. 이는 다섯 번째인 ‘자유 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와 일곱 번째 기본원리는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와 깊은 연관이 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본원리와 일곱 번째 기본원리는 얼핏 보면 매우 상충하는 문장인 것처럼 보인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11주 차에 수업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플레이션이란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현상이다. 전설적인 경제학자 케인즈 이전까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죄악시했다고 한다. 시장에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설명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이 개선되고 안정화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 같은 사건들을 거치며 국가의 개입이 시장의 성과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교수님께서 특유의 말투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시장이 자동으로 안정되기 전에 시장이 아예 망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시며 대처와 처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선 국가 및 정부의 시장 개입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셨다.

‘일반적으로 시작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라는 것과 관련한 인상 깊은 수업 내용은 사실 수업 내용뿐만이 아니라 내가 직접 책을 찾아보고 교수님께 질문 메일을 드린 경험에 있다. 9주 차 수업이었던 통화제도 강의에서 교수님은 화폐의 의미와 기능에 관해서 설명해주셨다. 화폐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 자산’을 의미한다.

화폐의 기능은 교환의 매개수단, 회계의 단위, 가치의 저장수단 기능이 있다. 이 수업을 들으며 화폐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 학술정보원에서 관련한 책을 대여하게 되었다.

「흐름이 보이는 세계사 경제공부(미야자키 마사카츠)」가 해당 책이었다. 책을 읽으며 화폐사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과 역사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 궁금증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었다. 책에 따르면 화폐의 기능으로 가치의 교환 수단, 가치의 계측 수단, 가치의 보존 수단 등이 있다고 했다. 여기까진 강의에서 배운 것과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차이점이 없었다. 그러나 책에 따르면 화폐의 마지막 기능으로써 이자로 인한 자가증식이 있다고 했다.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대출을 거치며 원금에 이자가 더해지며 화폐가 자가증식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며 ‘인플레이션이란 통화량의 증가로 일어나는 것인데 화폐의 기능으로서 이자로 인한 자가증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는 결과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인플레이션이 필연적인 결과라면 통화량을 예측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알아낸다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시장이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생겨났다. 이런 내용을 담아 교수님께 메일을 드리고, 답변받을 수 있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과제 제출 메일을 제외하고 수업 외적인, 과제 제출 방법을 여쭙거나 비대면 강의 진행으로 인해 교수님이 요구한 출석 인증 메일을 보내는 일 외엔 1학기를 합해서도 그전까진 교수님께 메일을 드려본 적이 없었다. 궁금증이 생겨도 알아서 궁금증을 해결하거나 메모해놓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경제학 원론:거시> 강의에선 달랐다. 공부하며 궁금증이 생겨 그 궁금증을 해결하려 검색과 독서 등의 방법으로 나름대로 연구해보니 강의를 넘어 <경제학 원론:거시> 강의, 넘어서 거시경제학 분야 자체에 흥미와 애정이 생겼다. 학교를 지원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진로 외에도 경제학 전공을 더욱 살려 연구원에 취직해 학계에 진출하거나 공직 생활을 통해서 보다 직접 경제학을 이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강의에 흥미와 애정이 생기니 공부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다. <경제학 원론:거시> 과목은 중간시험 직전 더욱 확산된 코로나19 사태와 워낙 많은 수강인원 탓에 중간시험을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 중간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를 기말시험에 통합해서 평가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과제 방식이 수업한 PPT 곳곳에 있는 물음에 해답을 구하고 탐구하는 방식이라 수업한 PPT 전체를 훑어보지 않는다면 수행할 수 없는 과제였다. 같이 강의를 수강하는 동기 중에서도 포기하고 몇 가지 질문에만 답변하는 동기들이 속출했다. 과제 중 대부분이 KOSIS 국가통계포털에 접속해 통계자료를 검색하고 엑셀 파일을 이용해 그래프로 만드는 과제였기 때문이다. 강의에, 정확히는 거시경제학 분야 자체에 애정과 흥미가 생겨서인지 내겐 과제와 시험공부가 전혀 귀찮거나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강의 PPT를 복습하며 더욱 정확히 알게 된 부분과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부분을 배우며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던 기회였다.

‘일반적으로 시작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라는 기본원리는 그런 추억과 경험이 담겨있는 문장이다. 오랜 시간을 들이며 거시경제학을 공부하고 과제를 수행하며 새내기 경제학자가 된 기분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었다. 그렇게 쌓아 올린 지식 덕에 기말시험을 치르면서도 어렵다는 느낌이 다른 과목보다 덜 들 수 있었던 것 같다. 아직 성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적어도 <경제학 원론:거시>만큼은 좋은 성적을 기대해도 될 것 같다.

<경제학 원론:거시>에서 배운 것은 물론 ‘원론’이다. ‘원론’이라는 단어에 맞게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일 것이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자연계열로 공부하고 수능을 응시한 나로서는 경제학은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생소한 과목이었기에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경제학을 최대한 쉽게 공부하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앞서 말했듯 거시경제학은 경제사회 전반을 다룬다. 문명을 걸쳐, 아니 인류 사회에 걸쳐 가장 기본적인 논리인 거시경제학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원론을 넘어 거시경제학 과목으로 넘어가서도 이런 흥미와 애정을 갖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 생활 속에서도 경제학 지식을 활용해 한정된 재화로 최대의 효용을 낼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2020년도 2학기
좋은 강의 에세이 공모전



독서를 통해 생각의 깊이를 넓히다.

글로벌학부
윤신영

김윤선 교수님의 글쓰기Ⅱ는 독서토론, 발표 및 토론의 방법, 글쓰기 윤리, 학술적 글쓰기 등을 학습함으로써 논리의 구조화 능력을 얻기를 꾀하는 1학년 필수교양 수업이다.

김윤선 교수님은 독서를 강조하시면서 2학기 내내 김영민의 『공부란 무엇인가』, 최재천의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2권을 책을 가지고 수업을 이끌어나가셨다.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책의 특정 부분만 선정해서 교수님과 학우들과 함께 자세히 읽어보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또한 조별끼리 책에 대해 토론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주제토론시간도 가졌다.

수업시간에 『공부란 무엇인가』에서 저자 김영민은 “의사소통을 하다가 그만 미쳐버리지 않으려면, 소통 중에 사용되는 유사어 간의 차이를 판별해야 한다. 구름, 수증기, 김과 같은 단어를 생각해보자. 수증기는 물이 투명한 기체 상태로 된 것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반면, 구름은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 혹은 얼음 알갱이로 변하여 공중에 떠다니는 것으로서 가시적인 것이다. 김 역시 수증기가 찬 기운을 받아서 영긴 작은 물방울로서 수증기와는 다르다. 사람들이 거창한 주장을 할 때 종종 들먹이는 국가, 정부, 사회, 공동체 등의 단어들, 그리고 민족, 겨레, 종족 등의 단어들 역시 유사하지만 다른 단어들이다. 그러한 단어들의 뜻을 제대로 판별하여 맥락에 맞게 활용하지 않는 한 정교한 의사소통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며 의사소통 중 단어의 명료함을 강조하는 저자에 의견에 대해 교수님과 학우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어 보았다. 그리고 인생 역전 만루 홈런을 없습니까라는 소주제에 대해 “외국어는

단지 여행 도구나 취직 기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모국어로만 이루어진 세계와는 현격히 다른 의미 세계에 접속하는 열쇠다. 외국어를 배워보아야, 자기가 구사하는 언어만큼 생각한다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라는 김영민의 말에 밑줄을 그으며, 필자는 지금까지 단지 외국에 나가 외국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의미 세계를 한층 더 넓히고 그 언어에 숨겨진 문화에 대해 탐구하기 위하여 외국어를 공부해보는 것도 뜻깊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부터 필자는 독서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비판적인 시각으로 독서를 해야 할 필요는 느끼지 못하였다. 하지만 토론이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것이니만큼 상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판적인 자기 견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부란 무엇인가』에서 저자 김영민이 섬세한 언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공부를 고무하지 않는 사회에서 명철함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시민을 기대하는 것은 사막에서 수재민을 찾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주장에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국민들이 비록 못 배우고 못 먹었을 때라도 조국을 향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우리의 할머니 세대들도 그들 나름대로 생활의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책의 내용을 한 글자 한 글자 더 집중해서 읽고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며 구체적인 자기 견해를 갖게 되었고, 덕분에 평면적이었던 책이 더욱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 그리고 또한 『공부란 무엇인가』에서 저자 김영민이 “공부가 즉각적인 쓸모와 거리가 멀면 멀수록, 묘한 ‘간지’가 난다는 것이다.”라고 말한 문장에 대해 저자의 표현대로 공부란 당장에 눈에 보이는 유용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녹아드는 그 무언가라는 데 깊이 공감해보는 시간도 가졌고, 저자가 말하고자 한 핵심문장을 찾아 적어보거나, 주제문으로 요약해보거나 내용을 요약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글의 논점을 정확히 포착하는 능력도 기르게 되었다.

그리고 글쓰기 윤리시간에 배운 주석과 참고문헌을 다는 형식은 처음에는 다소 어려웠지만 교수님의 반복 학습 덕분에 지금은 주석과 참고문헌을 다는 형식을 다 외워 정말 손쉽게 참고문헌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다른 과목에서 레포트 쓸 때도 많이 활용하였다.

또한 조별 주제토론시간 중 여러 학우와 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필자는 그냥 스쳐 넘어갔던 문장을 다시 곱씹어보며 사고의 폭을 넓히고 조원들의 창의적인 의견에 공감하는 등의 뜻깊은 경험을 쌓았다. 일례로 『공부란 무엇인가』의 프롤로그에서 저자 김영민은 진정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모른 채 입시나 취직 준비를 위해 경쟁의 한복판으로 내몰리는 현실에 처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입시와 취업으로 전적으로 환원되지 않는 어떤 탁월함을 목표로 공부를 하게 될 때, 아마 한국인은 양념 치킨보다 더 멋진 것, 이를테면 잘 양념 된 삶을 이루고 향유하게 될 것이다.”라는 문장에 대해 어떤 학우는 “탁월함을 목표로 하는 공부를 양념치킨, 양념된 삶으로 표현한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으며, 현재까지는 입시와 취업에 환원되는 공부, 즉 후라이드 치킨 같은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양념치킨 같은 삶은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일까? 사람에 따라 후라이드치킨이 양념치킨보다 맛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이에 필자는 이러한 의견에 깊이 공감하면서 누구에게나 양념치킨 같은 삶은 강요하는 게 옳은 것인지, 양념치킨 같은 삶이 과연 후라이드치킨 같은 삶에 비해 어느 누구에게나 뛰어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리고 『공부란 무엇인가』의 2부에서 저자 김영민은 “때사에 체력은 기본이지만, 학문의 길에서 체력은 특별히 중요하다. 학문은 장기레이스이기 때문이다. (중략) 체력이 이처럼 중요하더라도 두뇌의 중요성에 비해 체력의 중요성은 그간 충분히 강조되어온 것 같지 않다. 일단 중·고교 교육에서부터 체력단련은 저평가되어왔다.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일주일에 체육 시간이 몇 번이나 되는가?...”라고 말하며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체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놀드 슈워제너거나 실베스타 스텔론 같은 근육 덩어리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저들이야말로 학문에 적합한 인재인데! 그 몸을 가지고 왜 영화배우를 했어! 대학원에 갔어야지! 체력이 좋으니, 그냥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하면 될 텐데!”라는 발언을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학우는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도 정작 공부를 하는 데에 있어서 체력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삶을 살아가면서 체력을 계속 소모하다 보면, 정말 어느 순간에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도 체력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면서 저자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지만 “세상에는 공부 말고도 성공, 혹은 자기 계발을 할 방법은 많고, 그들은 자신들의 체력을 자신들이 좋아하는, 자신들이 가장 빛나는 분야에 바친 것인데 그들을 아쉬워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날카로운 지적도 던졌다. 이에 필자는 비록 저자가 개인의 삶을 고양시키는 공부를 적극 권하는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저자가 말하고 있는 아놀드 슈워제너거나 실베스타 스텔론 등의 근육덩어리 당사자에게는 오히려 영화배우로서의 활동이 공부보다도 그들의 삶에서 큰 가치와 흥미를 불러일으켰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사람마다 상대적인 취향에 대해서 너무 저자의 취향만을 강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또 다른 학우가 『공부란 무엇인가』에서 “기초체력을 안 쌓으면 나중에 감기에 자주 시달리듯, 지적기초를 안 쌓으면 지적 감기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문장을 인상 깊었던 문장으로 뽑으며 “어떤 일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초가 필요하다. 건물을 예시로 들자면, 처음 건물을 세우기로 결정했을 때, 건물을 세우기 위한 사전준비 중 하나라도 어긋나거나 빠지게 되면, 그 후로 쌓아 올리는 건물은 부실한 건물일 수밖에 없다. 기초부터 탄탄히 쌓는다면 후에 진행될 과정들을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에 어떤 일든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에 깊이 공감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조별로 토론한 내용을 PPT를 이용해 글쓰기Ⅱ 3분반의 전체 학우들과 교수님께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러한 발표활동은 지금까지 조 내에서 이루어진 토론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계기가 되었음을 물론 다른 조에서는 어떻게 독서토론을 했는지와 다른 조의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학기 말에는 2학기 동안 책에 대해 독서토론을 한 내용을 토대로 학술적 에세이를 쓰고 이를 수정하는 활동을 하였다. 여기서 필자는 조별독서토론 시간에 『공부란 무엇인가』에서 저자의 “한 번 산다는 일애 생애 주기가 있듯이, 공부에도 생애 주기가 있다. 사시사철 과일이 나오긴 하지만, 아주 맛있는 사과를, 딸기를, 체리를, 홍시를 먹을 수 있는 때는 사실 1년 중 정해져 있지 않은가.”라는 메시지에 주목해 나의 공부 생애 주기에서 지금 내가 열정을 쏟아야 할 공부는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20대가 해야 할 공부로 역사를 권하는 학술적 에세이를 작성하였다. 또한 학술에세이를 조별로 공유하며 조원끼리 자세한 피드백을 받았다.

교수님께서도 일일이 모든 학우의 글을 읽고 정성껏 피드백을 달아주셨고, 교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다 같이 토론하고, 학우들과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하며 생각의 바다를 넓히는 학생 주도적인 시간이었다. 그 과정에서 교수님께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돋보였다. 또한 수업 첫 시간에 크빈트 부흐홀츠의 그림을 보여주며 그림에 제목을 달아보았던 활동, 출석을 부를 때 단어나 격언을 말하는 활동 등도 역시나 너무 인상적이었다.

이 강의를 수강하면서 필자 스스로의 사고의 폭을 넓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책을 통해 다져진 사고로 글쓰기 실력도 향상시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이 독서를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불러일으켰고 여러 학우들과 의견을 나눔으로써 학우들의 독창적인 의견에 감탄하며 학우들을 더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나는 이 강의를 인생의 지혜를 얻고 싶은 여러분께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고려대학교 세종교육혁신원 교수 학습 지원 센터

발행일: 2021년 2월 **발행처:** 고려대학교 세종교육혁신원 교수학습지원센터
발행인: 홍지현 연구원 **Tel:** 044) 860-1473 **Fax:** 044) 860-1477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2511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문화스포츠관 303호

본 모음집은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음

